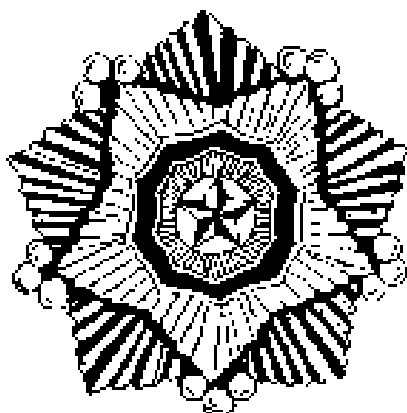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1

주체 90 (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1호

(루계 제 639 호)

◆◆◆◆◆◆◆◆◆◆

차 례

◆◆◆◆◆◆◆◆◆◆

만민의 당부	4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5
태양조선의 세기여	7
《21 세기를 축하합니다》	7
세기의 걸작	8
주체의 닻	9
명언해설	10
우리에게 붉은기가 있다	10
특별렬차	11
소설문학의 더 높은 성공탑을!	12
세기를 이어 전해 질 본보기작품을!	13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13
나의 첫 자욱	14
선군혁명문학운동의 척후병이 되겠다	14
새 세기의 출발선에서	15

전야의 사랑가.....	15
작가의 별명	20
영원하라 신념과 량심의 붉은 산줄기여	21
내 조국의 나이	24
20 세기 주체문학의 빛나는 자욱을 더듬어	25
군대성격 나는 좋아	30
길에 대한 생각	31
6 시	32
작가들의 새 모습.....	33
해저무는 백사장에서.....	40
그 나이를 합쳐 안고.....	54
통일꽃바구니.....	54
후사경	55
한 분조장의 수기.....	68
지문과 경맥전기전도도에 의한 체질분류와 진단	80

만민의 당부

홍문수

새 세기여!

노을을 서둘러 펼치지 말라

이 시각 네게 하는 만민의 간절한 당부

그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고

너 천년의 장구한 흐름을 시작하라

새 세기에도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계속되고

행성우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은

결론을 기다려

여전히 그이의 집무탁에 쌓여 있군 하리니

긴긴 밤을 새우시며

이 세상 모든 난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 주시다

우리 장군님 잠시 쪽잠에 드실 때도 있으리

그런 때면 새 세기여 너는

그이의 귀중한 그 순간을 지켜

한초가 한시간으로 길어 저 흐르게 하라

초소를 찾으시여서라면

진 날 마른 날 가림이 없으신분이어서

장군님 그 길을 찬 비 내리는 날 떠나실수도 있

으리

그러면 새 세기여 너는

서둘러 비구름 가서 내고

푸르디푸른 하늘을 펼치며

자욱자욱 그이를 따라 서군 하라

그이께서 안녕하셔야

사회주의의 승리와 그 무궁한 번영이 있고

온 세계의 자주화도 실현될수 있거니

날마다

시간마다

가슴깊이 새기군 하라

새 세기여

21세기의 천하지대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수무강이다!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최길상

1

문학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인류문학사는 력사발전의 중요한 시기마다 해당 시대정신을 반영한 문학이 나왔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위대한 선군정치시대이다.

선군정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인류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전략적대강으로 새롭게 정립된 정치철학이다. 그것은 인간해방, 인간존엄의 불멸의 혁명철학인 주체사상의 탄생만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이다.

시대정신의 반영으로서의 우리 문학이 선군정치시대를 형상하는것은 문학발전의 합법적적요구이다.

가장 위대한 선군정치시대를 반영한 우리 문학은 선군혁명문학이다. 우리가 말하는 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다. 인류문학사는 선행시대의 낡은 문학과 새 시대의 진보적문학이 교체되는 력사적인 전환기마다에서 새로운 사조를 반영한 문학운동이 일어 났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선군혁명문학은 새로운 사조의 반영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되고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자랑찬 로정을 걸어 온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형의 문학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리념, 령도업적에 의하여 그 특징과 성격이 규정 지어지고 명명되는 독창적인 새로운 문학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로동계급의 문학은 수령의 사상과 리념, 정치철학을 반영하여 나왔다. 지구상에서 첫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함께 나온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은 해당시기 수령들의 사상과 리념을 담고 나왔다.

우리 문학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인간운명의 앞길을 밝혀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로 하여 새롭게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에 선군정치를 더하여 주체혁명의 새로운 한 시대를 펼치고 인류앞에 자주적운명개척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리념을 반영하여 20세기 새형의 문학으로 뚜렷이 부각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군대를 앞 세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군사는 물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시였다. 하여 《고난의 행군》이라는 한 시대, 한 력사를 승리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령도자의 문학으로서의 본색을 더욱 짙게 하였다.

여기에 선군혁명문학의 근본 징표와 성격이 있으며 우리 문학이 선군혁명문학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2

새형의 문학은 새로운 형상으로 담보된다.

선군혁명문학이 새형의 문학으로 태동하여 형상을 펼친것은 20세기 마지막년대의 6년이다.

수천년 흘러 온 인류문학사는 물론 오랜 민족문학사를 놓고 볼 때 너무나 짧은 력사적순간이다. 반세기가 넘는 주체문학사에서도 매우 짧은 시기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세기적위업을 이룩한 위대한 선군령도사와 정비례하여 짧은 력사적순간에 새형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냈다.

문학의 발전면모는 문학운동에 의하여 특징 지어 진다.

류레없이 격동적인 선군정치시대와 함께 우리 문학운동은 격랑을 일으키며 세차게 굽이치였다.

수령형상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줄기차게 격류하였고 네번째로 진행되는 큰 형식의 작품 100편 창작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었으며 조선로동당 창건 55돛기념 전국문학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주체문학운동의 거세찬 전진속에서 시대의 명작들이 전례없이 많이 나왔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를 비롯한 서사시들이 명작으로 창작되었고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인 《영생》, 《붉은 산줄기》, 《력사의 대하》, 《평양의 봉화》 등과 장편소설 《백금산》, 《열망》, 혁명연극 《소원》, 《어머님의 당부》를 비롯한 수많은 큰 형식의 작품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되었다. 명시, 명가사들이 수많은 창작되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과 락관, 환희와 랑만의 정서를 배가해 주었다. 하여 우리 문학이 선군시대의 기치로 힘있게 퍼덕이며 휘날리였다.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문학의 모든 형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형식과 양상이 새롭게 탐구개척되어 다양하고 다채롭게

면모를 갖추었다.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인 소설부문에서 혁명전설, 실화소설, 운문소설, 환상소설, 추리소설, 풍자소설 등이, 시문학에서 송년시, 추대시, 추모시, 련시, 련시초 등이, 아동문학에서 유년기문학, 지능동화, 속담동화, 우화소설 등이… 참으로 어느 부문, 어느 형태에서나 이채로운 형식과 양상의 작품들이 새롭게 발전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의 선도자로서의 우리 식 평론이 새로운 필법과 문체를 가지고 다양하게 탐색개척되고 우리 당의 20세기문학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한 방대한 《주체문학전서》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풍부한 민족문학유산이 발굴되어 운색번역사업이 활발히 벌여 졌고 번역문학이 활발히 진행되어 세계적판도에서 문학을 굽어 보며 주체적인 민족문학을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시야를 넓혀 주었다.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전례없이 문학운동이 벽차고 기운차게 벌여 저 문학사에 비약적인 창작적양양이 일어 나 20세기 주체문학의 봉우리를 높이 쌓은것, 이것이 선군혁명문학의 6년사가 기록한 우리 문학의 참면모이다.

이 놀라운 세기적기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령도로 창조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령도로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최전방초소의 작전대우에서, 강계와 대흥단, 토지정리의 전투장에서 우리 문학운동을 이끄시였으며 문학작품을 하나하나 지도하여 주시였다.

참으로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산아이다.

3

21세기가 시작되었다. 이 세기는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정치의 승리의 세기로 더욱 빛날것이다.

새세기의 우리 문학은 선군혁명문학으로 그 위력을 과시하여야 하며 자주적인 인류문학을 선도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세기적인 사명을 수행하자면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신과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랜 세월에 걸쳐 물려 온 온갖 낡고 진부한 문학의 잔재를 청산해 버리고 하루 빨리 주체적인 혁명문학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우리가 21세기를 선군혁명문학으로 빛내이려면 문학작품창작에서 온갖 낡고 진부한것들을 깡그리 털어 버리고 새 세기의 맛이 나게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인류력사우에 새로운 한 시대를 창조해 놓으신 걸출한 위인,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형상을 창조하는데로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하여 21세기의 태양을 안아 올린 **김정일**강성대국의 위력을 세기의 창공높이 받들어 빛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령도를 받들고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강성대국의 진로를 열어 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총폭탄정신을 더욱 박력 있고 기세차게 형상하여야 하며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전투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폭 넓고 감동깊이 재현하여야 한다.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선군혁명령도의 견지에서 생활과 인간을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선군시대의 위대한 정신이 뜨겁게 고동치도록 문제성을 강화하고 형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우리 문학은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선군혁명문학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의 소설은 모든 낡은 요소와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새로운 세기에 맞게 형상수법과 형태를 다양하게 개척하여야 하며 우리의 시문학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상감정이 하루가 새롭게 발전하고 풍부해 지는 21세기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양을 새롭게 참신하게 채색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 더욱 세차게 나뭇겨야 한다. 우리의 아동문학은 21세기의 태양을 우리르며 **김정일**세기를 빛내여 갈 후비대로 굳세게 자라나는 우리 새 세대들의 심장의 박동과 목소리가 생기발랄한 약동으로, 석심하고 결결한 어른의 성대로그 아니라 쟁쟁하고 또랑또랑한 울림으로 흘러 나오게 하여야 하며 극문학, 평론, 고전문학, 외국문학 등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운동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조직화하고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문학창작에서 전례 없는 혁신이 일어 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백하다.

우리는 모든 창작력량을 21세기 선군혁명문학건설이라는 뚜렷한 방향과 목표에로 지향시키고 쫓아나가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작가들의 집체적인 노력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작전과 공동행동을 구체적이고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한다.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운동은 위대한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21세기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한 문학건설을 목표로 한것으로 하여 문학운동사에서 높은 단계를 이룬다.

새 세기의 우리 주체문학은 선군혁명문학으로 대전성기를 마련할것이며 세기를 진감할것이다.

래양조선의 세기여

박두전

고난을 이긴 승리자의 긍지 안고
부푼 가슴으로 나는 지금
새 세기 대문안에 들어 서노라
그러면 또다시 태어난 기쁨인듯
환희에 휩싸이는 이 마음

사람이 태어나
두 세기를 산다는것도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는 행운이 아니건만
세기의 위인들을 모시고
두 세기를 살아 보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지나온 세기 추억의 문을 열면
수령님 사랑으로 아로새겨져 있어
고마움에 젖어 드는 이 마음
그이 품에 안겨 첫 걸음 떼면서
날과 달이 이어 저 년을 이루듯
내 삶은 그 사랑속에 년륜을 새겼어라

가는 세월 오는 세월 다 살아 보아도
세상에 없어라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
그래서 더더욱 못 잊는 20세기인가
그이의 손길아래
세계에 우뚝 솟아 빛나는 나의 조국이어

낮 설지 않아라
새 세기 문을 열고 들어 서는 이 시각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렇듯 가깝게만 다가서는것인가
우리의 머리위에 찬란했던 그 태양
새 세기 하늘가에 저렇듯 밝게 빛나고 있지 않는
가

편집부의 말

《21 세기를 축하합니다》

종소리, 종소리
제야의 종소리
세기와 세기가 뜨겁게 포옹하는 시각입니다.
희망찬 새해, 새 세기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각입니까.
얼마나 기다려 온 오늘입니까.
한해도 아닌 한 세기를 보내고 또 다른 한 세기를 맞이하는 이 아침 편집부는 걸음도, 생각도, 결의도 류달리 새롭게 가다듬고 제실 작가 여러분들께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저 분이 아니시던가
달리는 부를수 없는
수령님과 꼭 같으신 분
20세기에 받아 안은 그 사랑
21세기로 이어 지는 행운이여
복받은 삶, 조선의 영광이여

《고난의 행군》 시기 너는 보았으리
쪽잡과 켜기밥을 드시며
어떻게 우리 장군님
한몸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시며
자주적인간들의 생명을
하나하나 지켜 주시었는지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강성대국의 대통령이 열린 이 기쁨
태양을 향해 지구가 돌듯이
세계가 조선식으로 움직이는 이 환희
우주의 중심에서 거대한 빛 뿌리며
자주의 새 세기를 밝혀 주시는 **김정일**장군

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나의 조국 조선이여!
너는 우주의 한복판에서 광활한 빛 뿌리며
통일조국 강성대국의 위용을 누리며 떨치며
세계가 부러워 우러르는 나라로 되리라!

력사의 주로에서
세기와 세기가
계주봉을 넘겨 주고 넘겨 받는 이 시각
나는 소리높이 웨친다
20세기는 **김일성**세기 우리 세기라고
21세기도 **김정일**세기 태양조선의 세기라고

《우리 문화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 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격동하는 시대, 21세기를 어떻게 선도할것인가.
이 력사의 물음앞에 떳떳이 대답할 마음의 신들매를 보다 든든히 조여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글을 써주십시오.

수령님세기를 찬란히 빛내여 온 그 붓대로 선군령도로 부흥할 우리의 강성대국, 장군님의 세기를 더 밝게 빛냅시다.

세기의 걸작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은 경이적인 창조와 기적적인 사변으로 역사를 장식하기 마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며 이 땅위에 승엄한 화폭으로 장엄하게 펼쳐진 10월의 대축전장.

이것은 20세기 우리 당 역사에 가장 빛나는 결실을 낳은 대축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수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5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세계인민들의 폭풍같은 반향으로 뚫어 번지고 있으며 누구나 오늘을의 조선을 알기 위해 다시금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여 나가고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준비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역사적인 첫 공연의 막을 올린것은 지난해 10월 12일이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환호의 밤하늘에 터져 오르는 축포, 꽃바다가 파도치는속에 시작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그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 자기의 체도를 고수하였으며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강성대국건설의 새 역사를 열어놓은 사회주의승리자들이 펼친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 작품은 최고의 대작이며 우리 당의 어제와 오늘을 다 보여 주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걸작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으며 우리 당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역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깊이 있게, 감동적으로, 잘 형상한데 대하여 거듭 치하를 주시였다.

그리시면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참가한 전체성원들에게 분에 넘치는 감사까지 보내 주시

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다시 보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연이 전보다 더 세련되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창조성원들에게 거듭 은정 깊은 감사를 보내 주시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곧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이며 영원히 수령님의 력사로 빛날것이라는것을 깊이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세기에 아로 새겨 질 사회주의승리의 조직자, 령도자가 누구이며 20세기의 가장 빛나는 성공담이 어디에 솟아 올랐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완전무결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 주는것으로 하여 공연은 또한 것처럼 승엄하고 격동적인것이다.

20세기를 뜻 깊게 총화짓고 새 세기의 앞길을 펼쳐 보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고 위대한 당이 있기에 위대한 력사가 있으며 위대한 력사가 있기에 오늘과 같은 기념비적걸작이 나올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로정을 거쳐 55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 사람들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보게 된다.

세기의 걸작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창조를 직접 발기하시고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다.

이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작이나 같으며 이 작품의 창작가도, 총연출가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투쟁력사, 고귀한 생애를 잊지 못해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것처럼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인 준비위원회도 내오도록 하시였다.

첫 걸음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시작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창조사업은 장군님의 현명한 가르치심과 고무격려를 받아 안으며 힘 있게 진척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작품대본을 친히 보아 주시였으며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제시해 주시고 사상적 대를 바로 세워 주심으로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성공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총적인 구성방향과 체계가 바로 서게 되었으며 년대기식으로 되었던 종전의 구성방식에서 벗어 나 새롭게 구상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배합비율도 정해 주시고 수백개 장면의 형상도 안도 하나하나 보아 주시면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배합한 작품으로서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 나도록 부족점도 친히 바로 잡아 주시었다.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상징하는 《ㄷ. ㄷ》라는 뜻 깊은 글발이 전광으로 빛을 뿌리며 거기에서 타번지는 불길이 봉화를 지피면서 우리 당의 자랑스런 55년의 력사를 장엄하고 아름다우며 황홀하기 그지 없는 화폭으로 새겨 주는 인상 깊은 그 장면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번 작품이 자기의 형식상 특성을 원만하게 살릴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상방도까지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체조는 체조대로 특성을

살리고 예술공연은 예술공연대로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호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복종하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위한 배경대제작과 무대제작, 현대적인 전광설비와 방대한 규모의 조명장치, 출연자들의 의상과 소도구, 연주자들의 악기를 비롯한 모든 기자재들마다에도 깃들여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은정을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이런 한 없는 사랑과 믿음에 받들려 있기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펼치는 화폭들은 것처럼 승엄함과 아름다움, 황홀함의 최절경을 이루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 불 타는 충성의 응결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력사에 길이 전해 질것이다.

21세기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10월의 대축전장,

20세기의 령마루에 올라 선 이 대축전장은 21세기의 새 아침을 아름다운 꽃바다속에 불러 왔으며 새 세기 강성대국의 길을 밝혀 준 휘황한 등대이다.

주체의 닻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슨

주체의 닻을 내렸기에
사회주의의 닻을 내렸기에
세상에 변화의 바람 몰아 쳐도
천리마조선의 배는
드놀줄 몰라라

거치른 세계의 바다우에서
어떤 사람 겁을 먹고
어떤 사람 모든걸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 허우적거리며
타락의 춤을 추어도
조선의 닻은 광풍앞에 드놀줄 몰라라

보라 저 무서운 폭풍을
끓주린 사자 같은 제국주의폭풍
사납게 세계를 휩쓸어도
심리전의 미싸일을 발사하며
경제봉쇄의 웨침 부르짖어도
신념의 닻은 끄떡 없으라

가련도 하구나
제국주의광풍에 붕괴된 수난자
하루아침에 밀뿌리채 흔들려 허물어 진
이름 높던 고귀한 천취물들
꺼져 버린 어린이들의 그 희망의 해불들

허나
주체사상탑은 곳곳이 솟아 있고
인민의 심장속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튼튼히 뿌리 박고
세월의 시련을 이겨 내며
영웅하게 수호되고 있거니

인민들은 온 생애를 바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주체사상의 타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나니
단결의 기발
단결의 닻은 확고부동하여라
(필자는 가나시인임)

명언해설

《주체성은 민족문화의 얼굴이며 정신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주체성이 민족문화의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주체성은 민족문화의 면모와 그 생명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민족문화는 주체성을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해야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옹호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힘 있게 이바지할 수 있다. 주체성은 민족문화의 면모를 규정한다. 주체성에 의하여 문학의 고유

한 민족성이 살아 나며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되게 된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화는 주체성을 견지하고 옹호할 수 있어야 그 민족성도 정확히 구현해 나갈 수 있으며 자기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인간을 존엄 있고 힘 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고 세계 문화발전에도 특색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붉은기가 있다

정은옥

마음도 생각도 새로워 지는
새 세기 첫 아침-
우리는 궁지에 넘쳐, 신심에 넘쳐 이 말을 한다
우리에게 붉은기가 있다!

제 자식처럼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을
이 아침에 우리가 왜 하는지
새 세기여 너는 들으라
그리고 뜨겁게 간직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가를

지금도 보여 온다
무너진 7월의 하늘가에
한점 붉게 타던 붉은기-
우리 장군님 억세게 추켜 드셨던
아 수령님의 붉은기가

그 붉은기를 지키려고
우리는 배 곯고 추위에 얼면서도
이 길을 택했다
그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려고
우리는 피를 뿌리고 목숨 내대면서도
이 길을 걸었다

버린 자들이야 어찌 알라
자신을 바쳐서 지켜 냈기에
우리는 이 기발의 귀중함을 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안다

우리에게 붉은기가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못 잊을 어제가 있고
가슴 벅찬 오늘이 있다는 말

굳게 믿어 변함 없을
창창한 래일이 있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른것이 아닌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불 타는 사랑속에
크나큰 조국의 무게도 실는다
혁명에 바치는 우리 삶의 무게도 실는다

아 얼마나 땀뻘한가
이 얼마나 궁지 높은가
맑고 푸른 새 세기의 하늘가에
우리는 목숨으로 지킨 붉은기를
가장 뜨겁고 가장 열렬하고 가장 아름다운
새 세기의 선물로 안고 왔나니

우리에게 붉은기가 있다!
이것이 새 세기의 큰 문에 부치는
우리의 성스러운 문패다
보라 붉은기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이 대오앞에 계신다

기쁨이여 가슴 벅참이여
이제 력사는 알게 되리라
첫 아침을 달리는 우리 준마의 발굽소리가
어째서 이렇듯 거세찬지
첫 아침에 터치는 우리의 웃음이
어째서 이리도 아름다운지

아 마음도 소원도 모든것이 새로워 지는
새 세기 첫 아침-
우리는 세계앞에 크게 웨치노라
이 나라 운명의 표대 같은 이 한마디 말을
그렇다, 우리에게 붉은기가 있다!

특별렬차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부르는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그처럼 소리높이 이 노래를 부르는것은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모두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총을 잡은 혁명전사이며 적과의 싸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할 혁명동지입니다.》

진보적인류계에는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 주고 원수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고 있는 이 위대한 선군정치가 얼마나 숭고한 사명감속에 펼쳐 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8(1999)년 2월 8일 어느 한 전연구분대를 현지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정형과 군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고지에서 고지대로, 전호에서 전호으로 쉬임없이 걸음을 이어 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전사들이 어떤 밥과 국을 해먹고 있는가 친히 가마뚜껑도 열어 보시였으며 부식물은 어떤것을 먹는가 창고의 부식물마대도 헤쳐 보시였다.

우리 군인들의 식생활수준은 괜찮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에 성차지 않으시여 군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얼굴색을 찬찬히 살펴 보시면서 건강상태가 어떤지 가늠해 보기도 하시였다.

참으로 다심하고 사려 깊으신 어버이이시기에 군인들은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속에 모두가 건강하고 부러운것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씩씩하게 대답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병사들을 힘 있게 고무격려해 주시였다. 그러시고 부대에서 돌아 오신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여 뜻밖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돌아 본 전연부대전사들에게 송암소목장 소를 보내줍시다, 그러면 군인들이 몇끼 잘 끓여 먹을수 있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를 몇마리 보내주면 충분할것인가를 친히 가르쳐 주시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 졌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낮에 부대를 돌아 보시면서 어찌하여 그토록 군인들의 식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부식물창고에 들리시면 제일 먼저 어떤 고기류가 있는가 알아 보시였는지 그제서야 리해가 되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하루 세끼 고기를 푸짐히 먹이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소원이다.

고기도 여느 고기가 아니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소고기 같은것을 마음껏 먹이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도이다.

때문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취사장에 들리시여 부식물가운데서 고기가 있는가, 어떤 고기인가 세심히 살펴 보시였고 량을 눈저울질해보시며 매 군인들에게 얼마만한 량이 돌아 가겠는가 암산도 해보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지만 마음은 전사들의 밥그릇에 가계시였고 그들의 입맛을 헤아려 보고 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이는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전연부대에 시급히 소를 보내주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소를 수송하는 문제까지도 일일이 토의하시며 소를 보낼바에는 좋은 소를 골라 렬차로 직송하도록 하시였다.

세계화물수송력사에 이런 특별렬차가 있었다는 말은 누구도 아직 들어 본적이 없었다.

인민군군인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가리지 않고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서만 이런 특별렬차가 생겨 날수 있는것이다.

다음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연부대 장병들에게 보내시는 호환진 소들을 가득 실은 특별렬차가 전속으로 전연지구를 향하여 달리였다.

모든 렬차들이 길을 내였다.

모든 도중역들이 즉시 통과신호를 보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보내주시는 소를 실은 특별렬차를 맞고 바래우는 철도일군들의 눈가에도 운전대를 잡은 기관사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어리였다. 하물며 당사자인 군인들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조국의 전연고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만세!》의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일당백병사들의 가슴마다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맹세가 더욱더 세차게 타번지였다.

새해결의

《문학은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 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김정일

소설문학의 더 높은 성공탑을!

20세기는 사대와 망국의 비운에 허덕이며 그 이름조차 잃었던 조선이 세상을 굽어 보는 존엄 높은 조선으로 솟아 오른 세기이다.

사회주의조선이 승리한 세기이다.

격동하는 시대, 광풍을 헤치는 준엄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주체소설문학의 새로운 성공탑이 쌓아졌다. 우리는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고 새 천년기의 첫 세기를 맞이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구상이 지난 세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새 세기에 들어선 우리 인민들을 한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목표가 클수록 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을수록 투쟁이 격렬해 지며 보다 큰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인민은 도전과 시련에 익숙된 인민이다. 승리에 습관된 인민이다. 새 세기의 태양이 솟아 오른 조국에 사는 긍지 높은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새 세기도 조선의 세기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을 확신하며 새 세기의 장엄한 진군길에 올랐다.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확신하고 투쟁하는 인민은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기마련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시대, 위대한 인민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소설문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주체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 동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형상을 변함없이 소설문학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과 진리성, 생활력을 잘 그려 소설문학을 선군혁명문학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결사옹위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요구이며 기본정신이다.

수령절대숭배자, 수령결사옹위자의 형상을 깊이 있게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소설문학이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여기에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

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소설작품창작이 자못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수령의 사상을 지켜 일생을 바친 비전향장기수들의 사상정신세계, 도덕률리의 세계를 깊이 있게 그려 우리 인민모두를 그들과 같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키우는데 소설문학이 한몫 단단히 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기의 위대한 령도, 자랑스런 업적들을 소설문학에 다 옮기지 못하고 새 세기를 맞이했다. 새 세기에도 지난 세기의 자랑스런 력사를 계속 소설에 담아 위대한 세기를 창조해 나가는 인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어야 한다. 새 세기에 소설문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설문학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세계를 굽어 보는 조선에서 창작되는 소설문학은 응당 세계를 굽어 보는 소설문학으로 되어야 한다. 소설문학의 수준문제는 소설가들의 수준문제이며 소설가들의 실력문제이다. 실력이 있어야 실력전이 벌어 지고 실력전이 벌어 져야 명작이 나온다. 명작은 소설가의 실력의 산물이다. 실력은 저절로 얻어 지는것이 아니고 누가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자신이 바친 노력이 그에게 주는 보답물이다. 노력하는 소설가만이 실력 있는 소설가로 될수 있고 실력 있는 소설가만이 위대한 시대가 비낀 인간세계의 탐구와 개성이 있는 작품을 써낼수 있다.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실력을 련마하자- 이것이 새 세기를 맞는 소설가들이 들어야 할 절박한 구호이다. 새 세기가 소설가들에게 지워 준 짐은 결코 가벼운것이 아니다.

모두가 시대선도자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 세기에 쌓아 올린 성공탑을 튼튼히 다지며 더높이 쌓아 나가야 한다.

위대한 태양이 앞을 밝혀 21세기도 조선이 승리하는 세기로 될것이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기고 주체소설문학의 성공탑을 더높이 쌓아 나가는데 미력하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나갈것이다.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김일성상》계관인 김보행

세기를 이어 전해 질 본보기작품을!

돌이켜 보면 모든 역사적시대와 세대들에는 언제나 자기고유의 모습과 숨결이 있었다. 그러한 모습과 숨결은 흔히 시대의 첫 머리에서부터 그 시대를 특징 지으며 선명히 드러나고 힘차게 울려나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 주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받아 안은 온 나라는 지금 활력에 넘쳐 심장을 격동시키며 새 세기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치고 있다.

우리 창작단의 모든 작가들도 충천한 기세로 신심에 넘쳐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충성의 붓을 달리고 있다.

세기와 세기가 이어 지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격동적인 사변들도 가득찼던 지난 세기, 특히 엄혹한 시련과 곡절이 겹치였던 지난 90년대를 굽어보며 온갖 도전과 봉쇄를 짓부셔 버리고 힘찬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는 조국의 억센 기상과 위용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에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그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건당, 건국, 건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그 위업을 제때에 실현하시지 않았던들 오늘의 이 영광과 공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작가들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건당, 건국, 건군의 빛나는 업적을 담고 있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개전기》, 《삼천리강산》, 《열병광장》을 하루빨리 독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 없는 충성의 창작전투를 힘 있게 벌리고 있다.

조국해방의 위업실현에 빛나는 공헌을 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우리 나라 과학기술이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반영한 작품창작도 마지막단계에서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주체문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올해에도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 질 본보기작품창작에서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야 말것이다.

4. 15 문학창작단 부단장 박룡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21세기의 새해 첫 아침을 가슴 부푸는 희망과 열망으로 부르며 제야의 종소리가 환희에 잠긴 이 세계에 울린다.

저 제야의 종소리는 인류에게 그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것인가. 과연 지난 세기는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으며 새 세기는 무엇을 가져다 줄것인가.

새 사조와 새 시대 탄생의 진통을 겪으며 파란만장의 백년세월 격변하는 혁명과 사회력사발전의 진보를 거듭하면서도 인류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수많은 놀라운 발견과 발명, 창조로 지구의 모습을 놀랍게 변화시켰으며 이 세기의 하늘에 자기의 뚜렷한 별들을 새겨 놓았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광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의 대발견이라고 할수 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저 하늘에 하나의 별이 아니라 눈 부신 태양으로 떠오르신것이다.

력사의 새 시대가 태동하던 2월, 조선의 광명성으로 태어 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태양의 위업을 온 누리에 펼치시며 21세기태양으로 빛나고 있는것이다. 영광찬란한 지난 세기에 의지의 보습으로 목발을 갈아 엮고 새로운 문학의 씨앗을 심어 가꾸어야 했던 우리 주체문학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불멸의 혁명송가, 태양찬가로 가득찬 영웅사시적화폭을 펼쳐 놓았다고 할수 있다. 특히 우리 소설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처음으로 혁명소설창작의 새길을 개척할수 있었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랑도》를 비롯한 수령형상문학의 빛나는 탐을 쌓을수 있었음을 자부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세월을 넘어 21세기의 사람으로 된다는 새삼스러운 생각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지난 창작생활을 부끄러움을 가지고 되돌아 보게 된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것은 조선의 작가, 당의 작가라고 하면서도 지난날 《성장》을 비롯하여 겨우 10편 정도의 수령형상단편소설들만을 써냈을뿐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 한편의 장편소설도 써내지 못한 사실을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새 세기에 들어 서는 첫해의 첫 아침에 2000년대의 창작계획을 세우면서 우선 이미 초고를 써놓고도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일시 중단했던 우리 당의 광폭정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편소설 《바다》를 완성할 결심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지리산의 갈벌》(가제)을 최단기일내에 창작완성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며 4부작으로 예견되는 조국통일주체의 장편소설 《력사에 묻다》

의 3부와 4부를 훌륭히 창작하여 분렬된 조국의 동맥을 잇기 위한 성스러운 통일위업에 적으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김일성상》 계관인 소설가 김진성

나의 첫 자욱

눈, 눈
새 세기의 첫눈...
나는 그우에 첫 자욱을 찍는다
아직은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아직은 그 누구도 손 대보지 못한 세계
나의 이 붓끝에 대여 보고자...
내 짙는 걸음엔 생각도 깊다
돌아 보면 지나온 세기의 시작에서-끝까지
내 삶의 꿈이며 희망이던 이름들...
그들의 시를 외우며 자란 어제날의 소년
오늘은 그들과 나란히 한대오에 섰구나
어린 나이, 작은 키...
그 대오의 제일 마지막전사
나도 감히 이 땅의 시인이란 말인가?
가슴에 손 없으니 쿵, 쿵 뛰는 심장
하늘은 푸른데 아득히 높다...
땅은 발밑이여도 끝없이 넓다...
허나 내 주저하랴
나는 류달리 새 세기의 첫 아침에
시인의 첫 자욱을 이 땅우에 찍는 사람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불 타는 결의로 새로웁거니
혹시라도 이 붓이
순간이나마 명예의 꽃다발과 바꾸려 한다면
안일한 획이라도 긋는 때 있다면
누구든 나를 용서치 말아 다오
어머니젖을 욕되게 한 불효자식처럼...
하지만 믿어 다오
락엽밑에 솟아 나는 맑은 샘처럼
티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쉽없이 노래 부르려니
그 마음이 내짙는 나의 첫 자욱
이 나라 청춘들 더운 피로 끓이는
개천-태성호물길우에 찍으련다
거기서 새 세기의 나의 첫 노래
믿음과 보답의 《물노래》가 태어나리니
아 하얀 솜눈우에 찍혀 진 나의 발자국은 작아도
깊다

박현철

선군혁명문학운동의 척후병이 되겠다

새 세기가 왔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20세기 주체문학의 링마루에 빛나는 자욱을 자랑스럽게 남긴 우리 작가들은 지금 새 세기 우리 문학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학으로 이 세기를 빛내일 열망으로 가슴 부풀어 오르는 이 시각 우리 평론가들의 심장은 선군혁명문학의 선도자가 되려는 결의로 더욱 불 타오르고 있다.

평론은 문학창작의 척후병이다.

우리 평론가들은 새 세기 우리 문학의 면모를 새롭게 혁신하고 일신시키는데서 언제나 첨단에서 있겠다.

새 세기 우리 문학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데로 새롭게 탐구하고 개척해 나가며 시대의 미학적리상과 요구에 맞게 문학창작의 형상수준을 혁신하는데서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어떤것들인가, 우리 문학이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문학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떤것들인가, 바로 여기에 당면하여 우리 평론이 초점을 집중해야 할 기본목표가 있다.

우리 평론가들은 또한 새 세기에 평론의 형태를 부단히 혁신하고 형식과 양상을 새롭게 탐구 개척하는데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 나가겠다.

창작실천에 도움이 없는 평론, 실리가 없는 평론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작가들을 창작으로 추동하고 새로운 형상세계에로 내달릴수 있도록 풍만한 창작적환상을 안겨 주는 평론, 사람들에게 선군혁명문학의 성과를 깊이 파악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안내해 주는 평론을 쓰기 위해 분발하겠다.

우리는 하나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는 궁색한 평론이 아니라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치는 지성이 높고 시대와 문학에 대한 평론가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평론을 쓰겠다. 새 세기의 출발점에서 우리 식 평론을 탐구혁신하는데서도 역시 척후병이 되겠다.

평론가 명일식

새 세기의 출발선에서

새 세기가 그어 준 청춘활주로의 출발선에 나서니 이름할수 없는 흥분과 격동으로 가슴이 울렁인다. 지난 세기에 앞서 달리던 시문학의 관록 있는 기동선수들이 여러명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출발선에서 가다듬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고 승업해 진다. 지난 세기는 백두산3대장군의 술하에서 우리 인민이 노예로부터 자주적인간으로 지구우에 우뚝 솟아 오른 거창한 변혁의 세기였다.

참된 인간의 노래가 년대와 년대를 흔들며 력사를 떠밀어 온 시가의 세기이기도 하다. 앞서간 시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와 훌륭한 시가들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으며 그 시가들은 오

늘도 얼마나 힘 있게 우리 시대를 떠밀어 주고 있는가. 그 필봉을 우리들이 틀어 쥐고 이제 새 세기의 창작주로를 달려야 한다. 룡상선수에게는 앞에 결승테프가 마주 보이지만 창작가들앞에는 결승선이란 없으며 붓을 놓을 휴식구간도 없다. 인생마감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것이 우리들의 삶의 로정이고 또한 크나큰 보람이기도 하다. 달리자! 열정으로 덩허 진 폐활량으로 달리고 또 달리자!

이것이 창작주로에 나선 나의 일념이다.

우리 주체의 시문학화원에 한줄 흙이 되어 놓인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김정곤

련시

전야의 사랑가

김정곤

첫 머리에

포전엔
오곡만 큰답니까
하얀 서리에도 웃는 들국화같이
전야의 사랑은 시들지 않아

단꿀 같은 련애편지 오가지 않아도
이삭을 가꾸며 말없이 피어
노래짓기엔 힘겨워도
엮어 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쌈

제대배낭 풀자마자 벌로 달려 온
그 총각과 모를 뜨며 나는 물엿지
초소에 정든 마음
벌써 벌로 옮겨왔나

싱글벙글 그 총각 웃으며 하는 말
벼이삭테를 두른 오각별 군모

머리에 얹자마자
정들은 벌이래요

첫 마디에 푹푹 나도 정들어
다음말은 어쩐지 가슴에만 땀돌아
모춤 묶는 버짚만
뽕글뽕글 돌렸네

쌈에서 돈은 줄기

밤중에도 때 아닌 비바람 불면
제대군인 그 총각 선참 달려 나오지
초소의 《번개》 구렁에 날던 빠름새
온 몸에 펄펄 살아 있나봐

그 총각 걸음 바람 나를 휘몰아
어느새 늦잠버릇 날아 버렸네

줄 지어 제초기 밀어 갈 때면
그 총각 선창 때는 병사의 군가
이 배미 저 배미 따라 부르니
벼포기도 총창인듯 아지 쪽쪽 뽑아요

초소의 그 노래 이 가슴 휘저어
어느새 내 좋은 지정곡 되었네

새벽이슬에
함초롬히 젖은 허리폭
감자이랑에 퍼고
보라빛 꽃망울 쓸어 보는
처녀의 눈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
황홀해
숨이 딱 멎습니다

잠 깬 벼 이파리
이슬 물고 기지개 켜는
논고에 삽장을 박는

풀판에서 양떼 몰고
실개천 여울가를 내리다가
달님이 눈이 동글 입을 딱 벌리네
《어쩌나, 소낙비에 물살이 세진걸...》

주먹돌 썩 썩 굴리는 여울앞에
가도 오도 못하고 두발 동동 구르는데

그 총각 김 잡은 뒤자리 살피면
십리벌 끝에 가도 돌피 하나 없어요
물썰틈 없었던 전조선 눈빛
아마도 쌍눈에 탐조등 달았나봐

김맨 고랑 어물어물 넘던 이 버릇
어느새 나모르게 툭 떨어 졌어요

그런데 그런데 야속도 해라
십리밖 돌피는 잘도 보면서
한발작 앞 요내 가슴 돌치며 크는
꽃줄기는 어째서 못 보는가요

그래도 그 동무 함께 있으니
배미도 포기도 더 고와 쳐요

새벽에

저 총각의 어깨팍을 보라요

민음이
콧-실리어
가슴에 남실 대는 속삭임

물 고인듯
터놓으면
무엇이 흘러 나옵니까

땅을 사랑하는 마음
첫 새벽에 눈을 떠
전야의 사랑은 새벽이슬같이
가슴 우듬지에 아롱아롱 맺힌답니다

비구름만 봐도

하늘에서 툭 떨어 졌는지
제대군인 그 동무
첩첩 겨드랑에 양 한쌍 안고
무작정 씨엉씨엉 물을 건느네

어마나 땅크를 몰았다더니 힘도 장사다
온 몸 휘저으며 돌진하는 땅크기세

허리 감은 물갈기도 어리광치다 달아 빼고
텅기는 물방울도 웃음속에 부서지네

어느새 열두쌍 물 건너 가고
달님이 눈이 동글 홀로 남았네
저기서 음-메- 엄마 찾는 소리
떡판 같은 잔등 앞에 낮추며
《업고 갈가》

《에그마, 한낮에 잔등에 업히다니...》
《끓으면 양처럼 끼고 가지》
덥석 들어 올려 땅크인듯 물살 헤치는데
허공에 뜬 손 모자끝에 놓으며

달빛에
눈물 온도 보고
보폭에 깜빡
쳐너 잠들었는데

포근해
무심중 손 더듬으니
누가 없어 놓았는가
보위색 숨외투

보폭 넘어
소형발전소 건설장
자갈무지에 체대군인 총각
쪽잠 빠졌는데

쳐너가 걸어 갈
끝은 논둑을
물매 곱게
총각은 가래삽으로 다듬습니다

뿌리흙 정히 털어
손바닥에 다독이며
그 총각 씩씩 모내기 앞서라고
쳐너는 모춤을 묶습니다

다듬는 논둑이
쳐너에게 향한 말 없는 고백입니다
모춤 묶는 한오리 벼짚에도
살뜰한 정이 휘감깁니다

낮을 갈아 건네 주며

《무겁지요》
《양들이 무겁더니 거긴 갑삭하구만...》

들쭉 한송인듯 사뿐 내려 놓고
발동건 땅크처럼
버들숲 넘어 멀어 지는 저 동무
《에그 고맙단 인사도 못했네》

...양떼 몰다 하늘에 비구름만 보아도
실개천 돌이 굴던 여울목 생각
간지럼 타면서도 가 닿는 마음 끝엔
《언제 또 소낙비에 물이 불어 날가...》

사랑풍경

따스해
눈을 뜨니
숨외투 날개 돋혀
휙휙 어깨에 날아 와 앉았네

먼동 떠올라
쳐너 이쪽을 보고
총각 머쓱해
자갈에 삽날을 박고...

동산마루
머리들던 해
구름뒤에 숨어
병실 웃네

전야의 사랑은

슬쩍 대어 보는
촉감에도
봄물 같은 사랑이 출렁입니다
전야의 사랑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랑에
씨앗에
쟁기에

넓으나 넓은 벌 이뭇 저뭇에
가꾸는 마음들이
이랑따라 세로 가로
주옥 같은 시가인듯
이삭으로 새깁니다

돌아 가자요

노을 진 시내가에
하얀 매 바위
염소풀이 처녀 그린듯 앉아 있고
총각은 성큼성큼 징검돌 넘어 오고

세벌김 잡고
마을로 돌아 오는 처녀들
열두쌍 눈길이
살촉같이 날아 가네

어마나
감집 제대군인총각
그 언제
샘집 분이와 눈이 맞았을가

드넓은 포전에
모내는 기계 타고 앉아

총각은 해종일 배미를 누비고
처녀는 염소떼 물고 산을 오르고

속보관 옷머리에 나란히 이름이 오르더니
연분으로 깊어 저 쌍을 지었나
풀판과 논벌에
어느새 오작교가 걸렸네

저것봐 멋진 회초리
주는척 잡은 손
에그머니 쑥 빼며
고개 돌린 분이...

축포의 포물선인듯
어깨우엔 실버들 휘늘어 지네
야-부럽네
하지만 아니 본듯 돌아 가자요

이삭은 왜 고개 속이나

남몰래 감춰 둔 순정도
여기서는 모살이 뿌리에 묻습니다
가슴에 샘 솟는 속삭임도
여기서도 논고에 실어 보냅니다

깊이깊이 아껴 둔 사랑의 고백도
예서는 싱싱 아지에 담아 주고
봄물 같은 사랑의 젖을 물려
터질듯 빼여 올린 이삭입니다

사랑 사랑 아니면
한치도 클수 없는 오곡들이
일년내내 쏟아 부은 사랑으로
온 벌을 금빛으로 덮었으니

무거워 무거워
고개 숙인 이삭이 아닙니다

받고 받은 한량 없는 사랑의 무게에
이삭은 너무도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솟저이
가꿔 준 사랑앞에 쑥스러워
머리 못들고 다소곳이
고개를 떨군것입니다

아! 한포기에도 바친 사랑을
굳이 헤아린다면
일생을 련인에게 다한
그 열렬함과 맞먹을가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직성스러우면
지각 없는 오곡도 다 알아
고개 숙여 큰절을 한채
차마 머리들지 못하겠습니까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

이삭아
너 아니면
내 어이 제대되어
이 벌로 왔겠느냐

랑만에 찬 건설장을 옆에 두고
대학으로 가는 총계를 아니오르고
군화에 묻은 전호의 흙을

전야에 내려 서서 털었겠느냐

중대식당근무의 밥이 잦던 아침
우리 취사장에 들리신 어버이장군님
행주 두른 나를 보며 수고한다고
병사들 먹는 밥을 나도 좀 보자고
얼른 가마를 한번 열어 보라고...

호박을 썰어 섞은 밥을
차마 보이기 송구스러워
젖은 손으로 취사복자락을
비틀며 어쩔줄 몰라하는데
《어서 열라》고
끝내 가마안을 보여 드릴 때

안색을 흐리시던 영상
뚜껑을 닫으려는 나의 손 잡아 멈추시고
그냥 자리 뜨지 못하시는 어버이
해종일 이 마음엔 하늘이 흐리어
그이를 모신 영광의 기념사진
일생에 한번이나 있을 이 자리에
중대가 다 밝게밝게 웃는데
나만은 마음이 무거워 웃지 못하고 찍었다

이삭아
내 이별에 온것은
식성도 한창 왕성하여
돌도 넣으면 와작와작 소화시켜
《곱배기》란 낱말도 나온 병사들에게
호박밥을 끓이던 그 아픔만이 아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젓 뎀 아이들도 포랑포랑 외우는
그때문에 실농군들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는
전선길에 우리 장군님 드시는
가슴 예이는 췌기밥의 혁명일화도
종당에는 너로 하여 생긴 이야기 아니냐

너로 하여
총잡은 사단과 련대들이 전연을 떠나
전투장구에 모줄을 휘감아 엮고
별을 향해 강행군을 하고
아이들까지 학교문을 나서서
소랭이 밑굽에 구멍이 나도록 별을 돕지 않느냐

너로 하여 탐스런 머리태 엄청난 보짐에 묻고
녀인들이 밤길을 걸었고
봉쇄환이란 독뱀을
우리 허리에 휘감으며
제국주의 악종들이 악을 토하지 않느냐

이삭아 이삭아
그때문에
내 목숨 같은 총을 놓고

너와 인연을 맺었으니
너는 나의 억만자루 총!
참호에서 총알을 세이듯
이제는 하나, 둘... 열... 열들...
포기를 세이며 너를 키우려다

두엄을 주고
체온을 주고
펄펄 끓는 가슴에
너를 싸 안으며
아껴 아껴 입김을 불며 너를 가꿀테다

이삭아
땀을 달라면 강그리 땀을 줄테다
살점을 달라면 살을 떼줄테다
갓 서른 오르도록 입밖에도 못내 본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줄테다
지어 목숨을 내라면 목숨까지도 바칠테다

하늘 같은 이 사랑! 이 직성!
이삭아 무거이 무거이 감아 싣고
쫄- 쫄- 쌀소나기를 쏘아 붓자
땅밑에선 동이 같은 감자알을
땅우에선 2모작 3모작 알찬 오곡을
하늘 메이게 쌓아 올려

쏟아 붓자 쫄- 쫄-
전연중대 쌀창고가 넘치게
집집의 쌀독이 터지게
려관집 상다리가 부러 지게
국수집 사리가 멎지 않게

쏟아 붓자
안으로 뚫어 가던 핵피구멍이
밖으로 나오며 뚫어 지게
허리띠 조이며 숨겨 둔 주름들이
다림질한듯 매끈하게 퍼이게
아이들 앵두볼이 팡- 팡 소리나게

우리 장군님 수없이 만나시는
병사들과 어린이들
로동자들과 과학자들
너무도 싱싱 혈색이 좋아
마주하시면 만족하게 웃으시게

녀인들 치렁치렁한 머리끝에
꽃수건이 춤을 추며 훑날리게
봉쇄환의 독뱀을 감던 악종들

넋을 잃고 죽어 자빠지게

이삭아 내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초소에서 나의 사랑은
번호 새긴 종이였다

제대군인 총각 한마디 더 한다면
나의 사랑은 이삭, 이삭은 내 사랑
배후자선택에 무슨 소개자가 필요하랴
이삭을 온몸으로, 온 일생으로 사랑하는 처녀
그런 처녀 내 사람으로 만들레다!

나를 청해 다오

잔치날이 오면
전야의 원앙들이
잊지 말고
나를 청해 다오

대돌우에
폭폭 익은 찰밥 무저 놓고
떡메 휘둘러
잔치떡을 내가 치고 싶다

나라의 상다리
가슴에 받쳐 세우고
억척같이 전야를 가꾼 그 손에
철철 넘는 첫 잔 내가 붓고 싶다

봄내 여름내
해모자 벗지 못한 신부 머리엔
내 산천의 고우나 고운꽃은 다 골라 엮어
왕관인듯 엮어 주고

일년내내 바지가랭이 내릴세 없이
논판을 밟던 그 밭에
말큰한 썩한 구두
내가 놓아 주고 싶다

불 같은 사랑 포기포기에 다 쏟아
넓으나넓은 벌의 수억포기를

젖살 오른 애기인듯 다독이며
극성을 부어 키운 저 일망무제-

《먹어야 힘난다》는 노래가락을
성실한 땀으로 이삭에 영글이며
마주치는 눈길조차 못본듯이
이랑에, 배미에 먼저 주던 원앙들이

쌍닭이 물어 올린 《축복》이란 글자
쑥 빼여 하늘공중에 활활 걸어 주고 싶다
땅에 바친 그 사랑이 열이면
백년이 가도 주름 한오리 건너 가라

축복하노라
땅에서 맺은 사랑 땅빛처럼 변색 말기를!
신방에 드는 첫 밤의 단꿀이
머리 희도록 가슴동이에 철철 차넘기를!

강성부흥, 이 흥한 년대에 자손도 흥할손
장독 같은 복동이라도 한구들 낳거라
세세년년 오곡을 쏟아 놓고도
그 언제 땅이 지칠줄 알더냐

잔치날이면 나를 청해 다오
그날에 읊조릴 축시
붓을 휘둘러
전야에 후련히 획을 긋고 싶다

작가의 별명

문학과 독자들속에서 불리워 지는 작가들의
별명은 그들의 개성과 창작적기교를 느낄수 있게
한다.

지난 시기 프랑스에서 불리워 지던 일부 작가들
의 별명을 소개한다.

- 앙리 베른슈타인(극작가)-엄한 어전모임
- 장 콕토(시인, 소설가, 극작가, 연출가, 화가)-

재치 부리는 탁구공

- 루이스 풀래(시인, 소설가)-뜨거운 비너스 대리석상
- 뽀 제랄디와 제르맹 류뱅-흔들리는 물표면
- 기드 모파쌍-우울한 황소
- 에밀 졸라-위대한 찌꺼기

영원하라 신념과 량심의 붉은 산줄기여

리금희

새 세기가 밝아 왔다.

하많은 사연으로 엮여 진 20세기를 바래우며 21세기의 러명이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인다.

환희로 부푸는 가슴을 들먹이며 새 세기의 언덕에 올라 선 이 시각 우리는 피와 땀으로 뚫아 온 협산준령을 감회깊이 돌이켜 본다.

무슨 힘으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20세기의 그 험로역경을 뚫고 왔는가. 과연 무슨 힘으로 폭풍치듯 휩쓸어 드는 그 고난속에서 혁명가의 존엄과 영예를 끝까지 지켜 냈는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리종렬 작)는 여기에 똑똑히 대답해 주고 있다. 그것은 심장깊이 간직된 혁명적신념과 량심의 힘으로 승리한것이라고,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야말로 간고한 시련의 폭풍우속에서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이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입니다.》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는 조선혁명의 년대기에 가장 엄혹한 나날중의 하나로 새겨 진 주체28(1939)년 가을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근과 질병, 모진 자연의 횡포, 계속되는 고된 행군과 치열한 전투... 항일의 혈전에서 너무도 범상한것으로 되어 버린 이 모든 난관은 제쳐 놓고라도 이 시기 조선혁명앞에는 그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준엄한 시련이 닥쳐 왔다.

《혜산사건》의 여파로 수많은 혁명가들이 체포 투옥되며 국내에 피줄기처럼 뻗어 있던 조국광복회조직들이 파괴된것이었다.

얼친데 덮친격으로 국제정세에서도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파쑈도이칠란드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를 아연케 하였던 쏘련이 이제는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던것이다.

사실 이것은 일제와 피의 격전을 벌리고 있던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회주의성새로,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던 그 쏘련이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변증법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죽어야 한다, 쏘련을 옹호해야 한다는 세계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무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는 쏘련지도부의 의도

를 존중하여 군사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일체 무장투쟁을 중지하고 지하로 들어 가자, 력량을 보존하자, 사대주의자들, 패배주의자들의 열띤 목소리들이 이렇게 처처에서 아우성치듯 터져 나온다.

작품은 악조건으로 충만된 이런 력사적환경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면서 고난의 세파를 헤가르고 조선혁명을 일대 양양기로 이끌어 올린 열혈의 투사들, 혁명가들의 투쟁모습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설은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력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쓰일간에 있게 될 그 어떤 평화협상이란 두 령강의 당면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별리는 협상일것이다, 정의가 없는 순 리해관계에 의한 협상이니 그것은 공고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며 리해관계가 달라 지면 즉시 깨여 지고 만다고 하시며 국제당이 우리에게 그 무슨 무장투쟁의 중지니 뭐니 하는 로선들을 내려먹이고 있는데 우리 혁명군은 누가 뭐라고 하든 인민대중의 지지성원속에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선택한 무장투쟁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 설수 없다, 이것이 곧 쏘련을 옹호해야 할 국제주의적의무에도 부합되는것이라고 힘 주어 말씀하신다.

력사적사변의 모든 진상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이렇듯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계속 확고히 틀어 쥐신 수령님께서서는 《력량보존》이 아니라 도처에서 일제에게 불벼락을 안기는 눈 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조직지휘하신다.

그리하여 혁명의 퇴조기를 운운하던 목소리들이 움츠러 들고 목단령과 룡과송, 홍기하와 삼수평, 양초구와 대황구 등 혁명군의 발길이 가닿는 국내의 곳곳마다에서 일제의 정예무력을 족쳐대는 승리의 총성이 힘차게 울려 퍼진다.

작품은 천재적인 예지와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백전백승하시는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품모뿐 아니라 항상 전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동지애의 세계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감옥에서 시달리는 혁명전사의 가족들이 의지가할데 없어 류랑걸식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그들에게 자신의 모포까지 보내주시며 원썬놈들

이 권영벽의 가짜전향서를 내돌릴 때엔 자신께서는 그를 끝까지 믿는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기도 하신다.

애인을 잃고 한 녀대원이 피로움속에 모태길 때 친히 그를 찾으시여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밤새 꺼질줄 모르는 사령부의 불빛때문에 대원들이 잠 못 들가봐 불 없는 어두운 천막안에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장면들 또한 그이께서 지니신 무한한 동지애, 사려 깊은 인정미의 숭고한 화폭으로 눈시울 뜨겁게 펼쳐 진다.

작품은 이처럼 그 어떤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과 동지들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여 비범한 예지와 평군술로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동 깊게 형상함으로써 그이이시야말로 우리들모두가 가장 순결한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끝없이 믿고 따라야 할 위대한분이심을 예술적으로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신념과 량심의 최고표현이다.

소설은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위대성을 잘 형상하였을뿐아니라 모진 폭풍이 몰아 친대도 오직 그이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그이의 두리에서 변함없이 반짝이는 충성의 별들, 혁명전사들의 모습도 빛나게 형상하고 있다.

언제나 수령님의 의도를 민감하게 받아 들이시고 그이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켜 나가시며 그이께서 지니신 사랑 그대로 동지들을 무한히 아끼고 위하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형상, 사령부의 명령지시라면 자그마한 드림도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관철하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해 가는 오종흠7대장장의 투쟁모습, 중세기적인 고문과 악형, 무서운 고독속에서도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쳐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는 권영벽동지의 불굴의 형상 등은 자기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혁명전사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실감 있게 보여 주는 산 화폭으로 빛나게 부각되고 있다.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시련과 난관을 역세게 뚫고 나가는 혁명가, 투사들의 형상과 함께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의 몰골 또한 두드러지게 형상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로 설정되고 있는것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참모장이었던 민경식의 형상이다.

민경식은 중학시절부터 혁명열에 불 타 혁명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던 《투사》였다.

흰칠한 키에 얼굴모습이 준수한 그가 류창한

언변으로 사회주의10월혁명이요, 중국무산혁명이요, 선행고전가들이요, 로동계급의 수령들이요 하며 열변을 토할 때면 선망으로 불 타는 대중의 눈길이 그에게로 모아 지군 하였으며 주력부대의 참모장으로 임명되었을때에도 전투의 나날속에 기민한 야간습격과 매복전, 대담무쌍한 유인전으로 왜군을 무리로 쓸어놓혀 혁혁한 전과를 올리며 싸움마다에서 실로 놀라운 군사적수완을 발휘함으로써 사람들의 탄복을 자아내군 하였다.

그러던 그가 변절의 시궁창에 굴러 떨어 진다.

한별만을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다지고 근 10년 동안이나 혁명을 해왔으며 참모장이라는 중임까지 지고 장군님의 각별한 신임을 받던 그가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는 《결사대》에 앞장 서는 추악한 왜놈의 주구로 전락된다. 한때 정의와 진리의 위업이라고 믿었던 혁명의 길을 버리고 함께 싸워 온 수많은 동지들과 대원들을 버리고 변절투항하여서는 자기의 오랜 친구인 권영벽의 혁명적 지조를 꺾어 보려고 비렬한 귀순공작놀음까지 벌린다.

리론수준도 쟁쟁하고 투쟁경력과 직위, 군사적 지휘능력과 재능도 뛰어 났던 민경식, 이런 그가 어쩌서 혁명으로부터 반혁명메로, 정의로부터 불의메로 변절하여 혁명가로부터 배신자로 타락하게 되였는가.

작품은 그가 변절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 지기까지의 사상적부패과정, 정신도덕적파멸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 보이고 있다.

혁명바람에 실려 《혁명》의 길에 나선 민경식에게 있어서 애당초 혁명이란 무언가를 얻는것이였다.

참된 자유와 권리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것, 이것이 바로 혁명에 대한 그 나름의 주장이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자유와 권리, 행복이란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 당하는 수천만겨레의 자유와 권리,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권리, 행복이였다.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혁명은 그의 피를 끓게 할수 없었으며 항일전이 승리한다 해도 자기가 그 승리를 맛 볼수 없고 승리후의 영광과 행복을 누릴수 없다면 그런 혁명은 아무런 인연도 없었고 허무하기까지 생각되는 것이였다.

이렇게 혁명에 대한 견해자체가 리기적인 그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과 량심이란 자기의 리익과 시세에 따라 흔들리는 서풍짜리에 불과한것으로 되며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 쏘일간의 《눈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까지 도래하자 드디어 완전히 췌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기가 실아 남아서 락을 볼지 못 볼지 이것도 암담한데 그 혁명이 이제는 승리의 가능성마저 묘연해 보인다. 뚜렷이 보이는것은 일본의 경제

력, 군사력, 일제침략군의 일시적승리뿐이어서 사령부의 모든 방침들에 의혹만 짊어 가며 우울과 비판, 동요, 패배의식이 뇌를 좀 먹기 시작한다.

그는 낱을 따라 비감에 잠겨 술을 마시게 되며 원썬놈들에게 애인을 잃고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너대원을 룡락하려고까지 드는 패덕한으로 썩어 간다.

하다면 변절자 민경식은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헌신짝 꿰개치듯 하며 그리도 바라던 자유와 권리, 그리도 얻고저 하던 행복을 찾았는가.

그는 스스로 개가 되어 빌붙었던 상전에게서 버림을 받아 멀리 이국에서 이국으로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되며 자기 친자식에게서마저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도 뺄대를 받아 좀도적으로 연명하다 생을 마친다.

혁명을 버리고 동지들을 배반하고 개인의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던 그가 변절의 대가로 얻은 것이란 결국 치욕과 뺄대, 더러운 파멸뿐이었다.

작품은 이와 같이 민경식의 변절과정과 그의 말로를 깊이 있게 보여 주면서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그 신념의 기둥을 드팀없이 받쳐 주는 량심의 지지대가 파괴된 인간은 변절과 파멸의 길밖에 갈수 없다는 진리를 뚜렷이 새겨 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한 변절자의 운명을 통하여 보다 심각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한명찬과 마영복과 같이 무턱대고 그에게 맹종맹동하다가 뉘우치는 인물들의 형상도 설정함으로써 아부와 아침은 혁명간부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모독이며 사람을 잘못 보고 따르면 혁명에 엄청난 손실을 줄수 있다는 사상도 강조하여 주고 있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에 대한 문제를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각이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해 여기에 심오한 해명을 주고 있는 작품은 자기의 주제사상특성에 맞게 그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작품에서 기본인물들은 크게 혁명가들의 집단, 변절자의 형상으로 갈라 지며 두 형상선이 자기의 굽을 따라 병행적으로 흐르고 있다. 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부류의 인물선을 나란히 맞세워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이속에서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혁명적신념과 량심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해명되도록 하고 있다.

권영벽과 민경식과의 관계가 그 대표적인 레로 된다.

이들은 어제날 눈물겨운 고향의 길도 함께 걸었고 놈들의 검거선봉을 피해 아슬아슬한 지하활동도 함께 하였으며 오직 한별만을 따르자고 맹세도 함께 다졌던 막역한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혁명앞에 준엄한 난국이 조성되자 두 인물은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 혁명이란 자기

를 바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권영벽이 외부와의 모든 련계가 끊어 진 절해도속에서도 굴함없이 지조를 지킨다면 혁명을 무언가를 얻는것이라고 여기는 민경식은 장군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싸우지만 원썬앞에 투항하고 마는것이다.

두 인물의 혁명관자체를 대조되게 보여 주고 두 인물이 처한 구체적인 정황을 대조되게 설정한데 기초하여 작품에서는 이렇듯 한 인물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켜 영생하는 투사로, 다른 인물은 신념이 흔들리고 량심에 쫓겨 쏠려 비참한 말로를 고하는 변절자로 대조되게 형상하고 있다.

이 작품의 구성조직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변절자 민경식에게 중요한 초점을 두고 그 형상에 적지 않은 지면을 주고 있는것이다.

작가의 관심은 긍정인물이상으로 부정인물인 민경식의 형상에 집중되어 그의 일거일동을 하나 하나 파헤쳐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변절자의 형상을 통해 흘러 나오는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혁명적신념과 량심에 관한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심오하게 해명하려는 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부합된다고 할수 있다.

혁명의 배신자인 부정인물선이 주제사상적내용 해명에서 중요한 몫을 안고 보다 강조되어 형상된데 총서계렬의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고 보아 진다.

×

혁명의 길에서 고난과 시련은 인간의 진가, 혁명가의 진가를 검증한다.

평화롭고 순탄하던 나날엔 다 몰랐던 인간의 진면모를 그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투영해 주며 추호의 에누리도 없이 무자비하게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

참과 거짓을 가르는 이 고난과 시련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까지 계속되는것인가.

우리는 그 계선을 알지 못한다.

항일의 투사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50년대에도 겪었고 90년대에도 우리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던가.

혁명이 시작되어 그것이 계속되는 이상 고난과 시련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으며 래일에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알고 있다.

고난과 시련의 그 언덕들에서 언제나 참된 혁명가와 배신자들이 갈라 져 나가며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그 시금석으로 된다는것을.

잠시 뒤 돌아 보자.

우리가 헤쳐 온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날과 달들을.

식량난과 거듭되는 자연재해, 제국주의고립압살책동과 사회주의진영의 붕괴, 때를 같이 하여

대오에서 꼬리를 사린 혁명의 배신자들...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듯한 그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
리는 아득히 흘러 간 30, 40년대를 방불히 보는
듯 하였고 혁명적신념과 량심이야말로 고난과 시
련의 소용돌이속에서 혁명가가 진정한 혁명가로
남게 하고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남게 하는 기본
징표임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를 쓴 작가도 이 진리
가 가슴 사무치게 마쳐 왔기에 총서 《불멸의 력
사》의 항일혁명편창작이 끝난것으로 여겼던 사람
들의 예상을 초월하여 30년대~40년대의 그 이야
기를 다시 펼쳐 놓았으리라. 그리고 90년대를 련
상케 하는 그때의 이야기로 오늘의 녀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려 했으리라.

우리는 작품에서 보고 있다.

장구한 조선혁명의 력사적로정우에는 민경식과
같이 배신의 길로 굴러 떨어 진 변절자들도 있
었지만 오중흙, 권영벽, 리제순, 박달, 오백룡, 박
덕산과 같이 혁명의 사령부를 따라 굽어 죽고 얼
어 죽고 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혈전의 천만리
길을 억척스럽게 걸어 온 신념과 량심의 화신들
이 천만산악의 련봉을 이루고 있음을.

그 신념과 량심의 련봉은 오늘날 후대들에게
이어 지며 붉은 산줄기로 뻗어 내리고 있다.

혁명이 계속되고 투쟁이 계속되는 한 신념과
량심의 이 붉은 산줄기는 영원히 거창하게 뻗어
내려야 하리라. 세기와 세기를 이어 가며 주체혁
명위업의 중국적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곧바로!

내 조국의 나이

김봉은

폭풍시대의 준령을 넘어
승리한 내 조국의 산과 들에
새해의 축복을 얹으며
송이송이 눈꽃 피는 이 아침

다섯살잡이 손자녀석
새 년력 바꾸어 달며
나에게 묻는다
우리 조국의 나이는 몇살인가고

선뜻
대답할수 없어라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이 움터
눈이 오고 비가 온 그 세월
있 떨어 진 나무에 새 잎을 피우며
해가 뜨고 별이 솟았건만
진정한 삶의 빛이 없던
피눈물의 그 험난한 세월이
눈에 밝혀 오누나

그 세월 모두 합치면
내 조국의 나이가 될가
그 세월 지워 버리면
내 조국의 나이가 될가

아서라
삶의 꽃이 필수 없던 그 땅을

어찌 조국이라 부르랴
빼앗겼던 그 땅을
어찌 조국이라 부르랴

살아선 짐승같이
피눈물에 가슴 터지고
죽어서는 문힐 땅
문어 줄 손길마저 찾을 길 없던 그 세월

아, 주체1년 4월 15일
이 땅의 풍설력사에 중지부를 찍으며
세월의 모진 진통을 헤치며
여기 만경대에 솟았다 민족의 태양
태여났다 영원한 나의 조국이

영광의 그날부터
우리 이 땅의 주인될 담보가 생기고
우리 인민이 안겨 복락할
위대한 품이 생겼거니

내 조국의 나이
그것은 수령님의 나이
수령님의 나이
그것은 그대로 내 조국의 나이란다
주체의 년호로 세기의 총계를 오르는
내 조국의 영원한 나이란다

20 세기 주체문학의 빛나는 자욱을 더듬어

참 가 자 들

김병훈: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 정: 4. 15문학창작단 단장

김보행: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승남: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길상: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장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창조의 열정속에 20세기 문학사를 돌이켜 보게 될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새 세기를 맞이한 작가동지들을 만나고 보니 두근거리던 저의 마음은 어느덧 평온해 지고 지나온 세기에 대한 감회가 뜨거워 집니다.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의 막이 오르고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20세기는 인류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위대한 태양을, 아니 그것도 한 세기에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일대 비약과 기적이 일어 난 위대한 전환의 세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20세기의 자랑스러운 력사속에 우리 주체문학이 걸어 온 경이적인 발전력사도 한페이지 빛나게 비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병훈: 새 세기의 분기점에 올라 지나온 한 세기-20세기에 우리 문학이 걸어 온 발전로정을 돌이켜 보니 실로 가슴이 뻐근해 지고 하많은 추억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옵니다.

수천년 흘러 온 인류문예사와 유구한 민족문학사를 거슬러 올라 보면 오늘처럼 백두산3대장군의 손길밑에 우리의 주체적사회주의민족문학이 찬란히 꽃 피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게 됩니다.

김보행: 우리 문학은 시대의 변화발전에 예민하게 감수하여 왔습니다.

일제의 강점과 더불어 《시일야방성대곡》이 온 조국땅에 울려 퍼졌던 20세기 초엽 유구한 문화전통을 자랑해 온 우리 문학은 라침판 없는 배와도 같이 항방을 잃고 방황하였으며 사회의 버림속에 모진 진통기를 겪어야 했던 천대 받던 문학이 아니었습니까. 소설가들은 인간이하의 멸시와 굴욕만을 들춰우는 사회현실에 《박돌의 죽음》으로 반항도 해보았고 《탈출기》로 몸부림도 쳤습니다.

김성조: 봄은 봄이여도 봄을 느낄수 없어 시인들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망국의 설움을 휘뿌려도 보았고 일제와 당대 사회현실에 《님의 침묵》으로 항거도 해보았으며 속절없이 시들던 우리 인민의 운명을 뜰안에 핀 《봉선화》에

담기도 했고 길가에 핀 《진달래》에 진정한 사랑을 그리던 인민의 마음을 담아 노래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승남: 어찌 소설, 시문학뿐이겠습니까. 20세기 초엽은 우리 아동들에게도 어둠을 던져 주었습니다. 하여 옥도끼, 금도끼로 초가삼간 지어 놓고 량친부모 모시고 화목하게 살아 보자는 그 소박한 념원을 동심에 담아 저 하늘의 달속의 계수나무도 불러 왔고 눈물 없는 내 나라를 찾아, 웃음 많을 내 나라를 그려 저 《푸른 하늘》의 《은하수》에 대고 《목동의 피리》도 구슬프게 불러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 실로 20세기초엽 우리 문학은 피의 절규로 일제에 대한 항거정신과 기약 없는 《님》의 앞날을 그리며 애달픈 감정에만 젖어 있던 비애와 향수의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문학에 20세기 자주시대의 등불이 밝은 빛을 뿌려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가자에서 혁명의 꽃바구니를 피워 올리시고 간도에서 《피바다》로 혁명의 성문을 열어 제끼시고 로야령에서 《반일전기》의 힘찬 노래로 혁명의 시련을 뚫고 나가시는 파정에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그리고 카륜과 고유수, 오가자일대에서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 《나비와 수닭》, 《놀고 먹던 꿀꿀이》, 《황금덩이와 강낭떡》, 《두 장군 이야기》로 혁명의 진리를 깨우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탄생으로 하여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우렁찬 포성이 울리었습니다. 그때부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 바탕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는 전기간 자주시대에 가장 옹운 해명을 줌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길상: 정말 20세기는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새형의 인간학인 주체의 인간학이 탄생한 세기였고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

으로 등장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주체사실주의가 새로운 시대사조로 출현한 세기였으며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에 구현하고 공고발전시켜 온 세기였습니다. 이 세기에 공산주의인간학인 우리 문학은 주체문학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는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자: 우리 문학이 지나온 세기에 주체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때 그 표징이라고 할지 특징이라고 할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길상: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로 하고 있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문학창작과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만년초석으로, 생명선으로 하고있으며 수령형상문학이 우리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문학의 모든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하여 주체혁명위업에 힘 있게 이바지하고 있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문학의 주체적면모를 보여 주는 근본징표로 된다고 봅니다.

현승남: 옳습니다. 자주시대의 개척기에 처음으로 창조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 뿌리를 두고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는데 주체적면모를 확고히 갖춘 우리 문학의 뚜렷한 모습이 있는것입니다.

전자동무들이 이야기한것처럼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의 고전적명작들에서는 세기와 세기를 거듭하여 인류문학예술이 모색하던 근본문제를 최고의 사상예술적높이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창조하여 온 민족문화유산에 비할바없이 고귀한 혁명유산이고 20세기에 주체적문학예술로서의 자기 면모를 갖추게 한 경이적인 사변이었습니다.

김성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우리 교실》, 《축복의 노래》, 《나의 어머니》, 《조국의 꿈》, 《조선아 너를 빛내리》, 《패전장군의 말로》,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안아 오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한세기에 두분의 인민의 령도자를 모신 민족적대경사와 더불어 20세기에 두분의 위대한 수령들이 창조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진것은 우리 민족만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특전이고 조선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말 세월이 열백번 흐른대도 그 생명력과 가치에 있어서 영원불멸할 고전적명작들은 주체문학예술창조의 위대한 본보기이며 수천년 민

족문학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20세기의 특이한 만년채보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문학예술혁명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계승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문학은 20세기중반기에 울려 퍼진 문학예술혁명을 통해 세기에 빛나는 또 하나의 발전로정을 걸어 오지 않았습니까.

최길상: 돌이켜 보면 60년대중엽까지만 해도 우리 문학에는 의연히 고루하고 진부한 테두리안에서 맴돌던 종래의 낡은 틀이 요소요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으로 70년대의 대전성기를 펼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령도밑에 그 기간 우리 문학은 수령님식대로 자기 면모를 일신시켜 나갔고 전례 없는 작품풍년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형태에 옮긴 혁명소설, 혁명영화, 《피바다》식혁명가극, 《성황당》식혁명연극들이 수없이 태어나 혁명문학의 새 장이 펼쳐 졌습니다. 이것은 항일의 전통을 이어 받아 날로 찬란히 꽃 피난 우리 문학의 발전로정과 발전면모를 한눈에 굽어 볼수 있게 합니다.

김정: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 보느라면 우리 문학의 지난 20세기는 인류문예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새형의 수령형상문학을 개척하고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 온 자랑스런 세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다싶이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업은 20세기가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시대와 력사의 운명을 결정 짓는데서 차지하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예술적으로 깊이 해명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수령형상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으나 20세기의 3. 4분기가 저물도록 미해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력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놓치고 있던 점은 무엇이었던가, 주체문학의 기본방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빛나는 예지로 통찰하신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론을 우리 문학에 구현하시여 수령형상론을 독창적으로 밝혀 주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세심하고 천재적인 사상과 령도로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을 핵으로, 기본주류로 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기자: 20년대 조선의 밤하늘에 솟아 오른 첫 수령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해방후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서사시 **《백두산》**으로 세계를 진감

시켰고 혁명의 매 년대들마다 수많은 《조선의 별》을 낳지 않았습니까?

김병훈: 그렇습니다. 평화적건설시기로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작가들은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수령형상작품들을 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이 벌여 지고 있던 시대의 요구에 비해 너무나 수공업적이었습니다. 우리 수령형상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을 령도하신 때부터 수령형상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김정: 4. 15문학창작단의 창립은 우리 나라 수령형상문학건설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됩니다. 이때부터 수령형상문학은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사업으로 줄기차게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총서형식의 새로운 수령형상 대작들을 창작할데 대한 발기를 하시고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고충을 헤아려 그 형상방안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던 잊지 못할 령도의 나날들이 지금도 눈에 선히 안겨 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유년시기를 형상한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 《만경대》, 《동트는 압록강》, 총서계렬의 장편소설들인 《혁명의 려명》,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 《두만강지구》, 《대지는 푸르다》, 《근거지의 봄》, 《준엄한 전구》, 《은하수》, 《땀은 올랐다》, 《압록강》 등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속에 태어난 수령형상작품들입니다. 이렇게 《ㄷ. ㄷ》의 결성으로부터 길희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 카륜회의, 동강회의... 흥기하전투 등 20세기초엽 우리 수령님께서 헤쳐 오신 시련 많은 혁명의 년대들을 현실에서 보는것처럼 방불하게 대장편소설화폭에 펼침으로써 세계 그 어느 문학사도 알지 못하는 백두산장군의 형상을 20세기에 남겨 놓았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광복후편 《조선의 봄》, 《빛나는 아침》, 《50년여름》, 《조선의 힘》 등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창작됨으로써 우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문학은 더욱더 눈 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자: 그러니 총서 《불멸의 력사》는 20세기 우리 조선혁명이 걸어 온 력사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겠구만요. 장편소설 《아침해》를 창작한 작가동지도 여기 계시는데 총서 《불멸의 향도》의 창작은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이채롭게 하는데서 력사적전환을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 데...

김보행: 그렇습니다. 문학은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의 반영입니다. 20세기중엽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우리러 모신것은 우리 민족과 문학이 누리는 가장 큰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어느 민족도 누릴수 없는 세기의 영광을 담아 창작된 장편소설 《예지》, 《푸른 하늘》, 《동해천리》, 《력사의 대하》, 《평양은 선언한다》, 《전환》 등 총서 《불멸의 향도》는 20세기 수령형상문학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특기할 인류문예사적사변이고 귀중한 문학적재부입니다.

기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은 80년대에 들어와 더 활짝 꽃 피나 새로운 문학세계를 개척하여 왔습니다. 그 기간에 진행된 큰 형식의 100편창작전투과정에 작가들은 물론 우리의 소설문학도 자기의 주인공과 함께 얼마나 비약적발전의 길을 걸어 왔습니까.

김보행: 소설문학의 발전력사는 그 주인공의 성장과정과도 같습니다.

40년대 후반기부터 60년대에 피여 난 시대의 전형들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개벽》의 원철지, 《땅》의 박바위, 《호랑령감》, 《불 타는 섬》의 리대훈, 《석개울의 새봄》의 김창혁, 《개마고원》의 김경식, 《백일홍》의 현우혁, 《길동무들》의 오명숙 등 나라의 주인으로, 창조적로동의 주인으로, 대중적영웅주의의 체현자로, 계속 전진하는 혁신자, 인간교양자들의 모습이 그 시대와 함께 우리의 추억속에 생기발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전형들은 100편창작전투과정에 한씨, 리상철, 박대성, 현우림, 주용녀, 강대우, 신철민 등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선 주체의 인간전형으로 새롭게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설문학의 높아 진 키인 동시에 우리 작가들의 성장으로 되는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작가들이 100편창작전투과정에 《충성의 한길에서》(1~6부) 다부작 장편소설의 대서사시적화폭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아 노래한것이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문학에서 전성기를 펼쳤다고 봅니다.

김성조: 우리 시문학도 대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라 없던 탓에 붓을 꺾어야 했던 우리 작가들이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혁명의 필봉을 잡은 때로부터 언제나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만 달려 충성의 시가작품들을 써왔습니다.

민주건설시기와 생사를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혁명의 매 단계마다 전진의 북소리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어 왔습니다.

20세기 중반기에 울려 퍼진 시 《**김일성**장군찬가》, 《그이를 태양이라 노래함은》, 가사 《애국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가사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샘물터에서》, 시 《조선은 싸운다》, 《새들은 숲으로 간다》 등 한

편한편의 시는 그야말로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하여 왔습니다.

그에 이어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나의 조국》, 《어머니》, 《용서하시라》, 《오직 한마음》,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동지애의 노래》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정시, 서사시, 담시… 수천수만의 문학 《인공위성》들을 수없이 쏘아올렸습니다.

현승남: 우리 문학의 만발한 꽃밭속엔 동심의 문학인 아동문학도 아름다운 꽃송이로 곱게 곱게 피어 있습니다. 아동소설 《장군님을 맞는 날》, 《땅크놀음》, 동요 《보고 싶은 원수님》, 《잘 익은 복숭아를 할아버님께》, 동시 《원수님의 망원경》, 소설 《사랑의 품》, 《기관총》, 서사시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동요 《원수님의 초상화》, 동화 《떠돌아 다니던 물음표》, 《귀가 큰 토끼》, 우화 《말거미와 두꺼비》, 《다람쥐네 고간》, 《돼지와 왜놈순사》… 중편소설 《분단위원장》, 《초순이》, 《1학년생》, 《순천소녀》… 년대들마다 성과작들을 쏘아 가느라니 가슴속엔 이러한 꽃송이들을 안아 피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짙 차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복전에는 아동문학 역시 찬바람속에 피었다 지는 꽃이었습니. 광복후에도 《순수 동심》의 고루한 세계속에 잠겨 있었습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리신 나이에 벌써 수령형상작품들을 발표하시고 단편소설 《편지》를 비롯한 아동문학작품들을 보시고 작품의 내용과 시대의 전형으로서 아동주인공의 형상에서 나서는 미학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큰 형식의 100편작품전투에 우리 아동작가들을 불러 주시여 우리 나라에는 백수십여편의 아동작품들이 활짝 꽃피었습니다.

기자: 문학예술의 대전성기에 이른 우리 문학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완전한 도약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우리 주체문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1990년대후반기 수령영생문학이 새롭게 출현한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는지요?

최길상: 앞서 이야기한 20세기 수령형상문학에 보태어 말하고 싶은것은 수령영생문학의 시원이 열린것입니다.

수령의 영생위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생존시나 다름없이 충성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경도를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는 위업입니다.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 문학이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영원히 높이 우리러 모시도록 인류문예사에 전례 없는 수령영생문학의 시원을 열어 주셨습니다.

김정: 수령영생문학에 대하여 말할 때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을 먼저 꼽게 됩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민족의 대국상을 뼈저리게 체험한 수령의 작가들에 의해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창작된 장편소설 《영생》,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1월~7월까지의 혁명활동을 위대한 수령, 위대한 경도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눈물 겨운 생활세부를 통해 극적으로 방불하게 펼쳐 수령영생철학을 무게 있게 심어 준것으로써 수령영생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성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생구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종자로 창작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을 들수 있습니다.

현승남: 정말이지 수령영생주제는 형태별로 다양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와 작품집 《영원한 태양》, 아동문학작품집 《영원히 함께 계세요》,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1, 2) 등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김병훈: 그렇습니다. 수령영생주제작품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크나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학은 우리 인민을 수령의 귀중함을 몇백배로 깨달은 보다 세련된 인민으로, 시련을 이기고 강인한 인민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개척된 수령영생문학은 20세기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완벽하게 발전풍부화하였습니다.

기자: 문학과 시대는 정비례관계속에 있어 시대를 떠나 문학을 논할수 없습니다. 90년대후반기 우리 문학이 선군혁명시대를 폭 넓고 깊이 있게 반영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훈: 오늘의 시대는 선군정치시대인것만큼 선군혁명문학이 출현된것은 응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선군혁명시기에 태어난 우리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수 있는것은 지난 시기에 비해 시대의 명작들이 질량적으로 비할바없이 많은것입니다.

문학의 발전수준은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가 하는 산수학적개념으로 평가할수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하는것입니다.

20세기 90년대후반기 우리 문학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경도를 민감하게 반영한 시대의 명작, 다시말하여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를 그대로 구현한 혁명문학이 전례없이 왕성하게 창작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경도의 빛나는 로

정은 우리 주체문학의 명작풍년을 낳았습니다. 하여 20세기 마지막년대 6년기간에 700여편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김성조: 옳습니다. 특히 우리 시인들은 장군님의 선군령도로정을 심장에 새기고 그 로정을 따라 명작창작을 위한 피 끓는 사색과 탐구의 열정을 깡그리 바쳐 왔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새해 첫날에 눈보라를 헤치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면서사시 《만경대의 눈보라》가, 최전선길을 가시면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철령을 넘으시면 서정시 《철령》이, 강계를 찾으시면 시초 《우리는 강계사람이다》,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을 지도하시면 시초 《강원땅의 새 노래》가, 동해명승 칠보산을 찾으시면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청년영웅도로에 대해 말씀하시면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 등 장군님께서 가시는곳마다에서 심장의 웨침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김보행: 이 시기 소설문학의 특징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벌린 큰 형식의 100편창작전투를 앞당겨 끝내었으며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과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을 모두 성과작으로 내놓은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발사, 세계마라손녀왕을 비롯한 우리 시대의 영웅들의 투쟁정신,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 대흥단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우리 현실에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세계가 펼쳐 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설가들은 벽찬 현실에 뛰어들어 장편소설 《백금산》, 《열망》, 《수평선》, ... 단편소설 《푸른 수첩》, 《푸른 사랑》, 《꽃강냉이》, 《지워 지지 않는 글》을 창조하여 수많은 시대의 전형들을 문학사에 남기었습니다.

기자: 시대의 명작들은 시, 소설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태들에서 기성관례와 기존개념을 뛰어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한에서도 찾아 볼수 있지 않습니다.

최길상: 선군시대 명작들은 모두 그 형태와 양상에서 종전의 틀을 마스고 대담하고 새롭게, 단수 있게 형상화폭을 창조하였습니다. 특히 시문학을 보아도 우리 식의 새로운 서사시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은 서사시들을 비롯하여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며》..., 추대시, 축하시, 풍경시, 산수시초, 기행련시 등 새로운 양상의 시작품들이 나온것을 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송년시와 산수시의 발전이 더 이채롭습니다. 송년시는 지난 시기에 창작되던 한사람의 한해에 대한 추억의 감정에서 뛰어 넘어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한해에 대한 전인민적감정의 분출로 창작된 시로서 한단계 더 높이 비약했다고 봅니다.

현승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미하게 창작되

여 오거나 전혀 창작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형태들이 수많이 탐구개척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동문학에서만도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발표된 이후 유년기문학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창작되고 지능동화, 속담동화, 우화소설 등 왕성하게 창작되었습니다.

김정: 혁명전설, 혁명일화, 짧은 형식의 단편소설들, 장편기행문, 과학환상소설, 실화소설, 실화문학, 풍자소설, 추리소설, 중편실화 등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기동성 있게 발전하여 문학이 진정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여 우리 문학작품들은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적관점을 주었으며 20세기 마지막년대를 풍만한 열매로 장식하게 하였습니다.

기자: 모든 분야에서 기적 같은 성과들이 일어났는데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하는 과정에 작가들의 창작기풍에서도 그전보다 새롭고 전투적인 양상이 일어났겠군요.

김병훈: 그렇지요.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하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것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가들의 마음속엔 혁명의 난국을 한몸으로 헤쳐 가시는 장군님을 신념의 기동으로 믿고 혁명문학으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맹세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었습니다. 하기에 작가들은 비상한 각오와 맹세, 실천적의지로 일시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혁명로정을 직접 밟으며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을 자기들의 작품에 담아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했습니다.

김성조: 남성시인들은 물론 녀성시인들의 창작태도에서도 전투적인 기풍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아이들을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맡기고 장군님의 령도자욕을 따라 철령으로, 대흥단으로, 강원도로 메주땀땀 다니며 《대흥단삼천리》, 《철령》, 《강원땅의 새 노래》,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등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가작품들을 련속 발표하였습니다.

김보행: 어느 소설가는 통강냉이를 배낭에 넣어가지고 끼니를 에우면서 1년나마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뜻 깊은 고장들을 모두 편답하며 장편기행문을 썼고 자전거를 타고 1만여리의 강행군을 하면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전설들을 수집정리한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책제철소의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로동계급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중편실화를 훌륭히 써냈습니다.

최길상: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것입니다. 참으로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하는 길에서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운명을 보호해 주고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 낼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간직하고 그야말로 장군님

과 혼연일체가 되어 격동적인 현실속에서 창작적 양양을 일으켰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선군정치 시대를 반영한 우리 주체문학의 혁신적면모와 작가들의 헌신적모습이 뚜렷이 안겨 옵니다.

김병훈: 주체문학이 자기궤도에서 순간의 탈선도 없이 자랑찬 발전의 역사를 걸어 왔고 20세기령마루에 이처럼 하나의 큰 분수령을 세우고 작가의 위력을 세기에 떨칠수 있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주체문학의 향도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령도와 뜨거운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남기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문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습니다.

김정: 우리 문학이 민족문학발전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양양기, 새로운 고조기를 맞이한것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가 낳은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인 **《영화예술론》**과 **《주체문학론》**을 비롯한 여러가지로작들과 강령적인 가르치심들을 통하여 주체문학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시였으며 문학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통하여 혁명의 매 세대들마다 주체문학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비상이 높이도록 하시였습니다.

현승남: 돌이켜 보면 정말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문에로선의 적극적인 관철자, 철저한 옹호자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 주시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해 나가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이끌어 주신 그 신임과 배려가

바로 우리 문학이 일대전성기를 이룩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습니다.

김성조: 더우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가장 어려운 때에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시여 우리 시대 명작의 본질과 명작창작의 비결을 밝혀 주시고 작가들을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난국을 단신으로 헤쳐 가시는 그 귀중한 시간에도 때로는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때로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에서, 눈 덮인 현지도의 길에서 우리 작가들이 쓴 수백편의 작품들을 빠짐없이 보아 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 은정어린 사랑이 있어 우리는 20세기 마지막년대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투철히 구현한 명작풍년으로 가꿀수 있었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것은 세계자주화 위업,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인류가 누린 가장 큰 행운이며 우리 주체문학이 누리는 최대의 특전입니다.

김병훈: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시하신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인류가 낳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우리는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 가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 가슴깊이 간직하고 21세기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학세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전례 없는 창작적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입니다.

기자: 우리 당의 작가, 장군님의 작가들이 20세기에 추억에 남는 시대의 명작들로 주체문학발전을 힘 있게 떠밀어 온것처럼 21세기에 또 어떠한 작품들로 또다시 세기를 빛내이겠는지 크게 기대됩니다. 우리모두 21세기 우리 주체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합시다!

본사기자 신경애

가사

군대성격 나는 좋아

허균성

처녀반장 작업지시 받을 때에도
그 총각 차렷자세 멋이 있었지
알았습니다
아이참 우스워 처녀들 귀속말
아마도 제대될줄 모르는가봐
랄라라 처녀들 속삭였네
아 군대성격

아무리 힘든 일 말기여 줘도
씩씩한 그 대답 패기 있었지
알았습니다
아이참 병사의 그 동작 그 대답

아마도 저도 몰래 버릇됐나봐
랄라라 우리도 닮아 갔네
아 군대성격

고난도 웃으며 헤쳐 나가는
그 성격 맘에 들어 몰래 외웠지
알았습니다

아이참 그 동무와 함께라면
세상에 못할 일 없을거야
랄라라 그 동무 나는 좋아
아 군대성격

길에 대한 생각

공천영

나는 취재의 길에 오를 때마다 한해전이 다르고 몇달전이 또 다르게 좋아진 길을 걸곤 한다.

이 나라 어디에나 그렇지만 강계-시중, 강계-랑림, 만포-위원-초산, ...내가 최근에 다녀온 자강땅 가는곳마다에 놀랄만치 길이 넓어지고 좋아졌다.

며칠전에도 만포시의 고산리와 장자강발전소를 다녀오면서 한해전에 가본 그 길이 아닌 변모된 길을 놓고 가슴속에 감탄부호를 새기었다.

굽이굽이 산기슭을 돌며 압록강의 흐름을 따라 끝없이 뻗어 간 조국땅 북변의 도로는 천필을 퍼놓은듯 넓고 반듯하고 알뜰하고 정갈했다.

올려다 보면 배를 내밀고 앉은 경사 급한 산중턱에서 벼랑이 떨어저 내릴것 같고 내려다 보면 장강의 푸른 물이 신선한 아침안개를 입김처럼 퍼워올리며 넘실넘실 흐르는 비탈길인데 길은 자동차가 두세대씩 어길수 있게 굽으로 넓어지고 트락처럼 반듯한 길바닥엔 황갈색의 석비레를 깔게 깔았다.

길을 넓히느라 산자락을 깎은 구간에는 성벽처럼 견고하고 일매지게 옹벽을 쌓았고 강쪽으로는 같은 간격, 같은 높이로 한모양의 보호목을 보기 좋게 세워 놓았다.

《정말 길이 좋아졌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의 향토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조향륜을 가볍게 잡고 차를 쾌속으로 몰아 가는 몸이 체소한 중년의 운전사가 슬며시 웃으며 말을 받는다.

《길에 대하여 작품을 하나 쓰십시오. 향토애보다 더 큰것에 대하여 써야 할것입니다.》

향토애보다 더 큰것...

그 순간 운전사가 말하는 《더 큰것》에로 생각의 아지가 뻗는데 굽이를 도는 앞에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

간밤에 내린 무정한 소낙비는 도로에 곱게 퍼놓은 석비레를 검은 흙물로 얼룩져 놓았고 한군데는 도랑처럼 파놓기까지 했다. 30대쯤 보이는 두 젊은이가 한창 우뚝하게 패인 곳을 메우노라 삽질을 부리나케 하다가 차가 나타나자 길옆에 황황히 나선다.

낮 익은 동무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한해전에 만난적이 있는 고산협동농장 축산반원들이었다.

《운전사동무, 난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잘 타고 왔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리었다. 얼굴이 갱뽕한 운전사

는 정다운 목례로 답례를 표시하며 차를 몰아 지나갔다.

《아니, 동무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 길을 정리합니까.》

나는 그들이 혹시 도로관리원으로 직무를 바꾸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며 물었다.

그러자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중키의 한 동무가 삽자루를 세워 잡고 대답한다.

《양방목을 나왔습니다. 양떼를 저기 놔주고 길을 돌아 보냈습니다.》

희색웃을 입은 다른 한 동무가 옆동무의 대답을 보충한다.

《장군님 오실 길이여서 우린 자주 이 길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나의 가슴에 뜨거운것이 차오른다.

장군님 오실 길!

나는 그들과 헤어져 농장관리위원회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상념에 잠겼다.

인간과 함께 생겨나 태고적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곳을 이어 놓으며 천만갈래로 뻗어 간 길, 파란만장의 시대사에 어린 길의 력사는 인류 력사의 축도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보통길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어려 있는 영광의 길, 력사의 길이다.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길에 불멸의 자욱을 찍으시며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오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구배 심한 산기슭 비탈길을 걸으시고 높고 험한 연상고개, 남상고개를 넘으시며 전후에 장자강발전소와 고산리에만도 여러 차례의 현지지도를 하시었다.

이 땅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넘지 않으신 고개, 밟지 않으신 길이 어데 있으랴.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시여 항일의 20성상 헤쳐 오신 백두의 천고밀림과 만주광야의 숫눈길...

전화의 나날 싸우는 전사들이 보고 싶다며 칠칠야밤에 자동차로 건드신 립진강철교...

80고령의 우리 수령님 생의 마지막길에 걸으시던 온천군 금당리의 간석지 진펄길...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아버지수령님 한평생 걸으신 그 길은 전인미답의 초행길이였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험한 길이었다.

어버이수령님 80평생 걸으신 《이민위천》의 그 길을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걸으신다. 안개도 쉬여서야 오른다는 철령의 굽이 많은 험한 고개길이며 얼음버께가 뒤덮인 해안포진지의 돌계단길, 1211고지의 경사 급한 비탈길과 판문점 최전방길에 이어 대소한의 눈보라 휘몰아치는 장자산기슭의 얼음길과 강원땅의 비 내리는 새벽길, 대흥단과 한드레벌의 포전길, 논둑길...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산리에만도 한해사이에 두차례나 찾아 주시었다.

주체88(1999)년 6월 14일 오전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숙소에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포-장자강발전소사이의 도로상태가 좋는데 대하여 거듭 치하해 주시었다.

해빛 같은 사랑과 믿음이 어린 례사로운 길이 아닌 이 길, 위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주 오시는 길이었어서 인민들은 이 길에 진정을 바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 자옥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의 자옥이 덧쌓이는 길, 이 길에 인민들은 좋은 길을 열어 드리지 못한 지난날의 자책을 안고 신념과 량심을 바쳐 간다.

그렇다. 길은 그래서 넓어 지고 그래서 좋아진다. 인류가 생의 첫 자옥을 떼던 아득한 태고적부터 길은 제나름의 생활상 요구를 위해 온 행성을 억만갈래로 뒤덮었으나 내 나라의 길처럼 수령과 인민의 사랑과 충정이 하나로 융합되어 뜨겁게 굽이치는 길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정녕 그렇다. 위대한 태양이 비치여 나날이 넓어 지고 좋아 지는 길, 하여 이 길우에 성스러운 강계정신이 꽃 피여 나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북소리 높이 울리어 간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우리 인민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걷는 이 길, 21세기의 진군로정을 향하여 뻗은 길! 불멸의 자옥이 어리고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가 비낀 이 길!

이 길에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만한 일을 해놓기전에는 선뜻 나서지 말라.

성스러운 이 길우에 자기의 불 타는 정열과 깨끗한 량심을 바치자.

나는 깊어 지는 생각을 안고 해빛 찬란히 비쳐오는 넓은 길을 걷는다.

림성골과 마주 선 칠성산기슭의 파란 풀판에는 흰 구름인양 하얀 양떼가 한가로이 흐른다. 이 길에 이어 진 기쁨이 흐른다. 행복이 흐른다.

6시

리성혁

6시에 만나자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만나지 못했나
총각은 무얼 했나 처녀는 어디 있었나

실패와 난판을 뚫고 넘으며
탐구를 거듭해 온 합금강연구
성공의 절정을 맞이했다고
총각은 6시에 쇠물을 끓였네

처녀의 6시도 바빴더라네
갑자기 실려 온 환자를 위해
수혈실에 남 먼저 달려 간 처녀의사
다름아닌 총각의 애인이었네

시간은 빨리도 흘러 갔다네
6시가 지난지도 벌써 몇시간
총각의 열정인듯 용광로는 더욱더 달아 오르고
처녀의 정성으로 환자의 숨결도 고르로와 지고

드디어 용해장엔 환성이 터졌네

성공의 기쁨으로 서로 얼싸 안으며...
그때야 총각은 깨달았다네
그담엔 강변으로 달리였다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처녀도 그제야 깨달았다오
총각이 기다릴 강변을 향해
부끄럼도 잊고서 밤길을 달렸네

그들이 강변에서 만난 시간은
분침이 시침을 감춰 놓은 12시
서로의 사연을 묻고 전하며
총각은 처녀에게 속삭이었네
-지금이 몇시요?
처녀는 대답했네
6시예요

시침과 분침이 한촉우에 돌듯이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네
하기에 그들은 6시에 만났네
조국에 바친 사랑의 6시에

작가들의 새 모습

김철

어느덧 20세기도 다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 세기 첫 아침이 밝아 왔다.

한걸음 한걸음 두 세기가 이어 지는 령마루에 오르러니 래일의 전망과 지난날의 추억이 함께 겹쳐 진다.

회고와 전망... 아무래도 추억의 한토막부터 적어야 할것 같다.

갱생

지금으로부터 22년전 주체68(1979)년 12월 중순이었다. 그때 나는 함경남도 단천지구 광업련합기업소(당시) 허천청년광산의 노동자였는데 50년대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앓기 시작한 위장병이 수십년을 끝던 끝에 위와 12지장을 절제수술하지 않으면 아니될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래서 수술대위에 몸을 던졌 댔는데 수술이 실통치 않게 되어 후유증이 심한데다가 간도 몹시 상한 상태고 다른 장기들도 많이 병든것이 확진되어 퇴원해서도 집에 누워 있었다. 심장 하나만이 용케도 정상으로 뛰고 있었다. 심장이 다행하게도...

섣달의 강추위, 방안은 썰렁했다. 털모자를 쓴 채로 누운 머리맡에는 전야근교대 운팡을 나가는 안해가 시간을 맞춰 조금씩 먹으라면서 포단으로 퐁퐁 감싸둔 밥, 반찬 그리고 약봉지... 점차 어두워 지는 방에서는 실내고성기만이 그즈음 많이 부르던 노래를 울리고 있었다.

산악도 격랑도 넘고 헤치며
우리는 머나먼 길 걸어 왔어라
수령님 펼치신 영광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 가리라

광산마을 큰길에서도 북소리, 나팔소리, 학생가창대의 쟁쟁한 노래소리, 광산기동선전대의 힘찬 고동구호... 만수대에술단 공훈중창조는 한층 더 기세를 올린다.

위-대-한 당중앙 높이-받들고
일편단심 충성의 길 가고 가리라

은 나라 전체 인민이 당 제6차대회가 열리게 되는 영광의 80년대를 향하여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었다. 사회주의대전설!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속도전...

오로지 나만이 버럭이었다. ...불을 켜고 만년필과 종이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몸을 일으키던 순간 옆구리에 놓였던 물병 하나가 굴러 떨어 지

면서

(...아, 다행히도 깨여 지진 않았구나.) 그래서 그걸 도루 이불밑에 넣고 다시 누웠다.

슬펐다, 분했다. 외롭기 그지없었다. 이런 때 누구든 찾아 와서 욕이라도 꼭 해줬으면 싶었다.

아마 그때 나는 거의나 혼수상태였던것 같다.

《아-니, 불도 켜지 않구!》

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가 내곁에 선것 같았다. 전등불이 켜 지자 동그스름한 얼굴이 쳐다보였다. 신문이랑 소책자랑 들고 우리 집에 들리곤 하던 광산의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관리원처녀였다. 아아, 사람이 있긴 있었구나. 나를 잊지 않은 사람이...

《아저씨! 광산당위원회 비서동지가 불려요. 연구실에 나와 달라구 해요. 갈수 있겠나요?》

《가잖구! 당에서 부르는데두 못 가겠나!》

무작정 일어 났다. 처녀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골목길, 언덕길을 내려 갔다. 연구실 실장동무가 불이 환한 현관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째선지 심중한 표정, 서두르는 거동, 내 옷차림을 피뚱 살피고 바로 잡아 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이 모셔 진 방으로 앞서 걸었다. 나도 저으기 긴장되고 별스러워 졌다. 뭔가 심상치 않았

다.
나를 기다린 사람은 광산당위원회 비서만이 아니었다. 지배인도 있고 기사장도 있고 당위원회의 일꾼도 있었다. 그들가운데 낯 선 사람 하나가 내가 방에 들어 서자 한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주신 지시를 동무에게도 전달하려 합니다.》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너무도 뜻밖이었다.

내가 뭐길래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를 알려 주려고 2천리길을 왔단 말인가. 하지만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내려 온 그 일꾼은 정중한 몸가짐을 유지하면서 흰 종이에 타자 친 글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남도 단천지구 광업련합기업소 허천청년광산 노동자 김철동무의 서정시 <만수대>, <금요로동>, <다시오리>를 일부 표현들을 수정하여 속히 출판물에 발표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동무의 작품을 발

표하도록 하라는 은정 깊은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

비칠! 현훈증…

누군가 급히 다가 와 나를 부축한다.

당중앙위원회에서 파견된 일군의 목소리가 아득히 먼 공간에서 들리는것 같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신 동무의 시입니다. 소리내여 읽으시오. 여기 우리들도 다 듣도록 읊어 보시오.》

그가 내미는, 타자 치지도 않은, 내가 쓴 글씨 그대로의 시원고들을 받아 들었다.

아아, 이것이 그이께서 친히 보아 주신 나의 시란 말인가. 이것을 그이께서 친히 보아 주셨단 말인가!

읽기 시작하였다.

만 수 대

밟으신것은 백두의 용암대지
손 들어 가리키심은 우주의 한끝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승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에
위대한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

여기서 해가 뜨고 달이 쏙고 별이 돌아라
여기서 주체시대의 장엄한 음악이
광대무변한 누리를 진감하여라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서 총화되고
혁명가들의 선서가 예서 다져 지나니
…

침이 바짝 마른다. 목이 짝 메여 온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팬찮아, 머리속에 자자구구 외워 두었던 글이어서 눈 감고도 읊을수 있는 시였다. 그런데도 흐려 지는 눈동자를 원고에서 한치도 들어 올릴수 없고 판데로 돌릴수도 없다. 솟구치는 눈물때문이었다. 못 잊을 그날 만수대 언덕에서 흘린 눈물, 어버이수령님께서 씻어 주시던 눈물, 그 역수 같던 눈물이 지금 나의 두눈에서 팔팔 흘러 내리는것이다.

공화국창건 30돐이 되던 해 여름, 나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수도 평양에 올라 갔었다.

전국가극축전에 내놓을 함경남도예술단의 가극 완성을 위하여 도당 예술과에서 허천천년광산의 로동자인 나를 잠시 도예술단 창조과에 불러 주었고 예술단이 평양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광산당위원회가 오히려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예술단 배우들의 뒤줄에 서서 나도 평양역두에 내렸던것이다.

오래전부터 퍼그나 오고 싶던 평양, 허나 몇몇하지 못해서 올념을 못낸 평양, 그래서 올수 있게 된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럽치없이 따라 온 평양이었고 참으로 와보기를 잘한 평양이었다.

도착 첫날 도예술단은 만수대언덕에 모셔 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충성의 결의부터 다 지였다. 그때 나는 맨 뒤줄에 섰다가 저도 딱히 알지 못할 충동에 떠밀려 앞으로 앞으로 걸어 나가 위대한 수령님 서 계시는 대돌밑에 머리를 숙이였다. 력사의 만고풍상 다 겪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외투자락을 스쳐 내리는 비물이 (그날 비가 내렸다) 마치도 성인께서 뿌려 주시는 성수마냥 내 뺨의 눈물을 씻어 주었다.

…

행복하여라

이 언덕에 가슴을 맞대이고

더럽혀 지지 않은 량심을 헤쳐 놓는 사람은…

그 또한 영광이여라

곡절 많은 한생을 여기서 매듭 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진리를 안고 가는 전사는…

쳐다보며 오를 때엔

모래알처럼 느껴 지던 자신의 존재도

돌아서 내릴 때면

산악보다 거창함을 깨닫게 하여 주는

오, 만수대! 만수대는

인간만세의 무궁한 명마루로

찬연히 빛나도다

평양에서는 어느 하루밤도 잠을 잘수 없었다.

…자정도 넘어 광부는 려관방을 나서고야 말았다. 잠들수 없어, 수도에 와서 그저 잔다는것이 어떤지 송구하고 죄스러워서.

거리는 서늘하고 조용하였다. 길에는 빠스도 전차도 드물어 졌는데 저녁교대를 마치고 갱구길에서 들군 하던 심야방송음악이 울리고 있었다.

(방송원동무가 잠이 모자라겠군…) 할수만 있다면 그를 찾아 가 인사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기자들은 글을 쓰느라, 인쇄공들은 신문을 찍느라…)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이 저렇게 많은것은 전기를 아낄줄 몰라서가 아니리라. 일군들과 학자들, 창작가들과 연구사들이 새 일감들을 쌓아 놓고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있을테니. 그 어느 창가에든 다가가고 싶었다. 그 어느 문이든 두드리고 싶었다. 나라의 맏아들인 로동계급의 권리로 그들의 손에서 철필과 계산기를 앗아 내고 등을 떠밀어 침실로들 보내고 싶었다.

허나, 광부는 그럴수가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가를 그가 어찌 물랐으랴. 어찌 물랐으랴, 혁명의 참모부가 그어 준 가장 예리한 화살표끝에 초소를 둔 그가… 이 밤도 온 나라 전투장들에서 충성의 보고들을 안고 사람들이 오리라, 렬차들은 궤도우에 불꽃을 날리고 교환대들은 설새없이 가입자를 부르리라. 혁

명의 참모부-우리 당중앙의 엄숙한 지령이 전파를 타고 날아가는 하늘, 땅, 바다우, 거기 보이지 않는 초소에도 사람들은 서 있고 대양의 창파를 헤가르는 갑판에도 평양의 목소리는 울려 가려니 오오, 잠을 잊은 평양! 잠 모르는 평양! 잠자서는 아니되는 우리의 평양! 세계의 평양!

순간의 사색으로 시대를 떠밀고 한번의 결심으로 역사를 운명 짓는 당중앙위원회 정문앞에 이르러 4㎡의 굴진궤도를 맡은 이름 없는 이 전사는 멈춰 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잠시라도 쉬이지 않으렵니까. 그 창문을 여시고 내려다 보시지 않으렵니까. 허천의 광부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금굴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광석차를 타고 단천까지 갔던 광부.

지도자동지께서 검덕, 룡양 동무들을 만나보시고서는 함흥쪽으로 가시었다는것을 알고 금굴까지 그냥 달려 가서 지도자동지 타시였던 인차, 지도자동지 쓰시였던 안전모, 지도자동지 손에 드시고 비쳐 보시던 그 간데라를 보고 지도자동지를 만나뵈은것만 같았던 전사입니다...

나는 명예위병과도 같이 가장 높고 가장 밝은 하나의 창문을 경건히 우러러 서 있군 하였다. 그 창문에서 아침노을이 불 타오를 때까지... 그 리도 보고 싶던 승용차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어느 하루는 금요로동에도 참가하였다. 그날의 느낌을 그대로 적은 시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아 주신것이다. 그 시를 지금 또 내가 읊고 있는것이다.

...

그렇소 어디로 가든
일감을 찾는것이 응당하지만
나는 참말 기쁘오
평양 와서 흠뻑 땀을 흘리는것이

내 지금 넓히고 있는 이 길로
우리 수령님!
더없이 기쁘시여
만족하신 웃음으로 지나신다면

내 지금 심고 있는 이 나무 한그루가
현지도의 먼길에서 돌아 오실
그이의 겹쌍이는 로고를
서늘한 그늘로 덮어 드릴수 있다면

나는 적어 넣겠소
몇줄 아니되는 나의 자서전에
동지들과 함께 보낸 이 하루 로동일을
큰 글자로 뚜렷이 밝혀 두겠소

... 작가들, 옛 친구들도 만나보았었다. 자기 렬등감, 수치감때문에 망설이다 바재다 그래도 어

쩌지 못할 끝핍에 항복하고.

종렬이, 4.15문학창작단 작가 리종렬은 서평양려관방을 살살이 훑으며 나를 찾아 내고선 거의 5분동안이나 뻔히 쳐다보기만 했다. 1052고지의 옛 상등병, 온 한해겨울 한장 모포밑에서 서로의 체온을 보태준 작가학원 첫기 나의 동창생. 예나 다름없는 발은 다리, 다부진 상체, 쌍까풀진 장난꾸러기 같은 반짝이는 눈, 하지만 검은 물감을 들인 머리카락밑에서 집요하게 자라오르는 선명한 흰빛은 감추지를 못했다. 그렇다, 17년만에 우린 서로 판이한 처지에서 만나게 된것이 아닌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에게도 고민이라는 게 있었니, 아픈데라도 있니?》하자 그의 입에서 총알 같은것이 뿜어 나왔다.

《야 이자식아, <불멸의 력사>를 쓰는 이 형님이 홍타령이나 부르며 사는줄 아니?! 그보다도 네가 왜 살아서 여기까지 게바라왔나 그것부터 밝혀라. 너편네 궁덩이에 붙어 있던가, 그 미인의 얼굴이나 쳐다보며 살게지.》

역설적인 유모어, 지독스런 화풀이, 내 피를 얼렸다 불 태웠다 하는 아, 이 못된 새끼, 이 종간 나새끼... 우리는 오가는 배우들의 눈을 피하여 복도구석에 들어 가 한참이나 울었다.

《이제 다시 올라 오게 되면 머리가름이랑 바르고 오너라.》 하고는 터벌터벌 고개를 푹 떨구고 한번 돌아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랬더니 내가 평양 떠나는 날엔 수도의 경공업품매대를 여러 개 훑으며 마련한 옷가지며 내의류들을 부인에게 들러 보냈었지.

숨은 영웅, 통일애국 시인 최승철의 집주소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저 자강도 랑림땅에 갔을 때도 허천땅에 옮겼을 때도 제법 형님들 차리며 (그는 나보다 몇달 우였다.)억지스런 우스개소리를 편지마다 가득 채워 보내주곤 했었지. 내가 경상동 작가아파트 그의 집을 찾아 갔을 때 그는 어디론가 자기 창작기지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내 발과 자기 발이 어찌면 이리 쌍둥이발 같은가 하면서 신으려던 자기 썬다루를 내 발에 억지로 신겨 주었지.

《우리 교향악단의 제1바이올린수가 멀리 있으니 이 저음악기는 늘 음정이 반음씩 떨어져, 이 썬다루 꿰지기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역전부근 십자로 건늬길을 구부정히 씨엿씨엿 건너 가던 꺾두룩한 로인. 곡산에서 지고 왔다는 망돌이 올방자 틀고앉은 방에서 우리는 한그릇 점심밥을 나눠 먹으며 목이 짹 메었지. 조기천 다음번의 나의 문학선배, 수령님께서 잊지 않고 시고 찾고 또 찾아 내신 애국투사 김상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대하신 믿음을 두고 떠엽떠엿 몹시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동무는 그분만 믿으라구. 나는 황해도에 내려갈 때 지금의 동무만한 나이였어. 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동무야 아직 젊지 않았나.》

그가 권고해서 그랬던지 나는 작가동맹 평양시 창작실에도 들리고 중앙위원회 문지방도 넘었다.

△ 평양시 창작실에서

최영화:(문예총 제1부위원장)-《야! 우리 갈매기! 날개 꺾인 바다새! 일 없어, 다시 돌아 난다구, 바다가 있잖아, 응. 사랑의 큰 바다가!》(눈곱을 닦았다).

리맥:(작가동맹 시담당 부위원장)《철이었지. 지금은 선철인가. 녹슬지 말아야지. 더 시퍼런 강철이 되라구. 핫하하.》(지어 내는 미소)

박세영선생: 70을 넘은 선생까지 창작실에 나와있는데는 아연하였다. 의자우에 올방자 틀고 오뎅 앉아 있다가 《아니 이거 철동무 아냐?! 그새 어디 갔다 왔지?》(아니 이 선생 건망증이 이 정도 됐나?)

《광산에 가 있습니다.》

《현실체험? 해야지! 자 이거 맛 보라구.》하며 책상서랍에서 알사탕을 꺼내준다.

《내가 배워 준 단마르크체조랑 하겠지.》

《네, 네, 합니다.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체조도 합니다.》

《그-래?! 그거 괜찮아! 단련을 해야 돼. 풍보는 오래 못 살아》(아, 여전하구나!)

△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시분과위원장 박호범: 희여 진 머리, 이발은 다 빠지고, 나하구 동갑 아니면 한해 우었는데. 작가학원을 졸업하고 내가 일하는 신문사 부서에 왔드랬지. 소박하면서도 완강하고 대바르면서도 속이 깊은 동무. 모두들 열을 올리며 나를 비판할적에 그는 왜 한마디도 없었는지.

《내가 죄가 많았소. 잘 돕지 못했지. 지금도 그렇구. 그러나 누굴 원망치는 마오. 어디까지나 동무자신이 파헤쳐야 할 운명이니까.》

그리고도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강효순선생을 만나고 가오. 지금은 행정담당 부위원장이요. 동무를 기다릴게요. 왔다는걸 알고 있으니까.》

강효순, 그를 만나볼 생각은 별로 없었다. 점잖고 조용한 교원출신 아동문학작가였고 나때문에 머리를 앓다 못해 종당에는 내게 가장 엄한 벌을 준 당일군이 아니었던가.

리성은 그에게로 나를 떠밀고 감정은 나를 바치게 하였다. 하지만 여기 이 층계에서 벗어선다면, 도루 내려 간다면 나는 얼마나 웅졸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놈이 되고 말까. 그에게서 또다시 그때와 같은 비판을 받는대도 무슨 대수랴. 그는 지금도 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것ियो. 나 역시 오로지 당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아닌가.

비판을 주면 비판을 받고 매를 안긴대도 헛소리는 치지 말자. 달게 매를 맞자. 이렇게 마음 다지며 그의 방에 들어 갔다.

그는 놀라와 하지 않았다. 웃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다. 다만 그 눈에, 도수 높은 안경으로 가려진 눈에, 흔히 찌르듯이 내다보던 그 눈동자에 번쩍이는 물기를 내비쳤을뿐...

《어쩌면 그리도 모질었소. 편지 한장 보내오지 않구...나를 무던히도 원망했던게지. 내가 한 당원작가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지켜 주지 못했으니까.》

그리고는 한동안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지금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를 따돌이 돌보아 주신다오. 작가들도 일군들도 그전과는 많이 달라졌소. 그 모습이 변했소. 새로와 졌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믿고 책임지는 깨끗하고 고상한 그야말로 공산주의적인 집단으로 갱신하고 있소. 동무도 그동안 많이 배우고 단련하고 훌륭해 진것 같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스럽기만 하오. 서론도 못된 나이에 떠나갔던 동무를 50 가까운 나이에 이른 오늘 만나면서도 선뜻 손을 잡지도 끌어 안지도 못하는 내자신이 되려 원망스럽소.》

다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오늘 동무가 왔다 갔다는것을 당에 보고하겠소. 작가동맹은 당의 세심한 지도를 받고 있소.》

굳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웃으며 헤어졌다.

평양바람이 참으로 맑고 시원하였다! 나는 열흘동안의 평양체류기간에 위대한 주체시대, 로동당시대를 더욱 뜨겁게 체감하였고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안긴 작가들의 대오를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으며 그 대오에서 아직도 멀리 떨어 져 있는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더 톡톡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쁨을 안고 다시 오리라 영광을 안고 다시 오리라, 맹세 다지며 평양-금골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것이다. 그 열차에서 썼던 시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읽고 있는것이다...

영광을 안고 다시 오리

기쁨을 안고 다시 오리

...

다시 오지 못할진댄 떠나지도 못할

아, 평양! 어버이 계신 품아!

급기야 내 몸은 무너져 내렸다. 그 조각조각을 크낙한 품이 부둥켜 안아 주었다.

...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 저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 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 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

후날 당에 드린 송가 《어머니》에 들어 가 박힌 이 시줄들은 그때 내 심혼에 눈 뜬것이 아니었던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9일 또다시 나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 주시었다.

그 동무는 오래동안 당밖에서 생활하였으나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면서도 높은 창작적열정으로 끊임없는 문필활동을 벌려 좋은 시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비록 지난날에는 엄중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무처럼 오직 수령님과 당만 믿고 따르겠다는 신념을 안고 충실하게 일한다면 우리 당은 그를 다시 대오에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 동무를 정당원으로 복당시키고 지난 기간의 당생활변한도 회복시켜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오오, 추억속에 회고속에 되살아 일어 서는 80년대여, 90년대여! 주체의 문학대오. 그 마지막서열에서나마 발을 구르며 떠라 온 영광스러운 행군로여, 나의 20세기여!

영원한 동행자들

70년대초부터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적지 않은 장편소설, 중편소설, 서사시들과 허다한 전투적 작품들의 마감에는 《우산장에서》라는 다섯 글자가 씌여 진것을 보게 된다.

이제 와서는 온 나라의 독자들이 그 다섯 글자가 뜻하는바를 알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도 그것을 두고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우산장, 우리 작가들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지도자이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마련해 주신 우리 식의 위력한 창작기지 우산장!

조국광복전 일제통치시기에는 남포부근 부유한 사람들의 피서지-휴양장이었지만 조국광복후부터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로동성 휴양소로 전환시켜 주시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혁명, 극혁명, 연극혁명을 이끄심과 더불어 여기서 극작가, 영화문학작가들이 그이의 지도를 받으며 일했고 그후에는 4.15문학창작단 작가들 주체 61(1972)년부터는 평양시 작가들을 비롯한 전국의 장중편소설가들과 중요주제작품창작가들이 와서 침식을 하면서 수다한 명작을 써냈다.

우리 작가들치고 우산장을 들락날락하지 않은 작가가 누구랴. 《우산장에 간다》, 《우산장에서 돌아 오지 않았다》, 《우산장 소식 좀 말하오》, 《에익 우산장에 가야지, 거길 가야 일을 제킨다니까》 이런 말은 우리 작가들의 일상용어로 되었다.

먼 옛적부터 글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리상적인 작업장을 가지기를 원했다. 귀족들, 부자들, 량반출신 문사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다. 근대에 와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나라 진보적작가들이 어떤데서 글을 썼는가, 민촌이 죽은 아이를 곁에 눕힌 세방에서 소설을 써야 했고 최서해가 아궁이 재속에서 굴껍질을 뒤져내 몰래 씹는 임신한 젊은 안해를 보면서 소설을 써야 하지 않았던가.

조국광복후에조차 거의 모든 작가들이 부모처자가 함께 생활하는 단간방이나 기껏해서 마루방에서, 사무실에서, 남의 눈치 보면서 정휴양소, 려관방에서 웅색하게 일하지 않았던가. 내가 주체89년《조선문학》8호에 낸 글 《작가의 참모습》에서 오늘의 젊은 작가들이 큰 자극을 받았다고 들 하는데 거기 조금씩 그려 보여 준 민병균이나 전관진, 윤세중의 모습, 그것은 1960년대까지도 흔히 볼수 있었던 우리 작가들의 초상이었다.

도대체 그때에 우리 나라에 전문적으로 창작에만 집념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던가. 열손가락에 다 꼽을수 있었다. 지금은 작가양성반이나 대학 어문학부 졸업생들이 작가동맹 후보맹원도 되기전에 작가신분증을 쥐고 창작실들에 현역으로 배치된다. 배치되어서는 생활비를 받으면서 창작수업, 창작실습을 몇해씩 한다. 나는 이것을 나무리는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 작가들이 자기들에게 차려진 과분한 그 사랑을 어떻게 감수하고있는가 하는것이 걱정되어 말한다. 소설이나 시창작은 예나 지금이나 개별적인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한다. 이러한 직업상 특성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차치하면 생활에서 무절제, 자유주의, 산만성, 개인주의, 영웅주의, 소충명, 리기주의 등 나쁜 사상이 생길수 있고 생기면 쉬이 고쳐 내지 못한다. 이런 측면까지 깊이 헤아려 보신분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학부문을 친히 지도하기 시작하신 시기에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새로운 우리 식 창작생활방식을 제시하시고 그 한 고리로서 작가들이 창작실에 나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도록 하시였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이 구호의 사상이 깊이 구현된것이 4.15문학창작단의 창작실과 우산장창작실이었다.

주체69(1980)년 9월 우산장에 오라는 기별을 받고 허천을 떠날 때 나는 얼마나 흥분했든가.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어 왔던 우산장에 나도 가게 되었다. 그때 나는 당에 드리는 송가창작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평양에서 박호범, 문제건동무들이 (문제건은 그때 평양시창작실 실장이였다.)허천까지 와주었지만 좀체로 당에서 기대하는 수준에서 작품이 빠져 나오지 않았다.

그점은 나 자신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허천사와 《허천》을 한배낭 지고 우산장창작실 13각에 도착했을 때 거기 와있던 강능수부위원장은 나를 그곳 작가들에게 인사시키면서 《허천》한알씩을 작가들에게 나눠 주었다. 작가들은 얼마나 기뻐했고 나는 또 얼마나 흐뭇했던가. 나는 우산장에서 그 사과값의 수천수만배의 보상을 받았으니 그것은 그곳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예사상, 문예리론을 깊이 배울수 있었고 동료 작가들의 창작경험을 배울수 있었던것이요, 중요하게는 작가대오의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혁명적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따라 배울수 있는것이였다.

내가 허천에서 써가지고 간 송가의 초고는 즉석에서 부정되였지만 나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웅당하다고 생각했다. 10월 10일, 천연색텔레비죤화면에 (나는 그때 처음 천연색텔레비죤을 시청했다.) 모셔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뵈는 순간 시 《어머니》의 참종자가 최종적으로 성숙되였다. 어머니당은 곧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 종자를 안고 허천광산에 돌아 가 백지에 새로 쓴것이 《어머니》였다.

나는 그 당시 우산장에서 이런 시도 썼다.

거닐기에는
그저 거닐기에는
나의 발자국소리
너무 크게 울리는 숲속이여라

옮기기에는
발길 옮기기에는
내 마음 속속들이 비치고 있어
차마 눈길 못 떼는 련못이여라

찾아 올적마다
되살아 나는 그날이여
나라의 큰 휴양소를 통채로 내어 주시며
여기서 수령님께 기쁨 드릴 글을 지으라시던
자애로운 그 모습
이제 다시 문득
버들잎을 헤치시며 반기실것 같거니

손에 들기에 앞서
삼가 안아 보자 그이 주신 붓이여!
꽃이여! 수풀이여! 정각의 기둥이여!
나도 너희들과 함께 서게 해다오!

밤이면 밤이슬에 머리 감고
새벽이면 새벽비에 몸과 마음 씻으며
한자 또 한자 다듬는 글줄들을
친애하는 그이
김정일동지께 보여 드리고 싶어

아, 우산장!

너는 결코 고요할수 없구나

이내 심장의 울림으로 가득히 차서

낮에도 설레고 밤에도 설레누나

이 시에서 서정적주인공 나, 《나》란 누구인가, 김철인가, 물론 그렇다. 허나 김철이만이 아니다.

이 《나》는 윤시철이였고 고병삼이였고 김원종이였고 정창운이였다. 현희균이였고 김재규, 백철수, 변희근, 김수경이였고 정문향, 림재성, 림종상, 김우경, 김규엽이였고 최진용이였다. 이 시에서 《나》란 누구인가. 우산장의 술바람이 읊조리고 느티나무, 오동나무, 단풍나무들이 두고 두고 외우는 그 이름들을 여기 어찌 다 적겠는가.

저기 저 1각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이 깃든 저 아동문학작가들의 집에서 신진순할머니가 이른 새벽 제일 먼저 일어 나 체조와 산보, 랑수마찰을 하고 구름같이 흰 머리를 숙이고 중얼거렸지. 《시를 쓰던 사람이 소설을 쓰거나 소설 쓰다가 시를 쓰려면 심장을 한번씩 갈아 넣어야 해.》

림금단, 그때가 거기서 자기 개인생활의 온갖 락을 희생하며 일생 우리 아동들에게 줄 긴 노래들을 지었지. 정덕철동무, 그가 동지들의 창작을 도와 주느라 아글타글했고 고상훈, 신종봉, 박종렬, 리림수동무들이 천리길을 마다 않고 원고배낭을 지고 왔었지.

거기서 김봉철동무가 불면중에 온몸이 마르면서 도 《환희》를 썼고 정기종동무가 군복 입은 몸으로 《조선의 힘》을 썼지. 남대현동무가 《청춘송가》를, 홍석중동무가 《늦새바람》을.

《고난의 행군》 그 나날에 비닐박막을 쓰고 통강냉이를 씹으면서 우산장의 작가들은 등잔불밑에서 붓을 달리었지.

계훈, 오필천, 오재신, 김영근, 자네들이 남아 오고 건져 온 물고기... 그 국물 얼마나 구수하고 골뱅이회는 얼마나 취기를 청했던가. 저 느티나무 그늘에서 김성조부위원장이 얼마나 바질바질 뽕었고 옥 밀려 왔다가는 획 사라지는 시분과의 재사들, 그들을 얼마나 부러워 했던가. 점잖은 소설가들, 극작가들, 평론가들이... 그런 속에서도 《철의 서사시》와 《대동강》(오영재), 《땅의 노래》(강립석), 《청춘시절》(김재운), 《고요한 바다》(동기춘), 장건식, 김희중, 김병두, 한원희의 서사시와 《삼도만의 봄》(안창만), 《영생의 봄》(리범수)이 꽃 피었지.

장형준, 방연승, 리수립, 강성만... 위력한 필진들이 우리 당의 문학령도사, 문예리론총서들을 광광 써냈다. 김형교, 그 선생이 13각 어느 호실에서 일하다가 생의 마감을 예감하고서야 집으로 돌아 갔지, 저기 6각 김세륜동무가 장군님으로

부터 영웅이라 치하 받으며 한해에 6건의 영화문학을 썼다는데 바로 그 집에서 박혁선생은 희곡을 쓰는줄 알았더니 《조국과 운명》 장편소설을 써놓고 가셨지. 천세봉, 석윤기, 권정웅, 김병훈, 김정, 최학수동무들이 총서 《불멸의 력사》를 쓰던 집에서 리호인은 《나는 조선사람이다》를 쓰고 갔고 저 먼 북관방, 량강방, 동해바다가의 집에 처자를 두고 예서 몇해씩, 그 아이들이 제 아버지 얼굴을 잇고 예쁘장한 안해들이 단산하고 쪼글쪼글해지도록 소설만 쓰고 쓴 《중공업》의 역군들, 그들의 손에서 《백금산》과 《탄부》, 《열망》(김문창), 《야금기저》와 《북부철길》(허춘식), 《백두고원의 봄》(김명희), 《여덟시간》(리희남), 리성덕의 력사소설, 백철수와 김홍무의 장편이 나오지 않았던가. 《새봄》(김규업), 《먼길》(정창운), 《행복》(김재규), 《생명수》와 《뜨거운 심장》(변희근), 《모란봉》과 《우등불》(김원중), 《거센 흐름》(윤시철), 《철쇄를 마스라》와 《대지의 아침》(고병삼), 《로동가정》과 《너당원》(김보행), 《금천강》(김영근)이 흘러 나왔고 김정길은 심의사업을 하면서도 《민음》을 써냈다. 강능수, 김영근, 김보행동무들이 밤을 밝혀 가며 읽고 도와 준 동지들의 중장편을 다 쌓는다면 그들의 키를 넘으리라.

이곳 우산장에서 남다른 애로와 불편, 슬픔과 고독을 묵묵히 견디며 달을 넘기고 해를 지웠더라. 강복례, 리계심, 최상순동무들이. 《녀전사들》, 《녀준의 일기》, 《첫 교단》과 《느티나무》에는 그 어떤 찬사를 드려야 합당할가.

온 나라가 알고 있다. 련녀 권순희가 작가가 아니지만 작가들의 집에서 로년을 보내는 까닭을.

온 나라 독자들이 알고 있다. 《갑오농민전쟁》 3부를 남편의 붓을 넘겨 받은 박태원선생 부인이 끝냈다는것을.

경례를 드린다. 여기 또 한사람 우리 작가들이 잊지 못하는 한 녀성 -정순복에게, 우리 작가들의 건강을 돌보며 《웨라》는 처녀로 늙었다. 그가 공로보장 받고 퇴직할적에 당으로부터 로력훈장과 텔레비존을 배려 받을 때 우리 얼마나 눈곱이 뜨거웠던가. 우리 가슴에 지닌 훈장과 메달을 하나씩 푹 때어 보태주고 싶었다.

저기 호수가언덕에 리태진의 봉분이 있다. 또 한사람 남포시 젊은 작가의 묘소가 있다. 원석과는 유언으로 자기를 우산장에 묻어 달라 하였다.

꽃이여, 우산장에 피는 들꽃이여, 메꽃이여. 봄, 여름, 가을 없이 겨울도 없이 거기 피여 지키라.

예 와서 작품을 쓰게 될 21세기의 젊은 작가들이여, 한가위날 그이들에게 추모의 술 한잔씩 부

어 드리라.

바람아, 삼가 저기 애국렬사릉에도 붙어 가라. 거기 조기천, 리찬, 송영, 천세봉이 있고 백인준, 조령출, 석윤기, 리종순, 김시권, 전동우, 박태원이 있다. 그네들 오늘 다시 눈 뜨고 여기 세기의 령마루를 바라보는지 어이 알리. 그렇다, 진실로 작가라 불리울만한 사람에게는 출생년월일은 있어도 사망년월일은 없다. 그가 쓴 작품이 살아 있을진대, 작품이 곧 그 사람일진대, 그를 어찌 죽었다 하랴, 작가는 자기 작품과 함께 산다.

경례를 드린다. 붓을 들고 순직한 사람들, 붓을 쏘아들고 우리 대오를 보강한 작가들에게.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를 쓴 작가들, 세계 유일무이의 총서, 동서고금 어느 나라 문학사도 가지지 못한 위대한 인간형상을 이 행성에 우뚝 세운 우리 당의 작가대오에 영광이 있으라.

그뿐인가. 우리 문학대오의 중심을 보라. 익측을 보라. 리춘구2중로력영웅을 선코에 세운 영화문학의 정예부대가 있고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선창한 군인작가대오가 있다. 여기 《결전의 길로》, 《전호숙의 나의 노래》, 《샘물터에서》... 전시가요창작가들이 지금도 야전가방을 벗지 않았고 《수령님 따라 천만리당을 따라 천만리》, 《김정일화》, 《높이 들자 붉은기》를 들고 나아가는 가수들이 있다.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세기의 명작들이 빛을 뿌린다.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라고 불러 주신 주체조선의 작가부대, 이 부대를 우리 당,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미덥게 바라보시는가! 이 부대와 함께 있는 우리 인민은 지금 얼마나 신심과 락관, 희망에 넘쳤는가!

땡-땡- 누리에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

푸름푸름 밝아 오는 새 세기의 려명...

나는 지금 만수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아래 다시 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 10월 13일, 우리 작가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동무들은 **김정일**동지를 더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그때 그 음성이 바로 이 시각 이 가슴을 치는것은 무슨 까닭일가. 아아, 그때 수령님께서 오늘 댜오를 태양을 보셨구나! 20세기 조선인민이 마치고 낫과 붓, 총대로 받들어 올리였고 받들어 승승장구 앞으로만 나아갈 새 세기의 태양 **김정일**동지!

태양은 새 세기를 비친다.

태양 만세! 우리 작가들의 스승이시며 향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 만만세!

해저무는 백사장에서

김유권

1

서인경은 흰 위생모를 벗으며 저녁노을이 비낀 창문을 열어 젖혔다. 무르익은 계절의 선들바람이 의사실에 감돌아 들었다. 차가운 대리석조각 같은 처녀의 자태는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동해기슭의 저녁... 병원이 속해 있는 화학기지 구내의 합성탑들너머 서산마루에서 불 붙던 노을이 눈결에 스러져 버렸다.

그러나 처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노을이 불 타네 해 저무는 백사장에
정답게 흐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

동해안에서 그려 보는 서해의 저녁풍경은 노래처럼 황홀하였다.

처녀에게는 해 떨어진 뒤 수평선에 드리운 적막이나 다가오는 어둠이 보일리가 없었으며 그우에 잠시 비졌던 노을이 어째서 그처럼 아름다울가 하는 의문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나이였다.

퇴근시간이라 넓은 구내길로 노동자들이 밀려나왔다. 어느때 같으면 인철이가 뛰여 오며 누이를 부르고 그러면 오누이는 소나무들이 늘어선 백사장길을 따라 나란히 집으로 돌아 갈것이었다.

30분이 지나도록 인철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박승규반장한테서 시급 장기선수권을 따낸다고 밤늦도록 작업반휴계실의 장기판에 붙어 있을 잡도리 같았다. 기업소의 중요부문에 배치 받았다고 화구나 막을것처럼 으시대더니 2년도 못되어 장기놀음에 빠지고 말았다. 하긴 고등중학교 시절부터 공원의 할아버지들과 어울려 장훈을 부르던 인철이었다. 요즘은 공부를 하라는 누이의 통제가 귀찮은지 퇴근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벌써 사흘째였다. 장차 무엇이 되려고 저렇게.

서인경은 퇴근차림으로 동생을 찾아 수리작업반쪽으로 떠났다. 갑자기 고동이 려이어 울리더니 머리우의 배관들과 합성탑들에서 김이 빠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왔다.

서인경은 가슴이 섬찍해 졌다.

작년 봄에 4천마력타보압축기내부가 파열되어 10여리 구간에 피출처럼 뿜어 간 배관들에서 원료와 가스흐름이 멎고 거대한 반응체가 싸늘하게 식어 가던 일이 눈앞에 되살아 났다. 그는 땀겨

방을 벗어 들고 압축기현장쪽으로 내달리면서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지난 사고때 서인경은 마침 현장가까이에 있는 덕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책임운전공을 6분만에 소생시킬수 있었다.

또 그런 사고일가?!...

압축기대사고는 대체로 작은 부위에서부터 발생한다. 별치 않은 감기로부터 오는 급성질환이 무서운 합병증으로 넘어 가는것과 비슷하였다. 어느 한 베어링이나 메달에 숨어 있던 미소균열이 작업과정에 점차 확장되다가 한계를 넘어 깨여 지면 그 파편이 맹렬히 돌아 가는 감속기치차들속에 끼여 들고 거기서 튀여 난 새 파편들이 급속도로 날개와 같은 큰 부분품들을 타격한다. 파괴범위는 핵분열시의 연쇄반응처럼 먼저 저 나중에는 6m 짜리 축이 비틀리고 과부하 걸린 대형전동기까지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 타보압축기내부는 두꺼운 장갑관으로 밀폐되어 500기압속에서

돌아 가는 까닭에 이상현상을 제때에 알아 내는 도리가 없었다. 요란한 파렬음이 려달아 장갑케스를 울릴 때에야 운전공들이 때 늦은 비명을 울렸다. 뜯어 보면 내부는 쇠조각무더기뿐이었다. 압축기를 살리는데 한분기라는 시일과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나면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는 기업소의 년간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어쩔수 없는 대사고였다. 자주 압축기를 해체하여 미려한 부속을 갈아 대며 미리 보수를 하는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었다. 압축기수리반이 늘 대기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소방대나 구급소생과와 비슷하였다. 기술자들과 날과람 있는 청년들로 무어진 이 작업반이 할 일이 적다면 기업소로서는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것이다. 수리반장 박승규는 이 도시에서 손 꼽히는 장기군이였다...

타보압축기현장은 무슨 집회장처럼 끓었다. 한달음에 그곳에 다달은 서인경은 사고가 아니라 대보수때문에 압축기를 세웠다는것을 알고 겨우 몸을 가누며 이마의 땀을 훔쳤다.

숨이 죽은 타보압축기 가까이에 이르니 얼굴이 갱뻘한 수리반장 박승규가 지배인과 기사장에게 열이 나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연락병격인 인철이가 벌써 턱에 검은 칠을 하고서 있는데 지지만 떨어 지면 금시 천리라도 달려갈 기세였다.

압축기결에는 어느 사무실에서 새로 내온것 같은 회색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대수술을 앞둔 시각이었다.

《언제까지 기다리잡니까!》박승규가 증이 난 소리로 물었다. 《우선 해체하구 볼 판이지요. 과학원사람들이 온단들 무슨 뽕죽한 수가 있답니까. 저 지배인동지-》

《...》

《기껏해야 수자나 풀고 시비공론이나 하겠지요. 당초에 그 량반들을 부른것부터가...》

《무슨 소리요.》 지배인이 목청을 가다듬어 박승규를 꾸짖었다. 《지금이 어느 땐데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하구 있소. 연구사가 대보수때 알려달라고 전화로 두번이나 부탁했더랬소. 외지 손님이 도와 주겠다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취소합시다. -》

박승규는 령소하며 돌아 섰다.

잠시후 과학원 《갱생》차가 도착하였다. 격전장을 달려 온듯 진창이 튀고 기관실덜개가 우그러진 풍차에서 검은 트렁크를 든 사람이 뛰어 내렸다. 몸이 가로 퍼지고 둥근 얼굴에 혈기가 넘치는 젊은이였다. 문가에서 성을 쌓고 웅실거리던 종업원들이 그의 앞길을 터워 주었다. 실로 바다가 돌로 갈라 지면서 바닥을 드러내는것 같은 어마어마한 광경이였다.

청년학자는 기업소일꾼들과 만나 초보적인 설명을 들으며 우람한 회록색 타보압축기본체를 올려다 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압축기 돌아 가는 소리를 좀 들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장에 미묘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박승규가 흥심없이 대꾸하였다.

《들어 보나마나 기계 돌아 가는 소리지요. -》

지배인이 그를 돌아 보았지만 박승규는 점점 목대를 쫓아갔다.

《이제 전원을 투입했다가 낡은 부속들이 깨져나가는 날엔 전동기까지 구워 먹습니다. 그렇잖아도 골병이 든것 같아서 아짜아짜한걸 지금까지 돌려 왔는데... 대보수날자도 그래서 당겼지요.》

《뭐 별일 없겠지요.》

청년학자는 기계물계에 도통한듯 배포유한 소리를 하며 구면지기처럼 박승규를 쳐다 보았다.

뒤집을 지고 오락가락하던 지배인이 결단을 내렸다.

《돌려 보지요.》

그러자 여러문명의 사람들이 압축기와 련결된 자기 부문들로 각기 흩어 져 갔다. 사방으로 뻗은 산업전화선을 통하여 지령과 신호가 분주히 오간끝에 타보압축기가 위잉- 굉음을 울리며 돌아 가기 시작하였다. 천정이 떠나갈듯한 소리였다. 청년학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 나름의 사색에 잠겼다. 기사장이 그에게 컴퓨터를 가리키며 무어라고 소리를 쳤지만 제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그는 한참만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멈춰도 좋다고 신호하였다.

압축기동음이 거의 몇자 이번에는 아름답리 배관들에서 쉼-하는 소리가 터졌다.

드디어 장내가 조용해 졌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소리가 요란한데요.》

청년학자의 첫 마디는 소박하였다.

지배인이 은근히 물었다.

《뭔가 짝이는게 있는게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체할 때 방조를 주시오.》

《전 기계를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얼마간이라도 배워 두자고 합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지배인이 한 손을 들었다 내리며 해체지시를 떨구었다.

증강된 투광등들아래서 박승규가 지휘를 했다.

《뭘 꾸물거리! 제길할... 두시간이나 밀렸단 말이야. 어이, 기증기-》

구경꾼들이 흩어져 갔다. 어느 경망한 청년이 문밖을 나서면서 큰 산이 울더니 쥐 한마리라고 떠들었다.

과학원의 젊은이는 수리반원의 발길에 걸채일번한 검은 트렁크를 부둥켜 안고 곁에 묻은 티끌을 훌훌 털어 떨구기에 여념이 없었다. 목도군처럼 다부진 몸집에 등실한 얼굴은 워낙 무안 같은것은 알지도 못한다는듯한 반죽 좋은 인상이었다.

서인경이 보기에도 심장혈관계통만은 퍼그나든든한 체질인것 같았다.

2

타보압축기내부를 조사하고 마모된 부속들을 깎아 맞추는 작업이 밤에 낮을 이어 현장과 공무동력기지에서 벌어 졌다. 특수재질의 큰 부분품들은 룡성과 같은 전문기계공장들에 의뢰하였다. 압축기내부를 중화제로 세척한 뒤에도 현장에는 탁한 기운이 떠돌았다.

서인경은 분주한 일관에서 멋없이 오락가락하는 연구사청년을 여러번 띄어 보았다. 어떤 때는 그편에서 인경에게 소탈한 눈웃음을 던지기도 하였다. 흰 위생복차림이라 현장식당 요리사로 착각했는지...

《췌,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철이는 누이가 가져 온 산유를 마시며 어린애처럼 입술을 감빨았다. 《처음엔 대수술을 지휘하는 고문이라도 초빙해 온줄 알았는데 기계물계엔 영 감감이요. 6308베어링이 어느 축에 붙었었는지도 몰라서 사람들을 웃겼어요. 하긴 수학연구소에서 수자나 풀던 사람이라니까 관대히 봐줘야지요. 근데 기계공학연구소에선 뭇들 하고 있는지...》

《수학은 침단에 서 있어.》

《글쎄 기초과학이에요.》

《하나 물어 불가. 돌맹이가 날아 간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행,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말이 통할리 없지. 속도의 적분이 거리야.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아야 해.》

《누인 찍하면 배운 재세야. 나약한 지식인 같은 건 부럽지 않아요!》

인철이는 유치원시절처럼 뽀로통해 졌다.

《어쨌든 저 사람이 우리 일을 방해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금이 간 베아링을 감속기축에 끼우고 한번 돌려 보라고 자꾸 성화예요.》

《한두번쯤 그 청을 들어 주면 안되니?》

《엉터리시중이나 들다간 일 못해요. 그래서 반장이 연구사하구 몇번 뚜렸어요.》

《말 좀 압전히 하렴. 그래 누가 이겼니?》

《흥, <동장훈>을 당해 내나요. 한데 연구사도 매집은 좋은 편이요. 히물히물 하면서 매번 검질기게 접어 들어요.》

《참, 연구사들이 현장에 침투한다는게 어렵겠구나...》

서인경은 동생이 압축기쪽으로 뛰어 간 후에도 한동안 측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의학대학졸업후 박사원에 들어 가라는 지도교원의 권고를 마다하고 치료현장으로 진출한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던가 싶었다. 환자의 신음소리와 하소연, 피 흐르는 수술장과 어지러운 봉대... 어려웠지만 실제적인 지식을 쌓는것도 빠르고 생활의 보람도 있는 길이었다.

물론 의학연구사의 길은 아늑한 서가와 탁상등, 논문과 명예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끝은 멀고 어렵곤했다. 그 길을 걸었더라면 오늘 같은 림상경험이나 환자들의 신망에 받들린 생활에서의 확고한 위치는 고사하고 늘 연구과제에 몰리우며 실험기구와 문헌자료들속에 파묻혀 세월을 보내고 있을것이였다. 간혹 연구차로 병원에 나가보는 경우에도 의사들의 환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다. 환자는 실험대상이 아니기때문이다.

생산현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 글썸 백번 들어 봐야 그게 그 소리란 말이요. 이제 보니 주렬동무도 꽤 어지간하구만.》

박승규는 이제 《리주렬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런 호칭을 썼다. 두 사람은 닳아 빠진 압축기메달결에 서 있었는데 점점 목소리들이 높아 졌다.

《이젠 반장동지 결심에 달렸지요. 해봅시다. 이 건 꼭 필요한 실험이라니까요...》

《주렬동문 은근히 당위원회나 행정과의 합의를 등대구 자꾸 우리한테 내리먹이는것 같은데 자아-그러면 우리가 딱하지요. 그 실험이라는데 내 보기에두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란 말요.》

《차차 납득이 될겁니다. 이번엔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지요...》

《목이나 추기구 계속하는게 어떻소?》

《좋습니다.》

두 싸움군이 산유통 있는데로 다가오자 인경은 한고뿌씩 권하였다.

박승규는 곱배기를 청하면서 산유맛이 별맛이라고 혀를 찼다.

《인경선생은 참 기업소의 보배란 말이요. 산유뿐인줄 아우. 저승문턱을 넘어 섰던 사람을 돌씩이나 건져 낸게 바로 이 선생이요. 심장계통에선 그야말로 박사라고 할수 있지.》

《이거 반갑습니다.》 리주렬은 소꿉친구라도 만 난것처럼 기뻐하였다. 《그러잖아두 소문을 듣구 한번 만나 얘길 해보자던 참이었습시다. 의사선생은 청진기로 심장환자를 진찰하지요?》

싱거운 질문을 던진 리주렬은 사뭇 정색해 졌다.

《우린 압축기의 진동을 가늠해서 <병든> 부위를 짚어 내자는겁니다. 의사선생 보기에 어떻게 됩니까?》

서인경은 자기한테까지 응원을 청하는 그의 처지가 퍼그나 가엾어 보였다. 되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싶었다.

《원리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글썸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리론과 실천사이에는 거리가 있지 않을가요.》

《하. 의사선생은 실지로 진찰하면서도 그러시는군요.》

《저는 아직 청진이 정확치 못합니다.》

《겸손한 말씀요...》

《사실이에요.》

리주렬은 눈만 꺼먹거렸다.

박승규가 껄껄 웃으며 그의 잔등을 갈기였다.

《주렬동무의 그 비유법이 드디어 은을 내누만. 납득이 간단 말이요. 납득이 가, 엉 하하하하... 보다 싶이 명의로 진단을 내리길 어려워 하잖소. 그런데 전자뇌수가 정확한 진단을 한다? 그 물건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거겠지. 자아- 이만하자구. 물론 리치가 그럴듯 하다니까 장차 빛을 볼 날이 오긴 올테지만...》

《바로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썸이지요.》

《자넨 틀렸어. 엉터리거든.》

《이거 혹 떼러 왔다가 하나 더 붙인 썸이구만요. 하하...》

그의 어색한 웃음에는 그 어떤 서글픔이 있었다.

서인경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미안합니다...》

《내탓이지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

《사람두 참. 소힘줄 한가지라니까. 여기서 의사 선생이나 자꾸 괴롭혀선 뭘 하겠나. 그만 가자구.》

박승규가 끈덕진 리주렬을 끌고 가는데 직장통계원처녀가 전화를 받으라고 소리쳤다. 당위원회에서 찾는다느 것이었다.

《나를?!...》

박승규는 언짢은듯이 투덜거렸다.

《또 실험때문이겠지. ... 하지만 알아 두우. 주렬동문 지금 꿈을 꾸고 있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에 기업소병원으로 구급환자가 실려 왔다. 리주렬연구사였다.

환자는 타박을 받아 제4특공이 부러지고 심장 기능이 장애되어 의식이 없었다. 3시간만에 겨우 눈을 떴다가 이어 최면상태에 들어 갔다. 심전계를 보니 불규칙적인 심장의 박동-부정맥파형이 나타나곤 하였다.

담가채를 들고 왔던 박승규는 이를 뿌드득 갈며 제 가슴을 쳤다.

인철이가 누이에게 자초지종을 알려 주었다.

리주렬연구사는 기업소일군들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자기의 피이한 실험을 대보수마당에 끝내 펼쳐 놓고야 말았다. 그 실험이란것이 단순하기 짝이 없었다. 닳아 떨어 진 치차나 메달 그리고 작년 사고때 부서 진 조각부속들을 주어 다가 열추 땀질하여 죽에 맞추고 돌려 보는것이 고작이었다. 수리반원들은 남의 초상에 와서 민속학을 연구하는것 같은 리주렬이가 아니꼬웠으나 그의 요구대로 때고 맞추고 뜯고 하면서 보수중의 압축기를 이따금씩 가동시켰다. 공무에서나 통성에서 깔고 재생시키는 부분품들이 완성되는대로 날라다가 조립하여 타보압축기보수를 끝내는 일이 우선 급하였다. 그러나 성가신 실험은 한편으로 계속되었다. 리주렬은 장님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압축기의 동음을 듣다가 전구스케트모양의 수감부를 본체케스 여기저기에 옮겨 붙이기도 하였다. 케스를 일부 뜯고 돌릴 때는 요란히 진동하는 내부를 들여다 보며 귀를 바짝 강구곤 하였는데 이진 위험천만한 놀음이었다. 일단 마모되고 금이 간 부속들이 언제 깨여 저 튀어 날지 몰랐다. 압축기에 이상이 생길가 보아 전원스위치를 거머 잡고 있던 박승규가 거듭 목청을 돋구어 위험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만 휘뿌려 지는 베어링알이 가슴을 때려 그 자리에 거꾸러지고 말았다. 바위에 부딪쳐 도탄된 총알에 맞은것처럼 간접타격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번 했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화구를 막을 기질이에요.》 인철이는 깊은 한숨까지 쉬었다. 《생명을 내내는 그 마감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가요!... 아마 범상한 생

각은 아니었을거예요.》

박승규는 허탈에 빠진 사람처럼 증얼거렸다.

《그만큼 심각한 실험이였는지도 모르지. 후-》

환자는 병적인 잠에서 깨여 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승규네 반원들은 밤 늦게야 울적해서 돌아갔다.

새벽녘에 서인경은 간호원에게 눈을 좀 붙이라고 이르고 나서 심장파형을 기록한 심전도그래프 용지를 퍼들고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 생각에 잠기었다.

특공이 골절된것은 한동안 누워 안정하느라 면 다시 붙겠지만 강한 충격을 받은 심장이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부정맥과 심계항진이 지속되어 장기질환으로 넘어 갈 수도 있고 합병증을 일으킬수도 있었다.

(나아질거야. 젊은 심장이니까... 중요한건 신심이다... 신심이다...)

인경은 환자의 침대머리에 그래프용지를 펼군 채 고개를 숙였다. 깜빡 졸다가 깨여 보니 환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 안도의 숨이 나갔다.

환자는 오른손을 가까스로 쳐들어 그래프용지를 눈 바투 가져다 대고 흐릿한 눈으로 더듬고 있었다. 어지럽게 형클어 진 심장의 파형을 보았는지 눈시울이 떨렸다.

《...곡선이 이상한데... 정상이 아니군...》

《이보세요. 그 부정맥은 일시적인거예요.》

《...어차피 파열되겠지... 이젠 시간문제다...》

《?》

《...이때 멈춰 세워야 할텐데! 멈춰 세워야 할...》

《아니, 심장을 멈춰요? 정신 차리세요!》

대답이 없었다. 이번에는 최면이 아니라 아예 의식을 잃고 말았다.

서인경은 주사약암푼을 터뜨리며 소리쳐 간호원을 불렀다.

3

환자는 한낮이 되어서야 의식을 회복하였다. 심장의 박동은 아직도 고르롭지 못했지만 급한 고비는 넘어 섰다. 고열도 점차 떨어 졌다.

그런데 점점 심상치 않은 신경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기 병에 대한 번뇌와 공포심은 편집광의 그것처럼 집요하였다. 웃음이 헤론 간호원 정애는 환자 모르게 《떨보》라는 별명을 달아 주었다.

리주렬은자기의 심전도곡선을 다시 보여 달라고 못 견디게 졸라 대곤 하였다. 서인경은 그에게 여러장의 심전도그래프용지들을 날자별로 대비하여 보여 주면서 정상곡선으로 점차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 말은 어느정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환자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곡선들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설명이 되는
까닭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만일에… 비정상곡선을 정상이라고 오판하고
안심하는 경우엔 그야말로 큰일이지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서인경은 안타까웠다.

리주렬은 다급히 둘러 댔다.

《아닙니다. 의사선생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입을 다물고 허공을 쳐
다 보았다.

그러나 불규칙적으로 물결쳐 나간 심장의 파형
들을 대할 때면 다시금 낯색이 변하고 눈동자가
바로 돌지 않았다. 그는 곡선이 급하게 구부러
진 구간을 짚어 보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이상… 한데요?》

《바로 좌심실부근에서 새로운 임펄스가 발진하
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 나타나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환자는 눈을 홑떴다. 엄연한 사실을 그대로 받
아 들이기가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의사선생은 그걸 어떻게 알아 냅니까? 어쩌서
이 곡선이… 그렇게 해석되는가요?》

《그것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을거예요.》

《이건… 내 생사문제가 아닙니까.》

환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심전도곡선을 훑어
볼 때 의사의 머리속에서 이루어 지는 복잡한 추
리, 판단과정을 룬파이나마 그려 보이지 않을수
가 없었다. 점차 이상적인 집적회로에 흐르는 론
리연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 갔다.

나중에는 의사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워 머뭇거
리는데 환자가 얼른 받아 물었다.

《그렇지요. 의사의 머리속에서 <푸리에해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얻어 진 파형이 주파수별로
갈라 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 그건… 의사선생의 설명이 이해된다는 말
이지요.》 리주렬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음이
놓입니다. 내 병이 낫는다는 의사선생의 그 말씀
이 믿어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환자는 곡선의
마술에서 쉬이 풀려 나지 못하였다. 허공을 노려
보던 두눈이 때로 이상한 빛으로 번뜩이다가는
부정맥때문인지 초점이 흐려 지며 신음소리를 냈
다. 넓은 반창고를 붙인 가슴팍이 위태롭게 솟아
올랐다가 꺼져 내리곤 하였다. 밤이면 밤대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겨우 잠이 들어 서도 곡선이
니 해석이니 140억개의 세포니 하고 잠꼬대를 하
며 식은 땀을 흘렸다. 꿈속에서도 이지러진 곡선
으로 그려진 무서운 형체와 맞다들어 생사를 판
가리하고 있는것만 같았다.

신경과판이었다.

심장은 말 그대로 마음과 직결된 장기이다. 마
음부터 가다듬게 해야 하였다.

서인경은 그에게 생각을 돌려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편안도 하고 자존심도 건드려 보았다.
마감에는 안타까와 말도 나가지 않았다.

너의사의 그 무언의 눈빛이 환자를 약간 움직
였다.

《웁습니다. 안정해야지요. 무슨 간단한 문제 같
은것을 푸느라면 마음이 가라앉지요. 부탁드립니다.
연필과 종이를 몇장 주시면.》

서인경은 머리를 저어 보였다.

그는 될수록 회진시간을 늘여 환자의 머리말에
서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고 기억을 더듬어 할
머니의 옛말도 들려 주었다. 환자의 청에 못 이
겨 간간히 노래까지 불렀다.

리주렬은 번민과 아픔을 잊고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런데 박승규반장이 면회 온 날 저녁에 그는
베개맡에서 종이 몇장을 꺼내보여 주다가 의사한
테 들키었다. 지우고 쓰고 한 기다란 수학식이었
다.

《이건 뭐가요?》

엄한 물음에 리주렬은 창황히 대꾸하였다.

《하두 갑갑하길래… 의사의 머리속에서 어떤
진단이 나오는가 하는걸 점 쳐 본겁니다.》

서인경은 그 수학식들을 훑어 보았다. 련립미
분방정식들이었다. 그의 말처럼 심전도곡선을 분
석할 때 의사의 머리속에서 저도 모르게 진행되는
계산과정을 추구해 본것 같기도 하였다.

《결국 부정맥이라는 진단과 그 원인 같은것이
밝혀 지게 됩니다.》 리주렬은 의사의 눈치를 보며
동의를 구하듯 히죽이 웃기까지 하였다. 《비슷
하지요?》

《…》

서인경은 수궁할수도 심장환자를 질책할수도
없었다.

의사의 기색이 점점 심각해 지자 곁에 앉아 량
쪽의 눈치를 보던 박승규가 제사 얼굴을 붉히며
리주렬을 꾸짖었다.

《사람두 참, 그렇게 자주 부정맥이니 심전도니
하구 자기를 괴롭히니 차도가 있을게 뭐가. 이
런 종이장들은 내가 회수해야겠네. 보라구, 의사
선생이 속 썩이는걸 좀 보란 말이네!》

박승규가 앞장을 치며 병원이 들쭉하게 설레발
을 놓는 바람에 서인경은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
다. 대신 사무용지를 몰래 가져다 준 간호원을
눈물이 나게 책망하였다.

그러면 환자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서인경은 경음악 같은것을 들려 주거나 커다란
어항을 가져다 놓을 전례 없는 궁리까지 해보았
다. 다행히도 리주렬이 그닥 해롭지 않을 소일거

리를 스스로 찾아 냈다.

수리반원들이 찾아 왔을 때 그는 자기 숙소에 건사한 트렁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검은 트렁크를 열자 한쪽 칸에는 101개의 건반이 주련이 박혀 있고 다른 쪽에는 회청색 화면이 번들거렸다. 휴대용컴퓨터였다.

서인경은 얼른 《트렁크》뚜껑을 덮으며 인철이에게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일렀다.

리주렬은 침대에 누워 싱긋 웃었다.

《인철이, 컴퓨터하구 장기를 한번 놀아 보라구. 저속에 우리 동무들이 만든 장기오락프로그램이 들어 있어. 난 결에서 구경하구... 그래도 되겠지요, 의사선생?...》

박승규도 어디 한판만 놀아 보라고 인철이를 부추겼다. 인철이는 컴퓨터를 다룰줄 몰랐다.

서인경은 하는수없이 전원을 넣고 마우스를 움직여 장기판을 화면에 현시한 다음 건반 몇개를 짚어 보이며 전자오락실에서 놀이를 할 때처럼 누르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화면의 장기판 옷머리에 장난꾸러기소년이 나타나서 인철이에게 붉은쪽들을 놓으라고 친절히 권하면서 랑귀마를 놓겠는가 어귀상으로 놓겠는가 물은 다음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장기경기가 시작되었다. 인철이는 점차 손이 풀리자 랑상으로 상대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차를 공격선에 내세웠다.

수는 컴퓨터가 더 빨리 썼는데 차로 줄을 까고 포와 귀사를 바꾸기를 서슴지 않았다.

인철이는 어린 아이 뺨치기라고 희떠운 소리를 하며 공격에 열을 올렸다.

《궁수리는 열었다.》

박승규의 경고는 의미심장한것이였다.

인철이가 상대의 중포를 우습게 보고 벼락같이 상장군을 불렀을 때였다.

《멍군이야!》

《?》

화면 옷머리에 소년이 다시 나타나 맞받아 소리치며 중포앞의 귀마를 돌려 상머를 막으니 도리어 인철이가 포장군을 받게 되었다. 그바람에 중선에 서서 련장을 노리던 인철이의 차가 나떨어졌다.

《한번만 물립시다.》

《컴퓨터는 일수부동이네.》

리주렬의 말에 주위에선 웃음이 터졌다.

《좋아요. 내가 지면 성을 같고 말겠어요.》

서인경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서인철이가 동인철이로 되나?》

《절대 그렇게는 안될걸!》

인철이는 공격수단들을 일부 끌어 들이며 장기전을 꾀하였다. 그런데 컴퓨터의 계획은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다섯수는 내다보누만!》

박승규는 시급 장기선수권보유자다운 판목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그 역시 무용지물 같던 컴퓨터의 상이 돌연히 뛰여 들며 통장훈을 먹일줄은 미처 몰랐다. 인철이는 놀랄 사이도 없었다.

《신심을 가지세요.》 컴퓨터화면에 나타난 소년이 해물거리며 말했다. 《다시 한번 돌아가요? 아니면?》

2회전에서는 첫수부터 박승규가 혼수하였다. 그는 그것 보라, 쌍포에 소대가리가 깨진다고 흥에 떠서 소리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판이 기울어 지더니 이번에도 인철이가 어방없이 지고 말았다.

마침내 인철이는 장기프로그램을 만든 수학연구소 학자들앞에서 투구를 벗었다.

리주렬은 한껏 겸손해 진 인철이에게 남 다른 수학적사고력이 엿보인다고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인철이는 패전도 잊고 허공에 떴다.

《선생님한테 매일 면회 오겠어요. 누이, 허락하지요?》

인경은 웃었다.

《반장동지의 허락부터 받으렴.》

박승규는 밀다 남은 노란 턱수염을 손톱으로 잡아 채며 멀거니 창밖만 내다보았다.

그는 돌아 갈 때 복도에서 왕청 같은 소리를 하였다.

《이거 야단이구만. 대보수가 끝나기 전에 아무래도 저 선생이 현장에 나와야겠는데...》

인경은 흘깃 그를 쳐다보았다.

《일에 방해가 된다면서요?》

《그런 무지한 소릴 하는게 대체 누구요?》

박승규가 자꾸 대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인경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환자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체온과 맥박이 전보다 안정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환자를 병원일과에 갑자기 순응시키기는 어려웠지만 그에게는 제나름의 생활틀조가 있었다. 그는 버릇처럼 0시에 잠들고 5시에 깨여 나 정신을 단련하는 《체조》를 하였다. 그 기제는 휴대용컴퓨터였다. 그속에는 수백권의 신간도서와 맞먹는 정보들과 외국어사전들 그리고 휴식에 필요한 음악미술자료들과 유희오락프로그램들이 입력되어 있었다. 물론 그는 간호원의 감시와 조력밑에 음악과 미술작품들을 감상하기도 하고 바둑, 《태권도》 놀이를 하였다. 간호원 정애가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는 전번에 의사의 추궁을 받고 좀 채심한것 같았지만 컴퓨터오락시간이 한계를 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한 건반을 대신 눌러준다든가 마우스를 움직여 주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챈 서인경은 환자의 안정이 첫째라고 간호원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그 이상은 추궁하지 않았다. 그 정도의 여유와 오락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신경증세가 재발될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인경은 《화구를 막을 기질》이 아무렴 저렇게까지 자기 병에 집념하여 번뇌와 공포에 떨겠는가 하는 의혹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타보압축기의 《병》때문에 것처럼 모대긴것은 아닐가?...

4주일만에 렌트겐촬영을 해보니 그의 특골은 거의 아물어 붙었다. 이제는 침대우에 드리운 등근고리형손잡이를 잡고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잠깐씩 일어 나 앉곤 하였다. 욕창이 생길 념려도 없어 졌다. 부정맥은 이전보다 드물게 나타났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고려약치료를 굳기 있게 해야 하였다.

차도가 보이자 면회자들이 부쩍 늘어 났다. 매일 저녁 수학학습장을 끼고 들러 보는 인철이는 말할것도 없고 박승규와 기사장과 젊은 기사들, 지어는 후방부지배인까지 찾아 와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 갔다.

저녁녁이면 컴퓨터에서 은은한 서정가요가 흘러나왔다. 녀의사가 침대머리에서 불러 주던 해저무는 백사장의 노래를 리주렬이 간호원과 짜고 록음해 두었던것이다. 회진하는 담당의사의 기분에까지 주의를 돌릴만큼 환자의 신색이 좋아진것 같았다.

그러나 서인경은 그렇게 쉽게 열려 넘어 갈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불시에 리주렬의 입원실문을 열었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리주렬이 원탁우의 검은 트렁크-컴퓨터와 마주 앉아 천연스럽게 건반을 치고 있었다. 간호원 정애는 의사등받이에 두팔을 짚고 서서 고개를 가웃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비슷해요. 심전도곡선 같어요. 호호... 연구사 선생님은 이제 보니 압축기의사군요.》

《보우... 보라니까... 이 곡선이 바로 골병 든 베아링이 내는 소리란 말이요. 물론 아직은 불완전한 선이지만...》

《알만해요. 조기진단하면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수 있다 이거지요? 정말 희한해요!》

《윗, 의사선생이 듣겠소.》

서인경은 반쯤 열었던 문을 도로 닫았다. 갑자기 의사가 들어 서면 긴급한 간호원이 놀란 환자의 거드랑이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느라고 헤덤빌것이다. 환자의 병든 심장에 주는 자극도 자극이지만 아물던 특골이 쉽게 골절될수 있었다. 인경은 아찔한 나무꼭대기에 올라 간 철부지들을 소리쳐 부르지도 못하고 속을 태우는 누이처럼 복도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눈앞에는 붉고 푸른 곡선들이 엇갈리며 줄달음치던 컴퓨터화면이 자꾸 얼른거렸다. 그것은 분명 타보압축기의 진동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고장을 미리 진단하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다.

환자는 바로 이걸 착안하느라고 것처럼 번뇌와 불면증에 모대긴것이였다. 그러니 치료효과가 제대로 나타날리 없었다. 여기에는 박승규반장과 기사장도 관계했을것이다.

소외감과 기만 당한 노여움이 가슴을 얼얼하게 휘저었다.

잠시후에 그가 입원실에 들어 가니 리주렬은 아닌보살하고 누워 있었고 컴퓨터에서는 해저무는 백사장의 노래가 은은히 흘러 나왔다. 코노래를 부르며 체온계를 털던 정애는 의사의 서늘한 눈길을 대하자 온몸에 강직이 온듯 허공에서 팔을 멈추었다. 헤벌쭙 웃던 환자도 눈이 떴곤해 졌다.

서인경은 컴퓨터앞으로 다가갔다. 서정가요를 부르는 자기의 목소리도 오늘따라 꾸민듯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전원을 껐다.

《간호원동무, 이걸 의사실로 가져 오세요.》

정애는 고개를 떨구었다. 리주렬의 얼굴에도 랑패한 기색이 비졌지만 녀살 좋게 한마디 하였다.

《저 그건 내 정신치료기젠데...》

《이젠 필요 없을거예요. 완쾌된것처럼 보이니까요.》

대답은 차거웠다.

《흥, 누이가 이걸 회수했다구 연구사선생이 떠끔이나 할것 같어요?》

저녁에 의사실로 찾아 온 인철이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히죽히죽 웃고 있는데... 종이를 빼앗아두 마찬가지야요. 머리속에서 수확식이 전개될테니까.》

《이젠 정애까지 날 속이누나...》

《시효가 지났으니 말하지요. 난 그새 현장기사들이 주는 압축기실험자료들을 연구사선생한테 매일 날라다 줬어요. 그러면 그걸 모형화한다나.》

《넌 그제 주렬선생을 돕는거라고 생각하니?》

《누인 왜 그래요? 울것처럼 심각해서...》

《... 환자는 안정시켜야 해.》

《안정시키면 심장이 터져요.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거든.》

《넌 어떻게 그를 잘 아니?》

인경은 야릇한 눈길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흥, 우리 연구사를 잘 모르는건 누이하구 지배인뿐이야요...》

4

서인경은 지배인을 안내하여 입원실로 들어 갔다. 환자는 낮부터 제재를 받은 탓인지 얌전히 누워 있었다.

《우리가 손님대접을 제대로 못한것 같소...》

지배인은 운전수가 상두대우에 올려 놓은 꾸레미에서 사과 한알을 골라 손에 쥐고 굴리였다.

《이제 일주일이면 대보수가 끝나게 되요. 그럼

연구사동문 어떻건다?)

《래일 퇴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보름은 더 누워 있어야 한다던데...》

《거의 다 나았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쳐다보았다. 서인경은 매정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조급해 가지군 병을 고칠수 없소. 압축기고장이라는것도 병으로 치면 때없이 도지는 고질병이나 같은데 어떻게 단기간에 완치되기를 바라겠소.

해를 넘겨 가면서 찢질도 하고 탕약도 달여 먹이다가 원기가 도는걸 미루어 보아서 차츰 그 근원을 다스려야 하는거요. 기사장도 이런 문세는 아는 사람인데 거 참... 아직도 일부 기술일꾼들이 압축기실험에 미련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수리반장까지 끼여 들어 실험을 해본다고 춤을 추는데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구만. 대보수는 안중에 없소. 그 연구가 당장 승산이 있는거라면 별문제지만...》

《타보압축기진동을 해석하는 모형을 찾아 냈습니다. 기본고리는 풀렸습니다. 현장실험은 균렬이 간 부속품들의 동음을 컴퓨터에 기억시키는건데 이걸 대보수때 해야 합니다.》

《그러자니 기일이 한정없이 늦어 질거란 말이요.》

《아마 대엿새 더 걸릴겁니다. 그대신 대사고를 막을수 있습니다. 조기진단을 하면 3개월이 아니라 2~3시간에 수리할수 있습니다.》

《하하하... 3시간에? 멋 있소!》

리주렬은 누운채로 베개밑에서 한몽치나 되는 종이장들을 꺼내어 두루 번지더니 한장을 골라 지배인에게 내밀었다. 서인경은 아래입술을 잘근 잘근 깨물었다. 전번에 저 종이장들을 박승규반장이 회수한다고 큰소리치더니 도로 베개밑에 들어 간것이 분명하였다.

지배인은 구겨 진 종이장에 씌여 진 런립미분방정식들을 한참 들여다 보았다.

《이것 말고 설계자료들은 어디 있소? 큰 기술혁신인데 설비들도 제작해야 할게 아니요.》

《현장에 내놓은 컴퓨터 한대면 됩니다. 결합기판은 이미 제작되었지요.》

《그렇다.-》

지배인은 손수건을 꺼내서 돌보기를 닦더니 종이장을 다시 훑어 보았다.

《심혈을 기울인게 알리오. 이 한개의 결과식도 뼈를 깎는 고심의 산물일거란 말이요. 학술적인 의의도 물론 있을게고... 좋소! 이렇게 합시다. 몸도 불편한데 이번 대보수에는 관여 안해도 되겠소. 다음 기회에 동무가 요구하는 실험조건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지. 그런 기회는 틀림없이 또 생길거요.》

서인경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다.

리주렬이 물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다니요?》

《아, 이제 또 어차피 압축기를 뜯게 될거란 말이요. 고장이 나면 보수전에 뜯을수도 있고...》

지배인은 주머니칼로 솜씨 있게 사과를 깎았다. 빨간 껍질이 오리오리 말리었다.

리주렬은 그의 태연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지배인동지는... 압축기사고를 피할수 없다고 보십니까?》

《말꼬리를 잡지 마오.》 지배인은 자세를 가다듬으며 위압적으로 소리쳤다. 이런 돌변이야말로 사람을 다루는 그의 특기였다.

서인경은 뇌리를 치는 어떤 예감에 반사적으로 한걸음 나섰다.

《환자를 흥분시키면 안됩니다.》

《이보, 연구사동무. 난 내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요. 그렇소. 압축기사고는 앞으로도 일어 날거요. 난 불가피한 사실을 숨길수도 없거니와 숨기고 싶지도 않소. 우리 사람들은 그런 난관쯤은 각오하고 있소.》

《문제는 사고를 막는것입니다.》

《뭘루, 이 몇줄짜리 공식오루?》

리주렬은 대답이 없었다. 얼굴이 퍽퍽해 졌다.

지배인은 입원실의 좁은 구석을 두벅두벅 오가기 시작하였다.

《동무는 자기 론문이나 무슨 연구제마가 중할테지만 우린 압축기를 하루 바빠 돌려야 하겠단 말이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행군을 하고 있소. 전기도 원료자재도 설비도 부족한 조건에서 간고분투하고 있소. 동무는 여기서 급선무가 뭇지 아오?》

《우선 압축기의 조기진단체제를 세워야 합니다. 실험은 미룰수 없습니다. 지배인동지, 저의 착안과 결심을 기업소 참모회의에서 정식 심의해주길 바랍니다.》

《안되오.》

《그럼 될 때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안된다면 안되는거지 이 동무가 점점... 동무한텐 상급도 없소?》

《과학을 논하는데 상하급이 무슨 관계입니까.》

《여보, 지금이 과학이나 논할 때요? 현실을 톡톡히 보란 말이요. 이 사람 눈이 바로 배긴것 같지 않구만.》

리주렬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두눈에서는 번개가 일었다. 그가 한손으로 침대머리를 짚으며 옷몸을 휘친하는 순간 가슴노리에서 울리는 뼈걱소리를 인경은 온몸으로 느끼며 앓소리를 쳤다. 그는 다급히 환자를 부촉하였다.

《꺾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리주렬은 지그시 어금이를 깨물었다.

지배인의 손에서 사과가 굴러 떨어 졌다.

침대에 누힌 환자의 숨결이 좀 편해 졌지만 서인경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특골이 다시 골절된 것 같았다.

지배인은 경풍이 인듯 떨리는 손으로 뺨뺨해 지는 뒤통미를 문질렀다.

《내가 좀 과한 소리를 한 것 같소. 지금은 과학 중시의 시대요. 하지만 여기 형편을 보우. 어떤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난 처음엔 현장을 잘 몰랐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가늠하던 서인경은 입원실에서 지배인을 내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리주렬은 떠들거리며 말을 이었다.

《...손맥이 풀렸습니다. 말귀도 알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나라의 전도까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현장사람들은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을 믿지 못했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실험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내가 맥을 놓고 쓰러질 것 같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과학자들이 주저앉으면 백년이 가도 뒤떨어 진 처지를 면할 수 없다고... 우리의 힘을 믿고 일어 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모든 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인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날밤을 고열에 떠서 새웠다.

이튿날, 거의 붙었던 특골이 다시 골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상액에 잠긴 렌트젠필름처럼 거명게 질리는 의사앞에서 리주렬은 혼자 걷는 연습을 해보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돌려 대었다.

그러나 서인경은 자기를 변명할 수 없었다. 두 눈에서 피땀 눈물이 뚫어 오르자 의사를 위로하던 환자는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오후에 지배인이 또 찾아 왔다. 단순히 사과를 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뒤에 참모회의와 같은 것이 편상되었다.

그러나 인경은 서리찬 기운을 풍기며 그를 문밖에서 돌려 보냈다.

지배인은 구내길로 멀어 저 갔다. 가로수에 부딪칠 번 한 그는 멍하니 우뚝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인경은 한숨을 지으며 자기가 전사해 두었던 휴대용 컴퓨터에서 유연자기원관을 뽑고 수학식을 적은 종이장들을 간중그러 가지고 지배인에게로 달려 갔다.

다음날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다. 새로 깎아 맞춘 압축기부속들의 진동과 균열이 가고 마모된 부속들이 내는 진동을 수감하여 컴퓨터에 기억시키는 한편 그 차이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세워진 수학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소의 기사들이 프로그램작업을 시작할 준

비를 서둘렀다.

백성학기사와 짧은 기사들이 번갈아 병원으로 들이닥쳐서 환자면회를 요구하였다. 밀려 드는 파도를 두손으로 막는 격이라고 원장은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담당의사라는 관문은 뚫지 못하였다. 한번은 인철이가 누이를 만나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환자에게 글썽지를 전하려다가 쫓겨 난 일도 있었다.

환자는 의사의 눈물을 본 뒤로는 공손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의 심전도곡선은 시시각각으로 불안해 졌다. 그 어떤 한계점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인철이의 말처럼 이런 안정이 그의 심장을 끝내 파열시킬 것만 같았다.

서인경은 절망에 빠졌다.

리주렬이 마침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의사선생, 위급한 상황이라면 부상병을 일으켜 세워야지요. 누워서 포로가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참호를 차지하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군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러 주시니 고맙군요. 하지만 환자가 군의자격을 주는 건 아니예요.》

기사와과의 짧은 면회가 허락되었다. 이것은 의사의 깊은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압축기의 안전변을 약간 열어 놓은 셈이었다.

5

라보압축기의 조립이 완전히 끝났다. 실험때문에 몇 차례나 뜯었다 맞췄다 하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역시 설비에 정통한 기사, 기능공들이 마음 먹고 달라붙으니 예정보다 기일이 단축되었다. 화학기지구내가 활기를 띠었다. 거창한 심장의 고동소리와 함께 배관들과 합성탑들에 혈액과 같은 급류가 소리쳐 흘러 갔다.

라보압축기현장에서 멀지 않은 기술과 사무실에서는 긴장한 2단계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미 수감한 여러가지 진동들을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고 운전공에게 통보하며 급한 경우에는 자체의 결심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복잡한 기능을 전자뇌수-컴퓨터에게 배워 주는 작업이었다. 짜 넣어야 할 프로그램의 양은 방대하였다. 10여명의 짧은 기사들이 동원되었다.

리주렬은 여전히 엄한 감시와 간호소에서 특골이 다시 붙을 때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과 입으로만 프로그램작성과정을 주관하였다.

그는 베개를 높이 베고 고개를 외로 돌려 침대가 가까이 놓인 컴퓨터화면을 보면서 조언을 주거나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미열과 부정맥으로 그의 생각은 가끔 흐려 졌다. 목과 어깨에 신경통까지 겹쳐서 침을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습관처럼 0시에 잠들고 5시에 깨어 났다. 과학원에서 솜옷과 함께 보내온 디스크에서 낫 익은 몇몇 인물들도 찾아 보았다. 그들은 지구의 반대편에서 살고 있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의

컴퓨터주로를 달리는 선수들이었다. 순간만 탄 눈을 팔아도 그들로부터 까마득히 뒤떨어 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손아래 친구 인철이를 잊지 않았다.

인철이는 수리반이 다시 무료한 대기상태로 들어 갔지만 이전처럼 리주렬의 입원실로 선뜻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입원실로는 기사들과 기능공들이 무시로 드나들었는데 기사장과 주프로그래를 짠다는 젊은 기사는 하루에도 두세번씩 면회를 왔다. 그 방에는 전화기까지 끌어 들어 있었다. 여기서 오가는 대화들은 무슨 진폭위상곡선이니 고조파니 모니터니 하는 알수 없는 소리들뿐이라 인철이는 판행성에 간척처럼 얼떨떨해 졌다. 화점을 향해 돌격하는 함성은 인철이와 멀리 떨어져 진 전방에서 들려 오고 있었다. 이제 이들의 기계진동진단체계라는 것이 성공하면 수리반은 대폭 줄어들던가 해체될 것이다. 인철이는 발 밑에서 갈림길을 발견하였다...

하루는 리주렬이가 서인경에게 요즘엔 동생이 시간도 많겠는데 왜 찾아 오지 않는가고 캐물었다.

《그 앤 못 오겠대요. 이제 뭔가 부끄러운가 봐요.》

《찾아 와서 얘기라도 하면 나도 좀 쉴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렬은 가정적분위기가 못내 그리운것 같았다.

《보고 싶은걸...》

《그앤... 모르겠어요...》

인경이가 한숨을 짓자 주렬은 싱긋 웃었다.

《인철인 달라 졌습니다.》

《이전 그대로 서인철이예요.》

《아니지요. 벌써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철이가 다시 찾아 온 날 저녁에 컴퓨터에서는 음악이 울려 나왔다.

노율이 불 타네 해 저무는 백사장애

정답게 흐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

리주렬은 심장의 불안도 고뇌도 잊은듯 노래를 입속으로 따라 불렀다.

고향이 서해안인가고 인철이가 물으니 그는 원산이라고 하였다.

《해 저무는 풍경이 그렇게 좋을가요?》

《그럼... 이 노래처럼 아름답지...》

인철이는 원주필마개를 입에 물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럴 때 보면 꼭 형제간같았다. 인경은 친누이의 정에도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왜 그럴까?!... 그 애를 보는 눈, 애정의 출발점이 다르기때문일까...

리주렬은 자기의 제자에게 이것저것 깨우쳐 주기도 하였다.

《수학엔 비약이란 없어. 대학입학전에 아래계단들을 빠짐없이 밟아 두라구. 보이지 않는 기조를 다지는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건 자기를 이기는 끝 없는 싸움이야. 세계의 첨단에 서려면 욕망이나 천분만 가지고는 부족해.》

《정작 입학시험준비를 하자니 마음이 별래요. 대학을 마다하구 힘든 일판으로 찾아 가는 청년들도 있는데...》

《부끄러운가?》

리주렬이 심각해 지며 물었다.

인철이는 얼굴이 빨개 졌다.

《...역시 일하면서 짬짬이 배우는게 몇몇할거예요.》

《좋은 일이야. 남들을 먼저 생각할줄 알거든. 하지만 잡도리가 틀렸어.》

리주렬의 목소리는 어느덧 격해 졌다.

《인철이는 이제 어느 대학교정이나 연구실로 간다고 생각하나. 나라의 장래운명이 결정되는 전선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다시 일어 서는가 아니면 후진국으로 밀려 나가는가를 판가리하는 대결장이 준비된 청년들을 부르고 있어. 래일에 자기를 바친다는건 말 그대로 부러워 할만한 삶이지... 그때문에 험한 일터의 청년들과 온 나라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인철이가 떠나는 길을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라구. 그러면 먼 길에 동요가 없을거야...》

프로그래밍작업은 예정보다 굵게 진척되어 갔다. 주프로그래미 더 자주 압초에 부딪쳤다.

리주렬은 직접 그 일에 손을 대려고 하였다. 그는 누운채로 휴대용컴퓨터를 침대가녁에 놓고 고개를 돌려 화면을 보면서 한자 두자 톡톡 쳐보곤 하였다. 결에서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그것을 끝내 중지시킨다면 심장의 박동이 더 불안해 질것이다.

서인경은 어느 책에선가 병상에 누운 항일혁명투사가 최후의 기력을 모아 원고지를 쳐들고 연필을 달리는 사진을 본 일이 있었다. 집필은 투사의 삶의 지행점이고 위안이며 행복이었다.

리주렬은 누워서 건반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필사적인 전투였다. 부정맥이 나타날 때마다 두눈의 초점이 흐려 지고 이마에 땀이 솟았다. 손에 자개바람이 일어 건반을 헛질기도 하였다. 화면에서는 《문법이 틀렸습니다!》라는 경고가 자주 튀어 나왔다.

그를 지켜 보는 인경의 귀전에는 동생의 목소리가 되살아 났다.

《속이 타서 못 봐주겠어요. 내가 누이만큼이라도 배웠더라면 연구사선생의 오른팔이 되었을텐데...》

오른팔... 인경은 망설이었다. 자기가 내린 결

심으로 해서 갑자기 의사의 위치로부터 스스로 딱한 처지에 굴러 떨어 질것만 같았다. 벌써부터 자존심이 상했다. 그 생각에만 움해선지 오른팔이 감전된것처럼 저려 나기까지 하였다.

서인경은 퇴근시간이 되자 원탁우에 컴퓨터를 옮기고 마주 앉았다. 어서 부르라고 리주렬을 재촉하니 그는 놀라며 안된다고 우기었다. 비전문가들은 대상지향프로그래밍언어를 잘 모른다는것이 그 이유였다.

《...도리어 방해만 될뿐이지요.》

《혹시 제가 건반을 잘못 짚으면... 의사를 추궁하기가 딱해서 그러는건 아니예요? 이게 진짜 리유지요?》

《하하... 그건 어떻게 압니까?》

《제가 먼저 그때문에 겁을 먹었기때문이에요.》

서인경이 건반을 치게 되자 리주렬은 한결 편한 자세로 누워서 불러 주었다.

인경은 《C++》언어에 익달하지 못한 탓에 입력이 더디었다. 실수도 잦았다. 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날 때는 귀뿌리까지 화끈해 졌다.

1년을 주기로 프로그램들의 체계와 수준이 갱신되고 새로운 개념과 그에 따르는 용어들이 생겼다. 그렇다. 인경의 대학졸업후 2년반이라는 공백은 너무도 큰것이였다.

인경이가 배치되어 왔을 때 기업소 병원에는 컴퓨터가 한대 배당되였다. 원장은 자기네 대학 시절에는 꿈에서만 보던 보물이라고 하면서 새 세대 의사인 인경에게 컴퓨터를 맡기였다. 인경은 짬짬이 건반을 두드리며 《전문가체계》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심전도곡선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짜느라고도 했지만 점차 《일에 몰려》 컴퓨터와 멀어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그 사용자노릇마저 그만두었다. 그러니 부정맥치료분야의 최근 정보에도 어두웠다. 화려한 무늬의 보자기를 씌워 놓은 이 컴퓨터는 전국적인 컴퓨터망에도 가입하지 못하고있었다. 그에게는 오늘이 래일보다 더 가까웠던것이다.

컴퓨터시대에 이런 무식한 의사가 존재한다는것은 무서운 일이다. 환자들의 절망의 호소와 기대앞에 여유 있는 자세로 나서서 그들의 생사를 저울질하기도 하고 서슴없이 처방을 내리며 치료 방향을 결정하던 자기를 돌이켜 본 인경은 몸서리를 쳤다.

리주렬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를 추어 올리기만 했다. 인경이가 길게 늘어 진 흐름도들을 너성다운 채치로 좀 더 간명하게 줄일 때마다 주렬은 희세의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놀라는것이였다.

《웁습니다. 작성자의 재능은 프로그램함축에서 나타나는데이지요.》, 《이 면에선 확실히 너성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과찬은 서인경을 못 견디게 괴롭혔다.

(그래, 난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리주렬의 특골은 다시 아물어 붙기 시작하였다. 일사천리로 몰아 쳐 오던 프로그램작성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것 같았다. 그런데 마감단계에서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고 전반 체계내에서 커다란 빈틈이 생기곤 하였다.

때로 리주렬은 헤어 날 길 없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서인경은 보다 못해 물었다.

《제가 잘못 입력했는가요?》

《...》

《아니면 흐름도에서?...》

주렬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모형화단계로부터 다시 훑기 시작하였다. 예술가가 붓을 멈추고 애초의 구상과 주제를 의심하며 스스로 번민하듯 그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체험하고 있었다. 생각이 형클어 질 때면 그는 단순한것, 초보적인것부터 다시 확정하려고 애를 썼다.

리승기박사가 말년에 손자들의 화학교과서를 펼쳐 놓고 사색을 정리하곤 했다는 이야기를 인경이도 들은적이 있었다.

리주렬은 끝내 출로를 찾지 못한듯 어두운 기색으로 물었다.

《의사들이 청진기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자면 몇년이나 걸려야 합니까?》

언젠가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하였다. 인경은 그때보다 신중한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저의 경우엔 7년간 청진을 배워 오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 힘들수밖에...》 리주렬은 맥이 풀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뇌수에 비하면 유치할 정도로 단순한 컴퓨터에 진단기능을 넣어 주자니...》

그는 자포자기에 빠지고 말았다. 꺼칠한 얼굴은 누렇게 뜨고 검은 입술이 터갈라 졌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의 심장곡선은 다시 하강선을 그을것 같았다.

인경은 속수무책인 자기가 민망스러웠다. 더우기 어정쩡한 대답으로 환자를 더 큰 고뇌에 빠트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연구를 포기하라고 권고하기는 이미 늦었다. 그것은 환자의 심장기능에 대한 장애를 줄것이다. 힘을 가다듬고 일어서라고 의사로서 구령을 쳐야 하였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었다. 그렇다. 이 완강한 사람은 일어 설것이다....

《주렬선생은 중요한걸 잊고 계시요. 압축기의 동음은 유기체인 심장의 박동소리에 비할바 없이 단순하거든요.》

《하긴... 그럴테지요...》

《그 압축기 <심전도>곡선을 보여 주세요.》

서인경은 퍼그나 오연하고 차가운 편이었지만 그만큼 강단이 있었다.

그는 주렬에게 진동곡선들을 비교해 보이면서 그것을 분석하는 뇌수의 기능이 신비한것이 아니라고 아는껏 설명해 주었다. 140억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뇌수의 신경그물망의 기능을 모방한 리론적모형도 나오고 있다는것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뭐라고 했던가요. …》 리주렬은 뇌리에 떠오른 그 어떤 섬광을 포착한듯 느닷없이 물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그렇게 단순치는 않다고 했지요?》

《물론이지요.》

인경은 울렁이는 심정으로 그를 지켜 보았다.

리주렬은 잠시후에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그저 툭, 툭 하는 소리만 들릴 것 같은데요. …》

잠시 주저하던 인경은 목에 걸었던 청진기를 벗겨 자기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들어 보세요.》

침대에 누운 리주렬은 두가닥으로 늘어진 청진기의 줄을 거쳐 쿠궁- 쿠궁- 고막을 치는 요란한 심장의 울림소리를 들으며 새 세계를 발견한 소년처럼 놀라움에 휩싸였다.

《아, 이건… 수천개의 복을 일시에 두드리는것 같군. … 전장에서 북소리가… 돌격으로… 다시 한번 돌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그는 청진기를 내려 놓은 다음에도 여전히 벅찬 환희에 잠겨 있었다. …

자정이 가까운 밤, 인경이가 침대머리에서 그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가늠하는데 리주렬이 나직이 속삭였다.

《지금도 들립니다. … 그 소리가…》

창유리에 초겨울의 진눈까비가 맺돌이치며 날아와 붙었다가 줄줄이 녹아 내리고 있었다.

수천개의 장엄한 타악기소리… 수천만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며 새 세기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공명하는 심장만이 느낄 수 있었다.

서인경이도 분명 그 소리를 들었다. …

6

이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30일 아침, 현장에서 리주렬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왔다. 오전에 컴퓨터모의실험을 하는데 인경의사가 짬을 내어 한번 나와 보라는것이였다.

한달전에 그를 퇴원시켰지만 부정맥에 대한 고려약치료를 계속하느라고 거의 매일 저녁 현장에 나가느라였다. 그런데 석달만에 거치는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눈앞에서 무르익고 있다는것이 잘 믿어 지지 않았다.

인경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마주 달려 오는 인철이를 구내길에서 만났다.

《가끔이 좀 싱거운데… 압축기결에 설치한 컴퓨터에 손바닥결반만한 유연자기원관 몇장을 차례로 꽂아 넣었다 빼냈어요. 15분가량 걸렸을거. 이게 다예요. 지금 주렬선생이 컴퓨터를 조종해 보고 있어요. …》

현장에는 꽃목걸이도 악대도 보이지 않았다. 기세차게 돌아 가는 4천마력타보압축기결에 스무나문명의 사람들이 둘러 서서 컴퓨터화면을 지켜 보고 있었다.

리주렬이 마침내 허리를 펴고 일어 섰다. 그는 머리가 핑 내돌리는지 탁자를 한손으로 짚고 엉거주춤 굳어 저 있었다.

지배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건드렸다.

《어… 어떻소, 성공이요?… 혹시?…》

《성공입니다. 모의실험은 끝났습니다.》

서인경은 후더워 지는 눈곱에 한손을 가져 갔다. 자기의 자그마한 성의와 고민도 저 창조물-전자뇌수에 갇들어 있는것이였다.

그는 달려 가 리주렬연구사를 축하해 주고 싶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떼여 지지 않았다.

리주렬은 추위를 느낀듯 의자등받이에 걸쳐 놓았던 솜옷을 꺼입느라고 한쪽 어깨를 추슬렀다.

운전공들과 수리반원들속에서 터져 나오던 환성은 입술에서 얼어 붙고 말았다.

떡심이 풀린 지배인이 물었다.

《그럼 진짜 실험은 언제 하게 되요?》

《압축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

지배인은 시물시물 웃고 있는 기사장과 젊은 기사들을 돌아 보고 나서야 막혔던 숨을 토했다.

《그러니 진짜 성공이구만 응, 원 사람들!-!》

그는 리주렬의 가슴을 툭 때렸다.

인경은 그 특골이 또 부러져 나가는줄 알았다.

이때처럼 지배인이 밍고 둔해 보인적이 없었다.

박승규가 껄껄 웃으며 《원체 의문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요. 자- 뭇들 하구 있소?》 하고 소리쳤다.

사나이들이 달려 들어 리주렬을 공중에 올리던 지였다.

《그건 위험해요!》

인경은 소리치며 달려 나가다가 못시선이 쏠려 자 차가운 대리석 같은 얼굴에 옅은 홍조가 떠올랐다.

《주렬선생은 아직 환자예요. … 오후에 병원으로 오세요.》

그는 조용히 돌아 서서 사람들사이를 빠져 나갔다.

리주렬은 오후에 나타났다. 의사실문턱을 성큼 넘어 들어 오는 다부진 체구를 보니 환자 같지 않았다. 이전보다 신색이 펴 나아 졌지만 꺼진 눈확과 조갈이 든 입술에는 아직도 병조가 떠돌았다. 그는 의사의 파고 드는 눈길을 피하려느듯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인경선생이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다.

《인사를 받기는 아직 일러요.》

서인경은 그를 쪽걸상에 앉히고 심전계의 수갑 부를 두손목에 채웠다. 리주렬은 종신행을 인도 받은 피고처럼 낯빛이 변하더니 이어 선웃음을 쳤다.

《이젠 아마 정상일겁니다.》

《곡선을 주의해 보세요.》

《저런... 부정맥이 확실히 드물게 나타나는걸... 이걸 좋은 징조지요?》

《다시 입원해야겠어요. 이젠 마음도 안정되었으니 치료효과가 있을거예요.》

《인경선생, 난 떠나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서인경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었다. -새 파제가 기다린다. ... 긴급용무다... 시간이 촉박하다...

《허락할수 없어요.》

《평성에 더 큰 병원이 있습니다.》

파연 컴퓨터학자다운 대사였다.

인경은 억이 막혔다.

입원초기부터 이런 엉터리로 의사를 속이고 구슬려 왔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속에 없는 소리를 하는것은... 너무나 하였다. 너무나 심하였다.

썰이고 썰인 피로와 애달픔과 노여움이 굳은 지각밀의 용암처럼 서서히 뒤끓으며 분화구를 찾고있었다.

그러나 인경은 제때에 자제하였다.

너무하다니... 그때는 이해하고 용서하였는데 지금은 이해할수 없다? 어째서?...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아니.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 진것은 없었다.

하지만 역시 노엽고 슬펐다.

더 큰 병원으로 간다!

이 허울 좋은 말을 탓할수도 부정할수도 없었다. 인생에는 이런 기묘한 경우도 있었다.

(더우기 나야 한심한 의사가 아닌가. 환자에게는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사가 평성의학대학병원앞으로 쏘주는 파송증을 받아 전 리주렬이가 자기도 뭔가 허전한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사라진 뒤 의사실은 정지된 화면처럼 조용하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인경선생이요? 나 지배인이요. 거기에 연구사 선생이 가지 않았소?》

《왔었습니다...》

《병원에 단단히 붙잡아 두오. 아무리 봐야 인차 떠나갈 기색이더란 말이요.》

《...파송증을 쏘주었습니다.》

《아니, 뭐라구?! ... 아니아니, 됐소... 지금 내 방에 들어 쏘소...》

지배인이 경황없이 송수화기를 든채 리주렬을 향해 야단치는 소리가 인경에게 멀리 들려 왔다.

《안되오, 안돼! 이렇게 훌쩍 떠나가면 우리 일

골은 어떻게 되오. 덩치 큰 기업소 체면도 봐줘야지. 설두 같이 쇠구 치료두 더 받구... 거 옛날에두 <금의환향>이란 말이 있잖았소. 하하... 뭘, 뭐라구? ... 또 저런다니... 그게 사실이요?!... 그럼 내 차를 타고 가지... 아니 오늘밤 렬차로? 원 고집두... 내 두손을 들었더니까. 이번에 기업소 심장병도 고쳤지만 십년 묵은 내 고질병도 똑 떨어 지고 말았소. 지금 우리 화학쟁이들이 일부 구역의 합성탑내부반응과정을 컴퓨터로 조종할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소. 그 <일부 구역>이나 가지고 우물거려서야 강성대국을 언제 건설하겠소. 아직 통이 작거든, 작아... 그런데 이보우, 주렬선생은 여기서 얻은 병을 종시 고치지 못하고...

인경은 송수화기를 놓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바래주어야 한다. 크나 적으나 고락을 함께 나눈 사이가 아닌가. 언짢을것이 무엇인가. 의사이기때문에? ... 완치시켜 보내지 못하는 그것때문에?...

물론 저녁에 역에 나가 그를 바래워 줄것이다. 집에서 조제하던 산사와 오미자약들을 꾸려보내면서 평성에 도착하면 병원에 꼭 찾아 가라고 다짐도 둘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릴가!...

서인경은 창문결의 컴퓨터와 마주 섰다. 남은것은 한달전에 썩우개를 벗긴 이 전자뇌수라는 벗뿐이었다. 전원을 넣자 화면이 밝아 졌다.

《체제점검중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문을 기다립니다...》

경쾌한 음악이 울리면서 화면복판에 깜박이가 나타나 외눈으로 인경을 뵈히 쳐다 보았다.

말씀하세요

도와 드려요

상심 마세요

《아니, 넌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걸...》

그는 홀로 퇴근길에 올랐다.

인철이는 수학문제를 푸느라고 이 시간에 더는 누이를 찾지 않았다. 그 애는 자기를 깨달았다.

그럼 나는?... 현장에서 연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안정을 잃고 고심하는 그를 자못 가엾게 여기기까지 했었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안정을 모르는 그 생활속에 안정이 있다는걸 그때는 알지 못했지. 리주렬연구사는 나를 나보다 먼저 보았을거야. 높은데서는 아래가 뻥히 내려다 보 이런만 그는 시대에 뒤진줄도 모르고 제 멋에 겨워 사는 이 희극적인 존재를 언제나 너그럽게 보아주었지. 의사라는 직분과 철부지인격을 존중해주었어. 나는 그런걸 바라지 않았건만... 아니, 그걸 바랐했지...

로송들이 늘어 선 바다가에 접어 들었을 때는 어슬턱이었다. 설달의 찬바람이 눈 덮인 백사장 에 뽀얀 비말을 휘뿌렸다. 멀리 서쪽 산마루에서

노을이 꺼지자 동해 수평선위에 창백한 달이 떠올랐다.

땅거미가 깃드는 저편 소나무들사이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 트렁크를 들었다.

인경의 심장은 금시 멎을듯... 이어 수천개의 타악기소리처럼 커다란 울림으로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그 울림속에서 그는 자기가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는것을 알았다. 드물게 찾아 오는 수집음이 그를 휩쌌다.

언제 보나 부쩍이 좋던 리주렬이도 어쩐지 주눅이 든 소리로 말을 건넸다.

《역전으로 나가던 길에... 함께 걷고 싶어서...》
《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어 갔다.

리주렬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참 이상하지요. 오랜 환자들이 병원에 정 든다고 하는 소리를 난 믿지 않았었는데... 정작 입원해 보니...》

인경은 기슭으로 편이어 밀려 드는 흰 물결들을 바라보았다.

《그간 의사를 가끔 숙여 왔지요?》

《네가요?! 하하... 숙였지요. 그러잖아두 언제면 내놓구 용서를 빌가 하구 조마조마해서 의사선생 눈치만 보던참이었는데...》

《저는 벌써 용서했어요.》

인경은 어스름속에서 방긋 웃었다.

리주렬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런걸 난 또... 아 그 눈이 얼마나 무섭던지... 아니 무서웠던게 아니라... 뭐라고 할지...》

석달만에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터놓고 말하는 기회가 찾아 온것 같았다.

《한가지 물어도 좋을까요?》

인경은 명랑해 졌다.

《담당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퍼그나 측은하게 보였겠지요?》

《인경선생말입니까? 그럴리가...》

《전망이 없는 의사였지요. 자기를 모르는 못난이라고 할가...》

묻고 보니 그 의미가 엄청나게 빗나간것 같았다. 술발은 이미 어둑어둑해 졌으나 포근한 털것에 반쯤 가리운 처녀의 뺨은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아니... 묻고 싶었던건 그게 아니었어요...》

《...》

리주렬은 숨이 찬듯 소나무줄기에 기대어 섰다. 검푸른 나무아지사이로 희미한 못별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정적이 흘렀다.

《인경선생은... 훌륭합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도리를 저었다.

《이젠 저를 속일수 없어요.》

《난... 그저... 진심을...》

리주렬이 말을 더듬기까지 하였다.

인경은 서둘렀다.

《우리 사이엔 진심이란 없었어요. 지금도...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신건 고마워요...》

그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며 백사장길을 걸어 갔다...

배웅 나왔던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인경은 역전에 서 있었다. 장갑을 벗은 두손으로 꼭 감싸 쥔 자그마한 유연자기원판에는 떠난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심장파형을 해석하는데 시사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렬차는 멀리 도래굽이 차굴부근에서 기적을 울렸다. 그 여운은 흰눈 깔린 밤의 대기속으로 차츰 사라져 갔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X

서인경은 이듬해 4월초에 편지를 받았다. 리주렬은 정상곡선을 그린 심전도그래프용지를 보냈다.

과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 드린 《기계진동진단체계》를 복창과 성진의 대형설비들과 《우암산》호와 같은 짐배들에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지금 군론분야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있었다.

《... 저녁녘에는 컴퓨터에서 해 저무는 백사장의 노래가 울리고 있습니다. 맑은 래일을 알리는 금빛노을을 바라봅니다. 그때면 가까운 사람과 함께 그 아름다움에 잠기고 싶어 집니다...》

서인경은 편지를 안고 바다가로 걸어 갔다. 거룩한 소나무아지들사이로 불 붙는 서쪽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불 타네 해 저무는 백사장에

정답게 흐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아, 살기 좋은 바다가

금물결에 은물결에 실려

행복이 흐르네

...

노을은 이어 스러졌지만 처녀는 노을을 보고 있었다.

바로 이곳이었다. 인경은 그의 고백이 이해되었다. 그때 리주렬연구사는 래일의 처녀를 보았던것이다...

그 나이를 합쳐 안고

김승남

내 나이 마흔다섯
그때 그분의 그 나이구나
아니 내 감히 그 나이와
비교한단 말이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온 나이는
행복한 마흔다섯
그대가 남녘의 감방에서 산 나이는
처절한 고통으로 이어 진 나이

내가 복동이로
만사람의 축복속에 태어 나던 그 해
그대는 성스러운 조국통일성전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한채
교도감방소로 끌려 갔겠지

내가 어머니 손목에 이끌려
첫 걸음마 땀 때
그대는 1㎡도 못되는 감방에서
발목을 꺾이웠지

내가 햇빛 밝은 교실에서
우리 글을 배울 때
그대는 뼈와 살점 문질러 대는 고문대에서
전향문 세 글자를 백지화하며
세상에 더러운 전향이란 글자를 불 태워 버렸지

고문도 죽음도 곳곳이 이겨 내며

한살을 먹는데 천년보다 더 지루한
고통으로 이어 간 그 나이가 있어
부강한 내 조국이 그리도 자랑스럽고
사랑으로 먹은 내 나이가 몇몇하지 않은가

아 총칼로도 베여 낼수 없고
교수대의 올라미로도 졸라 땀수 없던 나이
세월도 고이 아껴
인간세상을 놀래웠구나

만약 그에게서 그 나이를 똑 떼면
그 인생이 보석 같이 빛날수 있었으랴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이를 이었다면
그대는 그 모진 전향에 견디지 못했으리

오, 제 한몸은 이지러지고 만신창이 되어도
때 한점 묻지 않고 조국에 바친 나이
그 고귀한 참값이 있어
우리 장군님 그 한살한살을 귀중히 다 헤아려
세계의 영웅으로 내세우지 않았던가

장군님 아시고 조국이 잊지 못하는
영생의 그 나이를
나도 한살한살 값 높이 이으리라
그대의 그 나이를 다 합쳐 안고
내 언제나 그 나이를 먹으며 살리라
마흔여섯... 마흔일곱... 백살을 산다 해도

가사

통일꽃바구니

고정철

이 땅에 피어 난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함께 꽃바구니 곱게 엮읍시다
흰눈 같은 목란꽃 향기로운 동백꽃
송이송이 골라서 곱게 엮읍시다
아 통일꽃바구니
내 나라의 꽃으로 엮어 갑시다

백두의 꽃으로 한나의 꽃으로
삼천리를 하나로 곱게 엮읍시다
북녘의 로동자도 남녘의 대학생도

우리 겨레 한 마음 곱게 엮읍시다
아 통일꽃바구니
내 나라의 꽃으로 엮어 갑시다

통일의 원수들 우리 앞길 막아도
변치 않을 통일맹세 굳게 엮읍시다
자주로 꽃 피는 새 세상 안아 올제
밝은 태양 아래서 만복을 누립시다
아 통일꽃바구니
내 나라의 꽃으로 엮어 갑시다

후사경

정영종

1

사랑은 아픔이기도 하다고들 한다. 과연 그럴는지... 명백한것은 나의 경우 그 사랑이 아픔으로부터 시작된것만은 틀림 없다는것이다.

그 처녀를 처음 만난것은 지난 초겨울 어느날이었다. 그날 나는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를 싣고 소미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 갔었다. 자강도사람들의 투쟁기풍을 본 받아 군에서 자체로 건설하는 중형발전소였다. 거기서는 며칠전 결기모임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기념일까지 공사를 끝낼 결의를 다졌다고 하였다.

공교롭게도 간밤에 예보에도 없던 첫눈이 내렸다. 하여 우리는 창고속에 건사해 두었던 바퀴사슬을 꺼내 씌운다, 대용연료로 쓰는 숯을 좋은것으로 골라 싣는다 하며 길차비를 고쳐 하느라고 오후에야 겨우 떠날수 있었다. 그러다나니 미끄러운 눈길 50여리를 달리는 사이 도중에서 그만 해거름을 당하고 말았다.

아직도 앞에는 구배가 몹시 심한 소미령이 하얀 눈을 떠인채 하늘을 치밀을듯 솟아 있었다.

《이거 이쯤에서 자고 래일 아침 넘어 가는게 아니요? 차를 아주 결단내기전에, 응?!》

호송책임자로 따라 나선 사업소 후방과장이 햇빛의 마지막잔광에 눈 부시게 반짝거리는 령마루를 불안스레 치며 보며 던진 말이였다.

그때 나는 그것이 어떤 불신같이 여겨 저 통명스럽게 내뻗었다.

《내친 걸음인데... 그냥 가봐야지요 뭐.》

말해 놓고 보니 마음이 언짢아 졌다. 제길, 제대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가봐야지요.》라는 식의 어정쩡한 사민투가 입에 오르다니!

후방과장의 우려가 공연한것은 아니였다. 령길이 예상외로 가파로와 자동차는 처음부터 앙-앙-아츠러운 비명을 내질렀고 얼마후에는 방열기속의 물이 야단스레 설설 끓어 넘쳤다. 신고끝에 간신히 령정점에 올라 섰을 때에는 조향륜을 잡은 내 손바닥이 땀으로 질벅해 졌다.

《허허, 초행길이겠는데 용케 넘었군. 역시!...》

그동안 후방과장은 나보다 더 원심을 써온듯 대머리 진 이마에 송알송알 내뿜는 땀을 손수건으로 꺾꺾 찍어 내며 후-긴숨을 내뿐었다. 그러다가 내 팔굽을 툭 건드렸다.

《저게 웬 사람이요?》

나 역시 그쪽을 여겨 보던 참이였다. 이미 발아래의 심연 같은 골짜기들은 아주 컴컴해 지고

령머리만이 스러지는 락조의 피빛 후광에 싸여 불 붙듯 했는데 그 《불길》속에서 어떤 사람이 얼굴을 찌른채 외롭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발치에 덩구는 곡괭이와 삽, 길옆에 두둑이 쌓인 돌무지며 길복판의 파헤친 거뭇거뭇한 자리들로 미루어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고 있었던 모양이였다.

차소리에 황황히 눈어름을 닦으며 일어 서는것을 보니 녀자였다. 그 모습은 곧 차창뒤로 사라졌다.

《도로관리원 같은데 우는게 아니요?》

후방과장이 의아쩍게 물었다. 나는 후사경에 시선을 박았다. 어둠이 서리는 한적한 산속령길에서 혼자 일하는것도, 눈물을 짜고 있는듯 한것도 다 심상치 않게 여겨 진때문이였다.

그때였다. 이미 먼 뒤쪽으로 멀어 지며 오도카니 서 있던 녀인이 불시에 한손을 흔들며 차를 따라 냅다 달려 오기 시작했다. 그의 등뒤에서 반쯤 풀어 저 내린 파란 목수건이 땀기처럼 펄럭였다.

《저런, 같이 가자는것 같소!》

후방과장도 줄곧 뒤창으로 그 녀인을 지켜 보고 있던듯 다급히 부르짖었다. 내가 차를 세우자 그는 벌컥 차문을 열고 발디디개에 한발을 올려놓은채 적재함뒤로 목을 길게 빼들었다.

《천천히 오시우. 달아나진 않을테니...》

드디어 숨차서 할썩거리는 녀인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 왔다.

《저... 미안해요. 뭘 꼭 알고 싶어서...》

녀인의 모습이 다시 후사경속에 뛰여 든것은 그 순간이였다. 녀인은 발돋움하여 적재함우를 살펴보고 있었다. 누비솜웃차림임에도 별스레 가냘파보이는 몸매, 땀에 젖은 이마의 머리칼을 재빨리 쓸어 넘기는 하얀 손회목, 그 다음 《아이, 진짜 대용연료차였네!》하는 탄성과 함께 언제 울었나싶게 방싯 드러내 보이는 가쁜한 흰 이...

나는 일순 호흡을 멈추었다. 녀인의 얼굴을 더 잘 보려고 후사경에 뻗었던 손도 허공에서 굳어 졌다. 심장 한복판을 쿵 찌르는것 같은 저릿한 아픔이 전율처럼 온몸을 누볐다.

(이럴수 없어. 그 동무가 살아서 여기에 나타날 수는! 하지만 저 웃음은?... 이럴수가 있는가. 과연 이럴수가?...)

관자노리에서 맹렬히 풀떡거리는 피줄의 요동 때문에 그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가 내 귀에는 하나도 들려 오지 않았다. 무슨 일로인지 별로 흡

죽해하는 후방과장의 얼굴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야 나는 부르르 몸을 떨며 고개를 돌렸다.

《인수동무, 이 처녀동무가 직접 길안내를 하겠다누만. 발전소돌격대원인데 이제부터 길이 까다롭다오. 난 적재함에 타겠소... 자, 그 공구들은 인주시오.》

레절대로라면 추운데 일 없겠느냐는 소리라도 건네야 옳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뚱깃거리며 적재함에 기어 오르는 후방과장은 보지도 않고 밖에서 울리는, 눈을 터느라고 발을 탁탁 구르는 소리에 온 신경을 도사렸다.

마침내 처녀가 운전칸에 올라 왔다. 아마 그때 내 얼굴이 무섭게 해쑈하니 굳어 저 있는 모양이었다. 목에서 수건을 풀어 내리며 《수고하셨어요!》하고 어쭈게 속삭이던 처녀의 말꼬리가 얼어 붙듯 입안으로 잦아 들었다.

어떻게 변속을 하고 제동답판을 놓았던지... 차는 상사말처럼 경충 뽐박질하여 앞으로 내달았다.

나는 전조등불줄기가 열심히 어루어듬는 길설의 눈 덮인 벼랑턱이며 거무스레한 참나무밑둥들이며를 노려 보며 이를 악물었다. 무엇때문에 그리도 놀랐던가. 전혀 생소한 이 처녀를 두고! ... 숨작업복차림과는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희맑은 살갗의 얼굴에 지성미가 깃든듯한 넓은 이마, 미심쩍게 쪼프려 진 주의 깊은 눈매, 너무도 판이한 모습이다. 하지만 좀전 웃을 때엔 마치 내심에 감추어 진 어떤 등불이 반짝 켜진듯 그 진중한 얼굴이며 눈매가 어린애다운 천진한 생기로 환히 빛났었지, 그날의 이 처녀병사처럼!

에달품이 가슴을 허비었다. 굳이 상기하지 않으려고 모대기는, 그러면서도 때없이 아픔과 함께 뇌리속에 뛰여 들곤 하는 그 비온 뒤끝의 깨끗한 도로며 진탕을 휘뿌리던 차의 헛바퀴질 그리고 《자, 또요!-》 하던 랑랑한 목소리... 나는 사납게 머리를 흔들었다.

(잊자. 잊어야 해!...)

그 찰나 꽤 오래 계속된 침묵이 고통스러웠던지 처녀가 《저, 운전사동지.》 하고 머뭇머뭇 입을 떼었다.

《만약에... 이 차에 만집을 실었대도 소미령을 넘을수 있어요? 자갈 같은걸 가득 싣고도요?》

《?!...》

머리위의 거울속에서 계기등빛에 푸릿하게 드러난 처녀가 내 옆얼굴을 긴장하게 지켜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처녀의 애원에 가까운 그 타는듯한 목소리가 나를 놀래웠다. 나의 대답에 어떤 운명을 걸기라도 한듯한... 그렇다면 처녀는 그것을 알고저 우리 차를 기를 쓰고 쫓아 왔었는가?

《꼭 대용연료차라야 한다면... 쉽진 않겠지만 방도가 없는것도 아니요.》 《그래요?!》

폭발처럼 터져 나온 환성, 나는 흠칠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앞가슴에 두손을 모아 잡은 처녀가 나를 거의 황홀한 눈길로 쳐다보는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후사정속에서 보여 주었던 그 인상적인 미소가 춤 추듯 번져 지고 있었다.

《그 방도를 좀 대주지 않겠어요? 아니, 운전사동지가 우리 돌격대에 오시면 더 멋 있겠는데... 그러면 줄장부 같은 우리 운전사들이 아예 납작해질거예요. 어때요. 예?!》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쿵 쑈서 났다. 이 처녀가 자기의 미소때문에 류다른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 보게 된다면!...

《용서하세요.》 내 입술이 괴롭게 비틀리는것을 띠어 본듯 처녀가 급히 사죄하였다. 《제가 괜한 소릴 꺼냈구만요. 제 생각만 하면서.》

《허허... 뭘 그러우. 꼭지를 뺏으면야 끝까지 다 털어 놓아야지. 필요하다면 울수도 있지 않소.》

처녀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운전사동진 제대군인이고 또... 무척 좋은분 같아 보이지만... 안될거예요.》
때마침 갈림길이 나졌다. 그것은 곧 골재장이며 언제기초장, 돌격대숙소 등으로 복잡하게 갈래 지어 졌다. 그통에 이야기는 더 이어 지지 못했다.

마침내 지휘부앞에 닿았을 때 나는 어떤 야릇한 충동에 떠밀려 처녀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동무 이름을 알고 싶는데... 대주겠소?》

처녀는 흠칠 살눈섭을 치켜 올렸다. 그다음 차소리에 사무실에서 뛰여 나오는 사람들쪽을 초조하게 결눈질하더니 재빨리 속삭였다.

《그 방도를 대주지요?! 그럴 생각이면 설계본과의 윤채영을 찾아 주세요. 꼭!... 부탁해요!》

덤벼 치며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처녀를 나는 어리둥절해서 지켜 보았다. 처녀는 무슨 일로인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하는것이였다. 무엇때문에?...

2

그 의혹은 얼마후 우연히 풀렸다. 발단은 돌격대에서 차려 준 꽤 푸짐한 식탁앞에서 우리 후방과장이 어쩌서 령길보수에 연약한 처녀 하나를 붙였는가고 물은데서 시작되였다. 그 소리에 누군가 허거프게 중얼거렸다.

《채영이가 오늘도 또 <속죄작업>을 한게군.》

귀에 선 《속죄작업》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덩둘해 하자 그는 발전소위치를 소미령넘어로 옮기게 된 사연을 아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온 군이 관심하는 발전소건설이여서 널리 소문났던것이다.

처음 설계자들은 소미령초입에 언제위치를 정했었다. 언제를 별로 높이지 않고도 필요한 량의 전기를 얻을수 있으며 수송거리도 짧아 유리했

던것이다. 대신 그것은 십여정보의 부침팡이 침수되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복잡한 돈의끝에 그만한 희생은 피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기울어 졌을 무렵 설계조수처녀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섰다. 처녀는 소미천줄기를 거둬거둬 오르내린 끝에 찾아 낸 현재 위치의 언제기초설계안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절절히 호소했다. 고향땅의 한 부분이 물속으로 사라지는데 여러분은 왜 가슴 아파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땀을 좀 더 흘리며 고생하더라도 그 땅은 꼭 살려야 한다고... 처음 위치보다 언제를 많이 높여야 하지만 거기에 드는 공사자재는 한번의 투하로 끝나도 땅만은 대를 두고 계속 많은 쌀을 안겨 주게 될 귀중한 재부가 아니냐는것이였다.

그 사실은 곧 군당에 반영되였고 전체 돌격대원들의 호응과 지지속에 처녀의 안이 채택되였다.

《...그 처녀가 바로 <속죄작업>한다는 그 운채영이요. 현대 연유사정이 점점 긴장해 지고 겨울까지 닥쳐 오니 문제가 복잡해 졌소. 장거리수송에만 겨우 기름이 공급되었으니까. 대용연료차로 개조하고들 있지만 소미령이 하도 가파로와 별로 은을 못내고 있소. 할수 없이 사람들이 등짐으로 혼석 같은걸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는 처녀의 마음이 편할리 있소? 그때부터 채영인 매일 저녁 몰래 소미령에 올라 가 폭풍이질을 한다오. 령을 다문 1m 라도 낮추어 대용연료차들이 뛰게 해보자는건데... 허허, 그게 될 일이요. 아무리 말려도 안듣누만. 며칠전에 결기모임까지 했으니 더 속이 탔겠지.》

그날밤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오래동안 궁싹거렸다. 이제는 어둠 서린 령길에서 홀로 폭풍이질하다 말고 눈물을 쏟은 처녀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정의를롭던 처녀가 오죽 피로왔으면 그 어마어마한 령을 《낮춘다》는따위의 황당한 노릇을 시작했으랴. 정말 그 처녀 운채영은 돌격대원들앞에서 자기의 발기를 두고 《속죄》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어떤 경망한 녀석이 제나름으로 규정한 속된 비유였을까?... 어떤 분한 생각이 나를 휘감았다.

웃는 모양이 그리도 방불한 두 처녀, 하지만 그 미소가 내 가슴속에 굴절되어 일으키는 여운은 너무도 판이하거나... 어쩔수 없이 나는 더듬기에도 숨 가쁜 그날의 그 산협길로 이끌려 갔다.

...사단운수중대 운전사였던 나는 그날 기동훈련을 떠난 한 령대에 후방물자를 실어다 주려고 길을 떠났다. 운전칸에는 그 령대의 통신병처녀가 갓 수리한 이동교환기를 안고 올랐다. 자그마한 몸매에 교언저리에는 주근깨들이 알릴듯 말듯 박힌 수집을 잘 타는 상급병사였다.

처녀병사는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데다가

얼굴이 검실검실하고 날카로운 코날을 가진 네용모에 위압되었는지 아니면 관등급상 상급인 내앞에서 레절을 지키느라 그러는지 무릎우에 얹은 교환기를 꼭 그러 안고 조심스레 앉아 앞만 긴장하게 보고 있었다. 무료감을 덜려고 이것저것 물었으나 처녀는 그저 소심한 미소와 함께 외마디 대답을 내뱉고는 곧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곤 했다. 그렇게 따분하게 한참을 달리자 나는 짜증이 났다. 아침녘에 내린 소나기로 깨끗이 씻긴 도로며 차창으로 흘러 드는 신선한 공기며가 환기시켜 주던 흥겨운 기분이 잡쳐 진것은 물론이였다. 운전사들에게 있어서 침묵을 즐기는 사색형의 길동무처럼 고약스러운 상대는 없다. 지금처럼 인적 드문 지루한 도로를 달릴 때면 더구나 눈의 신경이 해이되어 절로 졸음이 오므로 성가실 정도의 수다쟁이가 훨씬 반가운 법이다.

끝내 나는 덜컥 차를 세우고 역증을 티르켰다.

《이거야 답답해서... 동문 병어리요, 뭐요?》

처녀병사는 와들 몸을 웅송그리며 겁 먹은 눈길을 내게 보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사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지. 난 지난밤에도 꼬박 새며 뛰었던 말이지!》

처녀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 지더니 아주 익은 고추처럼 물들었다. 그러자 희미한 주근깨들이 자기 존재를 시위하듯 또렷이 살아 올랐다.

《뭘 말해알지 몰라 그래요.》 마침내 그가 기여들어 가는 소리로 속삭였다. 《하사동지가 좀... 어려워 봐서...》

《그건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요?》

《저... 전번에 사단운수중대가 예술소품공연을 할 때... 전 하사동지를 보았어요. 나팔도 멋있게 불고... 시도 잘 읊고... 그런데 전 아무 재간도 없어요.》

북받치는 웃음을 나는 간신히 억눌렀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는 매우 어리석었던듯 싶다. 이 희한하게 순진한 고백의 의미가 내게 반했다는 증거로 여겨 저 흡족해 졌었으니말이다. 하긴 자신을 두고 사내싸게 잘 생겼다고 은근히 자부해 온 나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래서 차를 다시 물기 시작하자 나는 사뭇 의젓하게 처신하려고 애쓰며 말을 붙였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오?》

《...》

《아, 그렇지. 난 리인수요. 동문?》

《전래회예요.》 처녀가 처음으로 나를 말끄러미 치며 보며 나직이 태를 부려 속삭였다. 《제 이름이... 밍지요, 예?!》

《아니, 큰 기쁨이란 뜻인데 난 좋구만.》

《어마- 정말이예요?!》

그다음부터 이야기는 술술 풀려 나는 처녀병사의 고향이 서해기슭이며 거기엔 교육자인 엄격한

부모가 있다는것, 간호원이 되고 싶었었는데 통
신병이 되고 말았다는 등의 자질구레한 사말사들
까지 죄다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운전사일반의
그 방심한 즉흥적호기심으로 이야기를 유도해
나갔지만 처녀는 한마디 할 때마다 살짝 얼굴을
붉히는 품이 그 때 대답마다에 어떤 류다른 의미
를 부여하는듯 싶었다.

일은 런대가 밤새 새로 닭은 산협의 기동로에
서 벌여 졌다. 포차바퀴자욱들이 어지럽게 찍혀
진 그 시뻘건 진흙길이 아침녘의 소나기로 어찌
나 미끌거리는지 차가 산중턱어름에서 계속 헛바
퀴질할뿐 도무지 취소되지 못한것이였다.

땀투성이가 되어 바퀴밑을 삼으로 제끼고 가속
답판을 연신 밟아 대고 하던 끝에 나는 그만 차
문을 탕! 열어 제끼고 밖으로 뛰쳐 나가고 말았
다.

《제길, 아무래도 한 뒤시간 땅이 마른 다음 떠
나야 할가 보오. 동무도 내려 땀을 들이오.》

처녀병사 역시 삽질을 거들다 보니 함땀 땀에
젖은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미간을 찡프린채 눈
을 깜박거리고 있더니 불쑥 나를 불렀다.

《하사동지, 방도가 있을것 같아요. 가속답판을
밟을 때마다 차가 흠칠흠칠 나가다간 도로 미끄
러지는데... 그럴 때 삼각고임목을 고여 주면 조
금씩 조금씩 전진할게 아니나요.》

나는 그를 멍하니 쳐다 보다가 픽 코웃음을 쳤
다.

《너자들이란! 기껏 궁리했다는게 그런 세월 없
는 놀음이요?》

《그래도 가만 있겠어요? 한번 해보지요!》

《됐소!》

나는 길옆 가둑나무그늘밑에 벌렁 드러누웠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제라도 런대에
달려 가 병사들을 불러 올가? 아니, 너무 멀어,
그럼 임무 받은 시간은?...

오래동안 기척이 없는것이 이상해서 나는 슬며
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다가 심각해서 나를 굽
어 보는 처녀의 눈과 딱 마주쳤다. 나는 얼른 시
선을 돌려 버렸다.

그 순간 처녀의 나직한 속삭임이 울렸다.

《하사동지, 꼭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

《그런 새가 있어요. 우리 고장 바다가에 사는
데 어찌나 몸집이 크고 무거운지 땅에서 그저 날
지는 못해요. 그래서 벼랑에만 둥지를 틀고 사는
데 어찌다 땅에 내려 앉기라도 하면 한걸음 한걸
음 똥깃거리며 벼랑을 툫아 오르지요. 힘이 진하
면 깃으로 부리로 바위너설을 쫓고 허비면서까
지... 어떤 땐 깃이 온통 피에 젖을 때도 있답니
다. 그렇게 한치한치 벼랑꼭대기에 오르면 드디
여 아래로 푹 떨어 지면서 날개를 활짝 펼치지요.
그렇게 나는걸... 전 봤어요!》

나는 잠 든채 하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가슴속
에서는 이상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다. 아마
첫 순간의 감정은 창피스러움이었을것이다. 좁전
까지만도 모든 점에서 우월하던 내가 학생처럼
《교양》 받고 있다는... 그러나 눈앞을 꼭 채우며
떠오르는, 한치한치 꾸준히 벼랑을 툫는 꼭새의
비장한 형상에 마음은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
과연 무엇이 꼭새로 하여금 그 힘겨운 날음을 그
리도 소원토록 떠미는것일까?...

끝내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제갑
담 운전칸에 뛰어 오르며 볼 멘 소리를 질렀다.

《동무가 진탕벼락을 들을까봐 그랬더니... 좋을
대로 하오!》

처녀는 두눈을 빛내이며 수집게 방긋 웃었다.

《고마와요, 하사동지!》

차는 다시 용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입술을
감쳐 둔채 후사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속
에 비추인, 바퀴가 헛돌이하며 휘뿌리는 진탕을
고스란히 들쓰면서도 열심히 삼각고임목을 고여
나가는 처녀의 모습이 자석처럼 끌어 당겨서였
다.

처녀병사가 머리를 쳐들며 환성을 올렸다.

《보세요! 한뿔은 더 나갔어요. 자 또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처녀병사는 활짝 웃
으며 고개를 살래살래 저어 보였다. 《아이, 제
주제가 그렇게 망칙해 졌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차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하는듯한, 기꺼
운 환희로 그지없이 천진해 보이고 또 그만큼 티
없이 아름답게 안겨 오는 모습이었다. 몸매 자그
마한 처녀, 나팔도 멋 있게 불고 시 또한 잘 읊
는 《멋진 사내》앞에서 잔뜩 주눅 들었던 소박한
처녀가 그 순간에는 내 눈앞에 별로 크고 높이
솟아 보였다....

석달후 어느 방여공사장에 나가 있던 나는 인
민군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네명의 처녀병
사들이 뜻밖에 일어 난 산불을 끄고 희생되었다
는 격동적인 기사와 함께 그들의 사진이 실렸는
데 그속에서 다름 아닌 그 처녀- 상급병사 전래
회의 활짝 웃는 모습을 발견한것이였다.

신문을 둘러싼 병사들이 감동과 애석에 차서
웅성거릴 때 나는 슬그머니 병실을 빠져 나갔다.

그리고는 자동차운전칸에 올라 가 오래동안 혼
자 앉아 있었다. 나는 차의 후사경속에서 전래회
가 웃고 있는듯한 환영을 아무리 해도 털어 버릴
수 없었다. 심장이 찢기는것처럼 아파 왔다....

돌이켜 보면... 그 아픔이 혹시 이성에 대한 남
다른 첫 감정은 아니었던지, 그래서 지금도 그
처녀병사를 방불히 상기시키는 윤채영의 일이 이
렇듯 아픔속에 신경 켜여 지는것은 아닌지...

《운전사동지가 우리 돌격대에 오시면 더 좋겠
는데... 어때요?》하고 윤채영은 물었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이 어떤 사명감에 대한 자각과는 인

연이 없이 제 멋대로 그 처녀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 저 버렸음을 어렵פות이 의식했다. 그리고... 그런 충동의 기본인자가 상급병사 전태희를 닮은 그 춤추듯 하는 미소때문임을 깨닫고 놀랐다.

솔직히 다음해 봄에는 대학통신을 다니려고 짬짬이 공부를 시작한 나였다. 그런데 돌격대생활로 돌아 서면 발전소조업전에는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몹시 힘들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해는 대학입학기회를 미루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했다.

어둠속에 누운채 나는 쓰겁게 웃었다.

(시시하게 돼가는군. 제대군인이라면 웅당 현실의 걸린 문제에 속을 태우며 스스로 그걸 풀자고 나서야겠건만 처녀의 미소에 먼저 이끌려 결심하게 되다니...)...

나보다 한발 앞서 제대된 전우들앞에 수치를 느껴야 할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용약 대홍단으로, 광명성제엄으로 떠났었다. 그속엔 나의 옛 부소대장도 있었다. 그는 작별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인수, 병사라면 누구나 군인선서를 하지, 그렇지만 제대되면서 그 선서를 파기하는 법이란 없네. 왜 그렇겠나?...》

이튿날 아침 나는 일부러 윤채영을 만나지 않고 그곳을 떠나왔다. 그리고 닷새후에는 내 이름을 정식 소미전발전소돌격대원으로 등록했다. 그 처녀에겐 이것이 말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될것이라고 믿으면서.

3

《줄장부》들이 걸고 팔짱을 끼고 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것은 아니었다. 돌격대운수소대를 돌아 보면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대용연료차로 개조한 십여대의 자동차들, 옥탄가를 높이려고 참나무숯구이가마를 설치하여 장만한 적지 않은 숯섬들. ... 그럼에도 부족이 팔려서인지 달리는 차들은 몇대 안되었고 그나마도 실어 오는 짐들을 령아래에 걸반나마 부리고 두번, 세번 꺾어서 날라 들어온 하는것이였다. 차의 견인능력상 만짐은 몰라도 절반이상은 꽤 싣고 넘을수 있겠는데 왜 저리도 조심스럽고 소극적인가?

내가 그런 의문을 내비치자 나이 지긋한 운수소대장은 불쾌한듯 굵은 눈썹을 꿈틀했다.

《자네 차를 끈지 얼마가?》

《십년째입니다.》

《그럼 잘 알겠구만. 자동차가 경사지에서 일단 하중을 감당 못해 순간이라도 멈춰버리면 무섭게 바람나고 만다는걸. 그럴 땐 기관제동을 해도 치차이발들을 막 꺾어 버리면서 내리 굴지. 항차...》

소대장은 뒤말을 툭 끊었다. 《항차 힘도 못 쓰는 대용연료차로야...》 하는, 굳이 말할나위도 없다는듯한 비난 섞인 암시였다. 그러더니 잠시후

우울하게 덧붙였다.

《나도 운수소대가 사람들 말밥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면 춤을 추겠네. 오죽했으면 애꿎은 처녀까지 맘고생 시키겠나.》

나는 그것이 윤채영을 녀두에 둔 말임을 대뜸 알았다. 소대장이 먼길을 왔는데 오늘은 쉬라고 이르며 가 버린 다음에도 나는 《애꿎은 마음고생》하는 윤채영의 일이 알끈하게 속을 허벼 진정할수 없었다.

끝내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이 며칠사이에 소미령극복방도를 이것저것 궁리도 해둔 터이니 한시바빠 현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맵짠 날씨였다. 며칠전에 내린 눈이 바람에 불려 은가루처럼 반짝거리는 대기는 부지런히 령길을 뚫는 나의 귀바퀴를 따끔따끔 침질하면서 폐장깊이 쓸어 들었다. 거의 30리길이 되는 소미령을 끝까지 훑고 되짚어 오고 나니 짧은 겨울해는 뉘엿뉘엿 저 갔다. 날씨는 더욱 맵싸 졌다. 그러나 가슴은 억제할수 없는 흥분으로 후끈 달아 올랐다. 나의 착안에 확신을 얻은것이였다.

그 방도란 기실 우스울만치 간단하였다. 령의 가장 급한 마감비탈목을 후진으로 극복하자는것이였다. 후진변속치차가 제일 작으므로 속도는 떨어졌지만 대신 그에 걸리는 부하는 반대로 가장 적어 차가 용이하게 움직이리라는것을 리용한 착안이었다. 좁은 령길이어서 차를 돌릴수 있는 돌음길을 닦는게 좀 품이 들어가. 또 한가지는 숯섬들을 싣고 다니지 않게 일정한 구간마다 보관고를 만들어 쌓아 두면 그만한 량의 짐도 더 싣게 되고 장거리수송도 능히 감당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면 거기서 절약되는 연유를 돌격대원들의 등짐이 되었던 혼석운반에 리용할수 있다.

나는 돌격대운전자들이 왜 이런 정도의 단순한 궁리도 못하고 있었을가 하는 의문에 고개를 기웃거렸다.

(어쨌든 그가 알면... 쿵쿵 뭣지 몰라!)

절로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그려 졌다. 그렇다. 채영이가 그날의 령길에서처럼 혼자 눈물 짜는 일은 더는 없을것이다!

다음 순간 나는 우뚝 박혀 서버렸다. 스러지는 저녁해살을 등위로 받으며 고개를 다소곳한채 내쪽으로 타박타박 마주 오는 한 처녀, 다름 아닌 윤채영을 띠여 본것이였다. 거의 동시에 처녀도 나를 발견하고 흠칠 굳어 졌다. 놀랜듯 반쯤 입을 벌리더니... 마침내 처녀는 《운전자동지!》하고 부르짖으며 쩍쨍게 달려 왔다. 그리고는 가쁜 숨과 함께 뜨거운 속삭임을 내뿜었다.

《오셨군요. 이러실줄 전... 믿었어요!》

나는 부신듯 가늘게 쪼프려 진 처녀의 눈동자속에서 샘처럼 끓어 오른 미소가 온 얼굴로 춤추듯 번져 지는것을 보았다. 처녀가 드러내보인 뜻

밖의 걱정이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스스로도 어리둥절할 정도의 거친 말마디가 불쑥 튀어 나왔다.

《이건 뭐요. 아직도 그 어리석은 <속죄>놀음이에요?》

《예?!》

《아직도 령길뚜지기를 못 버렸나 말ियो?》

한껏 속눈썹을 치켜 올렸던 처녀의 입가에 애처로운 미소가 그려 졌다.

《그건 저… 하지만 오늘은…》

《그만하시요!》 그의 말이 변명처럼 들려 더욱 화가 통한 나는 냅다 소리 질렀다. 《장한 일을 해놓고는 그걸 구차스레 변명하는 짓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소? 그건 자기도, 돌격대원들도 모욕하는 행위란 말ियो. 동무의 제안을 지지하여 여태 땀흘리며 고생해 온 그들을! 난 처음…》

나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무엇때문에 내가 이런 험한 입도끼질을 막 해대는가. 얼굴이나 겨우 익힌 처녀앞에서 무슨 권리가 있어서? … 아마 처녀병사 전태희의 웃음을 빼물었으니 마음 역시 그처럼 굳셀것이라고 믿어 온, 그런 녀성이었으면 하는 애끓는 소원이 허물어 진데서 오는 실망과 분함때문일것이다.

《고마와요, 운전사동지.》

고개를 다소곳하고 있던 처녀가 의외에도 혼연한 어조로 속삭였다. 추위타인지 그의 두볼은 발그레 익어 있었다.

《전 좁전에야 운전사동지가 왔다는걸 알았어요. 제대군인이라기에 대뜸 <그 동무구나!> 했지요. 운수소대장아바인 운전사동지가 설거라고 했지만 전… 어쨌든지 꼭 령길에 나갔을것 같더군요.》

《제야 나는 그의 손에 아무런 공구도 들려 있지 않는데 주의가 갔다. 얼굴이 화끈해 났다. 윤채영은 나를 마중 나온것이었다!》

불쑥 처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면바로 쳐다 보았다. 가늘게 쪼프린 심각한 눈매였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생각하는데… 운전사동진 절 처음 보았을 때… 누군가와 착각했었지요?》

《?!…》

《그… 동물… 사랑하겠지요?!》

나는 눈을 꼭 감았다. 눈시울에 따갑게 감촉되는 처녀의 맑은 눈길이 심장을 아프게 비틀었다. 절로 몸이 휘청거려졌다.

《갑시다!》

구령처럼 사납게 웨치며 나는 발을 내짚었다.

《운전사동지!》

처녀의 황황한 부름, 어느 사이 내앞을 막아선 그는 애원하듯 입술을 떨었다.

《제 말에 성이 나셨어요? 난 그저…》

《아니.》 목이 꼭 잠겨 나는 양다문 이새로 힘겹게 내뿔었다. 《그 동문… 잘못됐소!》

…그날밤 나의 착안을 주의 깊게 듣고 난 소대장은 고개를 깃수긋한채 담배만 푹썩썩 빨았다.

적어도 《확실히 제대군인이 달라!》 하며 내 손을 덥석 잡아 줄줄 안 그의 이 침울한 거동은 나를 좀 얼떠름하게 만들었다. 소대장이 혹시 내 설명을 잘 리해 못한건 아닌지?… 조바심에 속이라들어 나는 성급히 보태었다.

《전 구체적으로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령길의 경사각도와 차의 하중, 최대견인력과 마찰계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 가능하지. 그걸 부인하진 않네. 우리도 이미 그런 궁리를 해봤으니까.》

《그럼 무엇이 걸렸습니까?》

갈수록 혼란에 빠져 나는 병병하게 되물었다. 소대장은 나를 외면한채 군기침을 깃었다. 무언가 딱한 경우에 몰린듯한 난처한 기색이었다. 이윽해서야 그는 무거운 한숨끝에 뜨직이 중얼거렸다.

《까놓고 말해서 자네 방법은… 운전사들더러 목숨을 내놓으라는것과 비슷한걸세.》

소대장은 담배불을 비벼 끄고 움쭉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여닫기면서 휙 쓸어 든 찬바람이 내 얼굴을 후려 쳤다.

(그랬었구나!…)

결국 여태 리해 못한것은 나자신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대장이 강조하던, 까딱하면 차가 바람날것이라던 말의 의미를 그저 운전사들의 기능과 새로운 운행방법의 부족에서 오는 위구로 여겼으니 나는 얼마나 고지식했는가. 일단 해야 할 일이라고 단정했으면 한치한치 땅을 허비고 물어뜯어서라도, 지어 생명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줄로 아는 나와 목숨만은 결코 희롱할수 없다고 여기는 이곳 운전사들의 차이… 그것을 나는 몰랐었다. 하지만 소대장도 옳다. 내게는 그들에게 《희생》을 강박할 권리가 없거니.

나는 이마를 싸쥐었다. 윤채영을 그렇게도 꾸짖었건만… 이게 무슨 꼴인가. 돌격대원들은 여전히 등짐을 질것이고 그것이 피로와 처녀 또한 《속죄작업》을 멈추지 못할것이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서둘러 돌격대에 올 결심을 안했을걸. 정말 회뻘게 군 셈이야!

다음 순간 나는 속대 없는 자신의 변덕에 울컥해 저 침대가역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 쳤다.

(좋다. 내가 혼자 해볼테다. 그들이 믿도록, 안심하고 따르도록!…)

이튿날 밤부터 나는 몰래 령길의 후진구간에 차돌음길을 닦기 시작했다. 잡관목을 찍어 내고 언땅을 까내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그러나 누구의 방조도 기대해선 안되었다. 소대장이 알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선동하나?》 하며 당장 중지시킬것이 뻔했기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윤채영의 눈에 뜨일가봐 겁났다. 그로록 《속죄작업》을 비난해 온 터에 그와 별반 다를바 없는 노릇을 지금엔 내가 되풀이하는것이다.

새벽마다 땀에 젖었던 옷이 팻팻하게 얼어 우들우들 떨며 병실로 숨어 들어 올 때마다 나는 고달픈 몸보다도 구차스레 남들의 눈치를 피해야 하는 처지가 기막혀 쓴입을 다시군 했다.

그런데 얼마동안의 돌격대생활을 하고 나자 나는 걸린 문제가 그뿐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배당 받은 자동차로 소소한 구내운반작업을 한지 나흘째만에 곡축메달이 덜컥 나갔다. 온통 기름얼룩이 되어 기관을 해체한 다음 새 메달을 요구했을 때 소대장은 빈 손바닥을 펴보였다.

《없네. 차내에게 마지막예비를 주었으니까.》

《그럼 새 메달이 고작 나흘간?!...》

《그게 우리 군차사업소에서 자체로 생산한거라네. 질이 말이 아니지. 그마저도 제때에 보장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마당에 주런히 서 있는 차들을 바라보며 혀를 깨물었다. 그쯤한 부하에도 견디지 못한다면 나의 후진방법을 받아 들일 때엔 령길을 한번만 뒤흔어도 메달들이 결단날것이다.

떡심이 풀려 우두커니 서 있던 나는 까닭 모를 분노와 반발심에 고함처럼 부르짖었다.

《허락해 주시오. 당장 차사업소에 가겠습니다!》

4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산도 없었다. 그저 희떠운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메달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타는듯한 촉박감, 무책임하게 일하는 차사업소 일군들을 무자비하게 규탄하리라는 의분 그리고 영화들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심장에 호소하고 자신 또한 팔을 걷어 붙인다면 당장 벗어 선 차들을 살릴 부속 몇개쯤은 해결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그러루한 충동에 몸을 내맡겼을뿐이었다.

떠날 때 어떻게 알았는지 윤채영이 찾아 왔다. 그의 표정은 어째서인지 몹시 초조해 보였다.

《차사업소에 가면... 운전사동지. 그 메달의 질 문제엔 제발 개입하지 말아 줘요.》

《그건 어째서?》

《글쎄 부탁이에요. 전 운전사동지가 뭔가 몰래 시도하는줄 알지만... 이번만은 제 말대로 해주세요!》

나는 그가 차돌음길작업을 눈치챈것 같아 속이 썩기었다. 하여 짐짓 말을 돌렸다.

《<운전사동지>, <운전사동지>!... 채영동무. 내 이름은 리인수요.》

《알아요. 어쨌든... 약속하시지요, 예?!》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음산한 날씨였다. 군에 공사용철근을 실러 가는 차에 올라 흔들리우면서도 나는 채영의 그 수상쩍은 애원을 두고 줄곧

꿀을 썩었다. 무엇이 그리 두려웠을가. 자기 문제와도 직접 얽혀 있는 내 착안의 부결에 위축되어 더는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았으면 하는 불안스러운 녀려?... 하지만 그것뿐이라고 하기엔 처녀의 초조감이 너무 고통스럽게 보였었다.

기껏 달려 왔으나 차사업소에 이르니 벌써 날이 저물었다. 접수구의 등잔불이 빨갛게 타는것으로 보아 정전인 모양이었다.

경비원령감은 모두 퇴근했다면서 접수하기를 딱 거절했다. 그러나 발전소건설장에서 차부속때문에 왔다는것을 알자 금시 친밀감을 보이며 건설정형을 꼬치꼬치 캐묻고 나서 수리중대를 대주었다. 노동자들이 있다는것이였다.

아닐세라 역시 등잔불이 켜진 어스레한 휴게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난로에 둘러 앉아 담배들을 피우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요.》 자기를 공정기사라고 소개한 영민한 눈을 가진 청년의 말이였다. 《전기가 하루에 몇시간밖에 안오는데 그것조차 언제 올지 모르니... 누구보다 전기갈증에 시달리는 우리가 발전소건설을 외면할 순 없지요. 래일아침 들려 주시오. 어떻게든 필요한 수량을 보장해 드릴테니.》

《나도 뭐든 돕도록 해주우.》

그가 너무 혼연히 나서 주는데 감동되어 나는 당장 일손을 거들 차비로 솜옷을 벗었다. 그러자 우리의 대화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끼었다.

《한지에서 노상 추위와 싸웠겠는데 오늘밤은 아래목에 꼭 지지시우.》

《그러다 새색시를 올릴라.》

《웬걸. 제대군인이 언제 그런 재밌 봤겠나?》

점잖으면서도 유쾌한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들의 호의에 용기가 생겨 없혀 있던 속을 터놓았다.

《솔직히 여기서 만든 메달은 소미령을 넘나들기엔 글렀더군요. 메달주조에 전기가열로를 쓰겠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생산원가만 높고 리용가치는 적은 메달을 계속 주무르겠습니까?》

불시에 침묵이 깃들었다. 누군가 경청 마른 기침을 했다. 공정기사가 《나 좀 봅시다.》 하며 슬그머니 휴게실열의 작업장으로 나를 끌었다.

끓다 만 쇠물이 불그레 식어 가는 소형아크로 앞에 마주 섰을 때 그가 날카롭게 내쏘았다.

《우린 그래도 <고난의 행군>을 그걸로 치뤘소. 차들이 잘 뛰진 못했지만 세우진 않았단말이요. 나라의 전기를 랑비하는게 우린 뭐 가슴 아프지 않은줄 아오?》

비로소 나는 노동자들의 침묵이 리해되어 얼굴을 붉혔다. 그럼에도 가슴은 더 답답했다.

《그렇게도 방도가 없소? 당에선 그토록 실리를 보장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

《우리 기술자들이… 구실을 못하고 있소.》 그 리도 날카롭던 공정기사의 목소리가 대뜸 폭 꺼 졌다. 《동무도 우리 나라의 메달국기가 원심주조 법이라는건 알데지. 현대 세계적으로는 소재도 적게 먹고 질은 최상으로 보장하는 분말주조가 추세요. 기왕 할바엔 강성대국의 높이에 어울리 는 그 방법을 성공해서 전국에 일반화하자고 달 라 불긴 했지만 우리 역량으로는 아직… 그걸 쉽 게 풀만한 사람이 한명 있긴 한데 완전히 외면하 오. 머리가 영 비뚤어 진 령감이지.》

그의 말에 의하면 한해전쯤에 도의 한 연구기 관에서 금속재료연구사로 일하던 사람이 파오를 범하고 내려 왔다고 한다.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 하는 과제들은 제겨 놓고 큰 야심밑에 무엇인가 황당한것을 몰래 연구하다가 술한 국가자재를 랑 비한건 물론 사고까지 저질렀다는것이였다. 본인 은 나이도 들고 하여 스스로 연구사를 그만 뒀다 지만 실은 쫓겨 내려 온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 다.

《그리고도 아직까지 그곳 일꾼들에 대한 원한 이 대단하더군. 가만 보니…》

나는 이미 그의 말을 계속 들어 줄 경황이 아 니였다. 살 구멍이 있다. 살 구멍이!

《주소를 대주시오. 내 당장 만나겠소!》

덤벼 치는 나를 씹씹히 건너다 보며 공정기사는 건성 손을 내저었다.

《그만 두오. 내 얼마나 사정하고 구슬렸는지 아요? 돌부처랄지 도깨비랄지… 괜한짓이요!》

채영이도 그렇게 말렸었지 하는 생각에 픽 쓴 웃음이 나왔다. 아마 이런 사정을 그도 잘 알고 있은듯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일이야말로 다름 아닌 내가 풀어야 할 몫이라는 절박한 의식에 온 몸은 화끈 달아 올랐다. 그 《도깨비》를 납득시 킬 온갖 론거들도 불꽃 튀기듯 머리속에서 번쩍 거렸다. 그래도 뻔치다면… 뭘 애걸하겠는가. 한 대 먹인 다음 자루속에 공저 넣어 지고라도 올판 이다!

《까짓, 일 없소. 시간이 어디 기다려 주오?》

…까다로운 골목길을 헤맨 끝에 내가 읍거리유 축의 한 단층집문을 두드린것은 그로부터 1시간 나마 지난 후였다.

다행히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희미한 그 불빛 을 등지고 코허리에 흘려 내린 안경너머로 경계 하는듯한 눈길을 던지는 여위였으나 키꼴이 후리 후리한 반백의 로인이 나타났다.

《말하시오. 무슨 용무인지.》

정중하나 쌀쌀한 어조로 그가 물었다. 애초에 이런 대접을 각오한 터였으나 나는 일순 허가 굳 어 졌다.

《저… 발전소건설장에서 왔는데… 선생님께…》

《발전소건설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 났다. 그리도 랭담하던 로

인이 돌연 곳곳한 자세를 허물며 내 손목을 덥석 잡고 집안으로 이끈것이였다.

《어서 들어 오시오. 어서! … 우리 채영이가 안 오겠다고 큰소리 췌지만 아무렴 했더니… 이렇게 소식은 보냈구려. 허허…》

《예?!》

나는 정지문턱에서 발이 얼어 붙었다. 심장이 후두둑 뛰었다. 세상에! … 로인은 분명 채영이라 고 말했다. 《우리 채영》이라고. 그러니 이 집이 윤채영의 집이였는가?! … 입이 항 벌어 진 내 거동에 로인도 멈칫했다.

《그럼… 우리 애가 보내서 온게 아니요?》

《…》

그때까지 내 팔목을 잡고 있던 로인의 손이 맥 없이 풀리였다. 《음-》 하는 신음과 함께 로인은 허연 머리를 가슴노리에 떨구며 지척지척 방구 석의 책상앞으로 걸어 가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 다. 그 서술에 책상우에 되는데로 쌓여 있던 책 무지가 와르르 허물어 졌다. 쟁강… 시약병 같은 것이 뒤집히는 소리도 잇달았다. 그럼에도 로인 은 허탈에 빠진듯 이속도록 멍청해 있더니 흐느 낄처럼 중얼거렸다.

《울리가 없지. 이 애비를 버리고 달아 난 년이 니… 울리가 없어.》

(아버지를 버리다니, 누가? 바로 그 윤채영 이?!… 아니, 같은 이름도 있을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즉시 나의 고막에서는 채영의 애원이 쟁쟁하게 울렸다. 《메달의 질문제엔 제발 개입하 지 말아 줘요!》… 모든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그 가 아버지 뒤통수에 버렸는가, 뒤통수에?

《선생님.》

당혹감으로 머리가 여지 없이 혼란된 나는 슬 픔에 아주 기가 죽은 로인을 위로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머뭇머뭇 중얼거렸다.

《채영동문… 요즘…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자 동차메달때문에 발전소건설이 큰 지장을 받는다 고 속이 까매서…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로인이 머리를 들었다. 등잔불빛이 부서지는 그의 안경알이 그 순간 내게는 별로 차갑게 보였 다. 아닐세라 로인의 입에서는 지친듯 느릿하나 랭랭한 말마디가 흘러 나왔다.

《차사업소에 들렀건가분데… 헛수고요. 날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 주오. 이걸 보오만 내겐 거 기 일을 주무를 시간이 없소.》

로인은 넘어 진 시약병을 톡짓해 보이고는 내 게 곧 등을 돌려 댔다. 그다음 이미부터 펼쳐 저 있던 책우에 안경알이 닿을듯 머리를 숙였다.

나는 얼굴에 화로불을 들쓴듯 했다. 날더러 빨 리 사라지라는 로골적인 독촉인것이다. 뭐 시간 이 없다고? 연구사를 그만둔 주제에?... 그러면서 도 방안엔 여전히 책들이며 실험기구들을 벌려 놓고 있다. 보나마나 《애비를 버린 년》에 대한

울화와 쓸쓸한 고독감을 덜어 보려는 무력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고작 이전 직업에 대한 애달픈 미련이던지. 혐오감이 부각부각 피어 올랐다. 안경을 끼고도 글줄이 잘 보이질 않을 어스크레한 등잔의 불편속에서도 온 군이 관심하는 전기문제파원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저 뺨담성!... 본격을 억누르자니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것놀린 목소리를 간신히 짜냈다.

《좋습니다. 오늘은 가지요. 그저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

《선생님은 어쩌서 우리를 돕기 싫어 합니까?》

《...》

《책을 읽는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

드디어 로인의 구부정한 등이 천천히 펴졌다. 이른바 《눈속에 눈이 있다》는 안경쟁이들 특유의 흠뻑 저 보이나 애매몽롱한 시선이 내 얼굴을 한참 어루머듬었다.

《발전소건설장에서 무슨 일을 보시오?》

그가 처음으로 호기심을 엿보이며 물었다.

《자동차운전합니다.》

《흠-》

모욕적인 의미의 뺨소였다. 로인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미간을 찡그리더니 불쑥 한숨을 내쉬었다.

《대답하면... 날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수 있소?》

《아니요!》

나는 물강스레 잘라 말했다. 우리의 시선이 날 카롭게 부딪쳤다. 로인의 주름진 얇은 불편이 눈에 띄게 푸들거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속 빈 쓸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좋소. 내가 연구소에서 사고를 낸 날 우리 소장은 이렇게 말했소. <지구력사에서 빙하기는 무서운 시련이었지만 모든 생명물질 특히 인류의 진화를 촉진시킨 필수불가결의 행운이기도 했소. 그런데 적지 않은 생명체들은 그걸 못이겨 사멸했던 말ियो.> ... 요컨대 내가 <고난의 행군>기간 참인간으로 갱생하기는커녕 보통인간이기도 그만 뛴다는거요. 허허...》 채차 속 빈 웃음을 터뜨린 끝에 그는 저오기 사납게 덧붙였다.

《그래서 난 결심했소. 기어이 성공해서 목전의 리익만 따지고 나라의 장래과학까지 책임지려는 립장에는 서지 않는 처세자들, 조국애가 없는 자들을 후려갈기자고 말ियो!》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 마감말은 한동안 내 입을 열어 붙게 했다. 비로소 나는 로인의 넓은 이마며 안경속의 찌르는듯한 눈매며가 윤채영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다는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점때문에 런민으로 기울어 지던 내 가슴은 또다시 혐오감으로 끓어 번지기 시작했다.

(채영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니!...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버렸지. 말로는 나라를 걱정한다지

만 모욕 받았다는 개인적울분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저 무서운 자기본위!...)

어쩔수없이 나의 목소리는 경멸감으로 하여 역스럽게 울려 나왔다.

《선생님은 방금 연구소일군들을 조국애가 없는 처세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두고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딸 같은 돌격대원들이 전기문제를 풀겠다고 눈속에서 손발을 얼구면서도 등짐으로 돌을 저나르느걸 가슴 아파 하지도 않고 외면하는 선생님은요? 차사업소에선 자동차를 살려 보자고 매일 밤 집에도 못 들어 가고 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픔도 오지 않습니까? 그제 선생님의 조국애입니까?... 사랑을 두고 너무 가볍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로인의 누르끼레한 얼굴이 거뭇게 죽어 가는것을 스쳐 보며 나는 획 밖으로 나와 버렸다...

전기는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왔다.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수리중대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일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겨운 그 《도깨비》에 대한 묵새기기 힘든 분노로부터, 그앞에서 분별을 잃고 무뎠던처럼 큰소리 질렀던 간밤의 언짢은 기억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했다. 그래, 영영 침 뱉고 돌아 서자. 친팔마저도 버릴 결심을 내린 아주 망쳐 진 인간이거니!

공정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자기들이 꾸려 놓은 자력갱생설비들을 일일이 보여 주었으며 일군들의 동의밑에 메달외에도 자작 생산한 투관과 시동기술이머를 배낭이 터지게 꾸려 주었다. 내가 그리도 의분속에 규탄하러 했던 이곳 일군들이 《고난의 행군》기간에 할수 있는 짓은 거의 다 해온것이다.

나는 전날저녁에 이들을 모욕한것이 부끄러웠고 연구사로인을 당장 끌어 내올듯 흰소리쳤던 일도 창피스러웠다. 하여 공정기사의 눈을 면바로 보지 못하면서 손만 꼭 잡아 쥐었다.

《두루... 미안하게 됐소.》

그런데 공정기사는 빙긋 웃으면서 거의 동문서답같은 대답을 했다.

《첫술에 배 부르겠소? 난 동무가 끝장을 보리라느걸 아오. 동무 눈은 꼭 전조등 같거든.》

도망치듯 차사업소를 빠져 나오니 무겁게 드리운 구름장밑으로 눈까비가 추덕추덕 떨어 저 내리고 있었다. 그것들은 내 가슴속에도 선평선평 날아 들며 내장을 얼구느듯 했다.

(끝장을 볼거라구? 《도깨비》한테 격과되어 썩기권한 나를?! ... 혹시 이 제대군인복장이 그런 인상을 준건 아닌지?...)

등에 진 배낭이 갑절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걸음은 자꾸 비청거려 졌다.

5

돌격대운전사들은 나를 무슨 개신장군처럼 떠들썩 맞아 주었다. 그러나 한시름 던듯 병글썩 웃으며 《거 한 열흘은 걱정없이 뛰겠군.》 하는

소대장의 말은 내 머리를 싸늘하게 식혀 놓았다. 겨우 열흘, 그 다음엔?… 가뜩이나 속이 편치 않던 나에게 남의 입으로 재삼 강조된 그 의미는 참을수 없는 굴욕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길로 나는 허둥지둥 설계분파로 달려 갔다. 윤채영은 없었다. 현장검증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없는 억측이지만 나는 그 순간 채영이 나를 피하는게 아닌가 하고 분하게 여겨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런 기분은 몇시간전 읍거리를 벗어 날 때부터 나를 휘감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때, 철근 실은 차에 올라 눈앞에서 멀어져 가는 채영이네 집지붕을 우울하게 쳐다볼 때… 나는 불현듯 진저리를 쳤었다. 내가 끝내 연구사로 인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 배낭과 함께 어깨우에 무겁게 덧댄혀진 공정기사의 믿음이 힘겹다고 벗어 던지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10분만!》

정신없이 운전칸지붕을 두드려 차를 세운 나는 헬레벨떡 로인의 집으로 달려 갔다. 그런데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나는 때 늦게 정신차린 자신을 저주하며 머리를 싸쥐었다.

다행히 옆집 안늬은이가 눈까비속에서 후줄근히 서 있는 나를 떠어 보고 나왔다. 사유를 들은 그는 필시 끼니준비를 하러 나갔을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어제 두 그때문에 나갔됐다우. 혼자살림에 어찌겠수.》

《그럼 사모님은?…》

《모르시우? 몇해전에 앓다가 없었답디다.》

그래서 간밤에도 로인밖에 없었됐구나! … 마음이 저려 들어 나는 슬며시 돌아 섰다. 언뜻 발전소건설장에서 왔다는 말에 허둥지둥 내 손목을 부여 잡던 로인의 모습이 스쳤다.

늘그막의 안해는 일종의 지팽이라고 한다. 그 지팽이를 잃은 로인에게 있어 마지막지팽점은 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딸은 아버지의 파오가 수치스러웠는지 달아나 버렸다. 그러니 고독속에서 늙은 몸을 끌며 어려운 생활을 헤쳐 나가는 로인이 어찌 피백스러워 지지 않으랴. 모름지기 그때문에 우리 일에 낯을 돌릴 시간을 짜내지 못할수도 있다.

(그렇다면 채영이에게 더 문제가 있는게 아닐가?…) 부지불식간에 떠오른 이 생각에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 가서 따져 보자. 사실이 그러면 가만 두지 않을테다!)

나는 급히 수첩을 한장 찢어 거기에 《선생님, 무례하게 군걸 사죄합니다. 하루이틀내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돌격대운전사 리인수.》라고 쓴 다음 자물쇠고리에 잘 보이도록 끼워 넣었다. …

윤채영을 찾아 공사장으로 나갔을 때 눈까비가 퍼붓는 속에서도 전투는 백열전을 이루고 있었다. 골재선별기의 아츠러운 동음과 휘틀을 조립하는 텅텅 마칠질소리, 버럭을 제끼느라고 용을

쓰며 푸릿한 배기가스를 거품내기로 뿜어 올리는 볼도젤들… 무엇보다 눈을 따갑게 하는것은 혼석채취장으로 잇닿은 벼랑길로 《강성대국》, 《강행군》 등의 글발을 새긴 자갈질통을 지고 돌격대원들이 까맣게 줄지어 치달아 오르내리는 광경이었다. 눈까비에 죽탕이 된 진흙투성이숨웃차림으로 땀을 철철 흘리며 내닫는 그들의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내굴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어딘가 처절한 느낌이 들어 나는 눈을 감아 버렸다.

우리가 체구실을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윤채영은 언제기초장에 있었다. 설치가 마무리되는 혼합기결에서 누구에겐가 손세를 쓰며 이야기하던 처녀는 나를 보자 활짝 웃으며 달려 왔다.

《언제 돌아 오셨어요?》 하고 스스럼없이 물은 채영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속살거렸다.

《아이, 오늘은 어찌 바쁘던지. 언제기초굴착이 끝나서 설계대로 됐나 최종대조를 했거든요. 다 잘됐어요!》

《나 좀 봅시다!》

내가 무뚝뚝하게 손짓했다. 채영의 얼굴이 흐려지는것을 못 본체 하며 나는 기슭의 살얼음을 밟으면서 소리쳐 흐르는 소미천가를 앞서 걸었다.

등뒤에서 올리는 채영의 자갈 밟는 소리는 고르롭지 못했다. 그러다가 귀 따갑던 선별기소리가 어지간히 멀어 지자 처녀는 뚝 걸음을 멈추었다.

《인수동지, 저의 아버지를 만나셨지요?!》

좁전의 그 명랑하던 속살거림과는 완전히 다른, 거의 애처롭게 올리는 목소리, 나는 천천히 돌아 섰다. 채영의 두눈은 내 얼굴에서 자기의 물음에 대한 한가닥 부정의 빛이라도 찾는듯 불안스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뜸 그가 여태껏 짐짓 호들갑을 떨었었다는것을 알았다. 처녀는 줄곧 나의 출현을 긴장하게 기다려 온 것이다.

《내 말 듣소.》 목소리가 고압적으로 울리지 않도록 자제하며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중으로 집에 가야겠소. 그래 주오.》

《그건… 어째서요?》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우리 일을 돕도록 설득도 해야겠소. 아버지… 동물 몫시 기다리오.》

휘둥그레졌던 채영의 눈에 불쑥 물기가 핑 돌았다. 다음 순간 그는 세차게 도리질했다.

《안돼요. 전… 집에 못 가요. 안 가겠어요!》

《가야 하오!》

《더 권고하지 말아 줘요!》

처녀는 돌아 섰다. 억눌려 온 노기가 폭발한것은 그 찰나였다. 끝내 나의 입에서는 심술 콧은 비양이 튀어 나오고 말았다.

《그러니까 한번 버린 아버지를 더는 아버지로 여길수 없다, 그거요?!》

잔등에 채찍이라도 맞은듯 채영은 흠칫 몸을 떨었다. 나를 돌아 보는 그의 눈에 견잡을수없이 눈물이 끓어 올랐다. 입귀를 비틀며 모지름 쓰

던끝에 그는 목 메어 부르짖었다.

《버렸다구요? 그것도 말이라고… 제가 아버지 때문에 대학까지 중퇴하고 고향으로 따라 내려온 걸…인수동진 아세요? 설계기사가 그리도 소원이었던 제가 그 꿈을 포기한걸… 뭐 버렸다구요?!》

《?!…》

《전 아버지가 자기 올라리를 걷어 버리기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차사업소에서 찾아 왔을 때도 울며 사정했어요. 한데도 아버지 끝내… 그래서 마지막수단을 썼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 서기전엔 딸을 못 볼줄 알라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채영은 얼굴을 와락 싸쥐고 무너지듯 자갈판에 주저 앉았다. 그사이 질적한 눈이 무겁게 얹혀진 그의 섬약한 어깨가 오열로 발작하듯 들먹거렸다.

처녀의 돌발적인 눈물은 내 심장을 마구 비틀어놓았다. 진실로 이 시대에 몇몇한 아버지를 갖고 싶은 소원이 그리도 절절하기에 부녀간의 정을

《끓는》 모진 생각까지 해낸 채영이, 그럼에도 나는 얼마나 야비하게 그의 가슴을 허뻛던가. 역시 채영은 정의감을 떠나 못 사는 처녀였다! … 다만, 다만 그에게는 마지막우기가 부족했을뿐이었다. 처녀병사 전태희처럼 한몸 본연히 내던져 불길속에 뛰여 드는! 아마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발기를 두고도 끝까지 싸울 대신 그 한심한 《속죄작업》으로 안락까움을 하소하는데 그쳤으리라. 《채영이.》

찌릿한 련민에 구깃구깃해 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나는 처녀앞으로 다가갔다. 그사이 좀 진정된 듯 했으나 처녀는 얼굴에서 손을 떼지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런줄은 몰랐소.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줄은… 하지만 채영이,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사랑은 몹시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고 했거든요. 기꺼웁진 하지만 많은 힘과 몸을 들어 한생 때메야 하는 아주 무거운… 갑작하다면야 사랑할 멋도 없지. 그런데 동문 힘들다고 그 짐을 벗어 던진 셈이요. 스스로 일어 나기전엔 난 모른다! 하고 말이요.》

추운듯 몸을 웅송그리는 채영을 굽어 보며 나는 간청조로 덧붙였다.

《채영이, 동무 아버지… 혼자선 못 일어 나오!》 처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가 더 떨리기 시작했을뿐이었다. 흐느낌속에서 그가 토막토막 내뱉었다.

《가주세요. 절… 혼자 있게… 부탁이에요!》

소미령에서 땀뻘 바람이 구름을 밀어 제끼며 불어 내리기 시작했다. 자갈에 발을 걸채이며 터벅터벅 걷는 나의 가슴속에서도 쓰라린 회오리가 일었다. 얼마나 어이 없는 일인가. 부녀간이 똑같이 나를 거절하고 있으니… 하나는 원한때문에, 하나는 나약함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채영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내가 또 로인을 찾아 가지 않을수 없구나.

불현듯 얼굴이 화끈해 났다. 나약한 놈으로 말하면 우선 나를 쫓아야 하리라는 생각이 머리를

친것이였다. 돌격대생활에 지레 겁을 먹고 대학입학공부를 쫓버린 나, 그것은 본의는 어떻든 노상 그렇게 채영이 아버지에게 빌붙는 식으로 지식을 구걸하며 살겠다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저녁 령감을 찾아 가는 길에 잊지 말고 학습참고서들을 가져 오자. 짐이 하나 더 없혀지겠지만… 이겨 내야 해!…)

꿀꿀한 생각에 묻혀 걸느라고 나는 등뒤에서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를 인차 가려 듣지 못했다. 그것은 뜻밖에도 채영이였다.

《한가지 잊은게 있어서…》 벌개 진 눈덕을 내리간채 처녀는 메마른 어조로 말했다. 《인수동지가 요즘 몰래 하는 그 작업을 소대장이 눈치챈어요. 굳이 숨겨야 한다면… 조심하세요!》

어쩔사이없이 처녀는 한결 성기어 진 눈까비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6

내 계획은 또다시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새 메달을 갈아 맞추고 기관조립을 끝낼 때까지 나는 줄곧 마음을 진정 못하고 골을 썩였다.

(소대장이 눈치챈다면 시험운행은 다다!… 아니, 나는 어쩌서 그 일을 꼭 숨겨야만 하는가. 무슨 부당한 행실이라고?… 까짓, 터놓자. 운전사들 더러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것도 아닌데야. 나 자신만 바치면 되는 일인데야!…)

드디어 결심이 서자 나는 곧장 소대장을 찾아갔다. 마침 소대장은 어디선가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부르려던 참일세.》 통화를 끝낸 소대장은 나를 가까이로 손짓해 불렀다. 《정비는 다 끝났겠지. 오늘밤 좀 수고해 주게. 립산사업소에서 언제 휘틀용판자를 실어 가라누만.》

나의 결심이 바뀐것은 그 순간이였다. 그렇다. 무엇때문에 소대장과 부질 없는 입씨름을 하겠는가. 아예 오늘밤으로 혼자 시험운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면 될게 아닌가. 채영의 집엔… 부득불 래일 갈수밖에!

나는 《좋습니다!》 하고 쾌히 응했다. 소대장은 나를 유심히 건너다 보았다. 입귀가 썰룩거리는 품이 무언가 속에 품은 말을 터놓을가 말까 하고 망설이는듯 했다. 은근히 마음이 켕겼으나 다행히 소대장은 말을 돌렸다.

《온밤 땀지 모르니… 교대운전사를 달고 가지.》

《아니요. 혼자서도 넉넉합니다.》

《그래. 그럴테지.》

애매한 혼자소리와 함께 미심쩍게 치며 보는 소대장의 시선을 나는 짐짓 모른체 했다. …

공교롭게도 판자수송은 꼬박 이틀을 끌었다. 역시 정전으로 제재기가 자주 멎어 한차를 채우는데도 몇시간씩 걸리기 일쑤였기때문이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자 나는 등이 달았다. 이런 식으로 연구사로인과의 대면이 자꾸 미루어 진다면?! … 초조감에 안달복달하던 나는 아침

밥 먹는 찰시간에 채영이한테 달려 갔다. 다시한번 설복해 볼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그는 간밤에 훌쩍 도설계사업소로 출장 떠나버렸다.

《왜때문에요? 꼭 그 동무가 가야 할 일이었습니까?》

또다시 그가 나를 피해 도망쳤구나 하는 추측에 절망적으로 따지고 들자 설계분과책임자는 코웃음쳤다.

《운수소대에선 그런것도 관심하오?!》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하는 속대사가 느껴져 나는 아프게 혀를 깨물었다.

(좋다. 내 쪽... 해낼테다!)

그날 자정무렵 판자수송이 전부 끝나자 나는 소대직일관에게 한탕 더 남았다고 돌려 친 다음 몰래 삽과 곡괭이를 싣고 곧추 소미령으로 차를 내몰았다.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의식했다. 캄캄한 밤, 꾸둑꾸둑 울어 불은 눈까비로 미끄럽기 짝 없는 좁은 령길,

그속을 길잡이도 없이 후진으로 더듬더듬 뚫아 올라야 할 만짐시험운행... 후회가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을 지어 놓기 시작했다. 교대운전사를 받았을것을, 그래서 길잡이로 전지불을 비쳐 주도록 할것을!...

(생각지 말자. 벌써부터 마음이 흔들리다니!... 생각지 말자!)

드디어 시험운행구간에 다달은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서 삽과 곡괭이를 멘채 길옆으로 다가가았다. 그러다가 불시에 눈을 홑뜨며 굳어 졌다.

내가 며칠동안 몰래 파들어 간 차돌음길의 길이가 이상하게 더 늘어 난것을 알아 본것이였다. 믿어 지지 않아 거듭 돌려 보고 걸음으로 재어 보기까지 했으나 틀림 없었다.

《운채영이 한 일이다!

대뜸 고막을 왕 울리는 누군가의 귀뜸, 나는 심장이 어떤 짜릿한 흐느낌을 터뜨리는것을 감촉하며 눈을 꼭 감았다. 다른 누구일수 없다. 이를 전에도 그는 말하지 않았던가. 《인수동지가 몰래 하는 그 작업》이라고... 채영은 그렇게 그 가늘게 좁혀 뜬 주의 깊은 시선으로 나의 일거일동을 여태 빼놓지 않고 살펴 왔으며 제 마음을 거기에 따라세우려고 무진 애를 써온것이다!

헉헉 단김을 뿜으며 나는 채 파지 못한 구간을 곡괭이로 정신없이 찍었다. 심장의 애달픈 흐느낌은 더욱 강렬하게 온몸을 누볐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남몰래 마음 써온 처녀. 혹시 이번의 출장도 그런 숨겨진 리유때문이 아닐가. 도의 금속재료연구사들을 만나보려는?!...

(채영이, 그래서선 안돼! 난 곡축메달과 함께 동무에게 공지 높은 아버지를 되돌려 주자는거야!...)

새벽녘이 되자 우- 우- 숲을 흔들어 대는 바람 소리는 더욱 기괴한 아우성을 지르며 자동차 앞시창을 후려 갈겼다. 흠뻑을 만짐으로 실은 차는

후진으로 령을 뚫고 있었다. 금시 밋어 버릴듯 풀떡거리는 기관의 단속적인 울부짖음, 뜨겁게 달아오른 운전칸의 열기, 언땅에서 지치려 지며 아츠럽게 절걱거리는 바퀴사슬... 조향륜을 틀어잡은 두손에 목직하게 실려 오는 흠뻑의 무게는 가슴을 숨 막히게 압박했다. 나는 신경이 칼끝처럼 곤두서서 후사경속에 얼비쳐 진, 적재함모서리에 비끄러 맨 전지가 흐릿하게 비쳐 주는 령길을 뚫어 지게 쏘아 보며 어금이를 앙다물었다.

(발이 왜 강직 온것처럼 감각이 없을까? 이러다 절로 가속답관을 놓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차는 힘을 잃는 그 순간적인 주춤거림때문에 하중에 밀려 저 심연속으로 굴러 떨어 질것이다. 이제라도 그만 둘가? 전지불은 또 왜 저리 어두운가. 뒤가 영 보이지 않아!) 판자노리를 무섭게 두드리는 피줄의 요동에 나는 머리칼이 쭈뼛 곤두 섰다. (못 견디겠어. 더는 못 물겠어!)

공포감에 떠박질린 손이 절로 변속지레대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내 눈에는 후사경에 비추인 까마득한 령정점주의 별 몇개가 피뚝 안겨 왔다. 그것들은 마치 나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이라도 하듯 검푸른 하늘에서 즐겁게 깜박거리고 있었다. 아, 저 별들은 어쩌면 저리도 영채로올가. 꼭 처녀병사 전래회의 눈빛같이!...

불쑥 그가 후사경속에 뛰어들어 활짝 웃는듯한 착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노래가락 같은 랑랑한 목소리도 나는 분명 듣고 있었다.

《보세요. 한뿔은 더 나갔어요. 자, 또요!-》

그렇게 한치한치 나의 몸을, 의지를 키우고 이끌어 올려 준 군사복무시절... 그 나날 우리는 강행군길에서 다리에 쥐가 오르면 총창으로 장판지를 혼연히 찌르고는 다시 내달리곤 했었더라. 방어공사장에선 발파가스에 질식되어 죽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버럭차를 몰고 막장속으로 혼연히 들어 서곤 했었더라. 군기앞에, 최고사령관기 앞에 선서한대로 그것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가야 할 길, 무조건 해야 할 일임을 자각했었기에!

느닷없이 옛 부소대장의 말이 뇌리를 쳤다.

《병사라면 누구나 다 군인선서를 하지. 그러나 체대되면서 그 선서를 파기하는 법이란 없네!》

변속지레대에 뻗쳐 졌던 내 손은 멎었다. 나는 목구멍을 비릿하게 훑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향륜을 으스스지게 틀어 잡았다. 금시 밋을듯 풀떡거리던 기관이 다시 양- 양- 용을 쓰기 시작했다.

어둠 깔린 령길을 흐릿하게 휘젓던 전지불빛도 그 순간부터 한결 또렷하게 살아 나는데 했다. 그리고 자동차가 동체를 떨며 한치한치 구울러 나갈 때마다 랑랑한 그 부름소리는 계속 귀전을 쟁쟁 메아리치는것이였다.

《자, 또요! - 또요!-》

...내가 소대장을 발견한것은 마지막고비를 방금 넘긴 순간이였다. 길복판에 버티고 서 있는 그의 뒤에는 소대직일관을 비롯한 몇사람의 형체

가 더 보였다. 적지 않은 시간의 초긴장으로 땀뻘해진 다리를 끌며 그앞으로 다가가니 소대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유리구슬알들처럼 매달려 있었다. 이미전에 달려 왔으나 소란을 피우면 사고를 낼가봐 가슴 조이며 지켜 볼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대장은 한대 후려 칠것 같은 험한 기상으로 나를 노려 보았으나 내뻤은 말은 맥이 쏙 빠진것처럼 기운이 없었다.

《가게. 가서 쉬게. 차는 우리가 맡을테니. 오늘은 아예 두문별인줄 알라구.》

《저, 오늘 꼭 갈데가 있는데… 메달때문예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가늠 가지 않아 내가 조심히 주어 대자 소대장은 붉은 눈섭을 찡긋하며 한동안 멍하니 마주 보았다. 그 다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넨 보니 이런 생각이 드누만.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 죽을 각오까진 하지 못한다고. 나라를 위해서만 죽지.》

이어 사람들을 손짓하며 차쪽으로 몇걸음 옮기더니 불쑥 돌아섰다.

《아까부터 자넨 찾는 사람이 있네. 만나보게.》

그가 가리키는 뒤쪽을 돌아 본 나는 놀랐다. 푸릿한 새벽빛을 배경으로 한 처녀, 누비솜옷차림임에도 별로 가냘프게 안겨 오는 윤채영이 먼 발치에 다소곳이 서 있었다.

눈보라 같은것이 가슴속에서 회오리쳤다. 나는 두뼘두뼘 그앞으로 다가갔다. 뒤늦게야 용서를 빌려 왔을것이다. 허나 그 알쏭달쏭한 《출장》때문에 우리가 잃은 이들이 얼마나 큰것인지 동문알고 있는가!

《날 왜 찾았소?》

첫마디부터 통명스러운 내 물음에 처녀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나 곧 도전하듯 나를 곧추 바라보았다. 내가 예기했던 두려워 하는 빛이 그 눈에는 없었다.

《군에는 가지 마세요.》

《?!…》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표정한 기색으로 그가 나직이 계속했다. 《우리 아버지가 어제 아침… 차사업소로 나가셨어요. 인수동지가 했다는 무슨 조국애소리에… 온밤 몸부림치셨더군요. 나라를 사랑치 않는 자들을 역적처럼 증오해 온 자기가 그 역적속에 속한다면 원통하다고… 본때를 보이겠다고…》

나는 처녀의 얼굴이 잔주를 이는 물우에 비쳐진것처럼 흔들흔들 그네 뛰는것을 느꼈다. 머리가 핑 돌았다. 채영은 도망친것이 아니었다. 채영은 끝내 나약성의 울타리를 부시고 뛰쳐 나왔다!… 그럼에도 왜 저리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내가 그리도 보고 싶은, 깊은 눈동자속에서 샘처럼 끓어 오르다가 춤 추듯 온 얼굴로 활짝 번져 지는 미소를 지어야 할게 아닌가!

《채영이!》 나는 처녀의 손을 와락 움켜 잡았다.

그 손은 새벽추위에 얼었는지 몹시 찼다. 그래, 사죄를 하자. 또 자기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가를 깨닫게 해서 저 얼굴의 수심을 말끔히 가셔주자!… 그런데 기막히게도 내 입에서는 곰살궂은 어조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투박한 명령투가 불쑥 튀어 나왔다.

《내 말 듣소. 우린 아직 할 일이 더 있소. 난 일하면서 대학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부터 매일 저녁 내 공부를 도와야겠소. 동무도 대학과정을 마치고, 알겠소?》

의외에도 처녀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어 갔다. 오랜 침묵끝에 그는 한결 밝아 진, 그러면서도 자신 없는 어조로 물었다.

《그걸 꼭… 지금 해야겠어요? 발전소건설이 끝난 다음에 시작해도…》

《아니. 당장 해야 하오. 난 지금처럼 구차하게 쫓아 아니라 가스로 뛰는 차를 궁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무의 손을 빌려야겠거든.》

채영의 입에서는 호- 한숨이 새어 나왔다.

《왜, 겁이 나오?》

내가 다긋듯 물었다. 채영은 한창 자동차의 흙짐을 부리고 있는 소대장일행쪽을 쏘르려 뜬 눈으로 이윽히 주시하더니 혼자소리처럼 입을 뗐다.

《전 인수동지가… 좋은 사람이라는걸 믿게 됐어요. 군세고 불 같은분이라는걸… 그것이 전 기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해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었다면 마음 편히 훌쩍 외면해 버리고 말겠는데 그럴수가 없군요. 하지만 인수동지의 요구가 제겐… 힘에 부쳐요. 엇그제만 해도 아버지앞에 나서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겹던지…》

나는 가슴이 아프게, 묵직하게 옥죄여 들었다. 채영은 지금 나에게 처녀답게 감추어 두고 있던 은밀한 심정을 터놓고 있는것이다. 사랑의 고백과 다름 없는!…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짐에 짓눌려 힘겨워 하고 있다.

불쑥 처녀병사 전래희가 떠올랐다. 바퀴가 휘뿌리는 진탕에 온몸이 덮여 저 가지고도 활짝 웃으며 흥겹게 삼각고임목을 교여 나가던 그지없이 아름다운 모습… 무엇때문에 나의 생활은 온통 그 처녀병사의 추억으로만 조명되고 이끌려 지는 것인가. 이성에 대한 남다른 첫 감정을 환기시켜 준 녀성이어서? 아니다. 처녀병사 전래희의 활짝 웃는 모습을 한 과거가, 내 생애의 가장 궁지 높은 군사복무시절이 무시로 나를 받쳐 주고 떠미는것이다. 한생 드림 없을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

《채영이.》 내가 조용히 불렀다. 좀 별나게 울린 내 목소리의 어감에서 어떤 흥분을 감촉한듯 처녀는 얼굴을 활짝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말이요. 동무자신이 스스로 짊어 진 짐이 아니어서 그런거요. 심장이 가리켜 스스로 진 짐은 아무리 무거운것이라도 힘겹지 않소. 그게 사랑이지.》

그다음 나는 정색하여 물었다.

《꼭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오?》

한 분조장의 수기

변창률

나는 중간지대에 위치한 평범하기 그지없는 농촌마을에서 나서 자랐다. 수려하고 웅건한 산밭도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다도 없는 그저 그러루한 고장이었다.

우리 집 뒤에는 《닭은 고개》라고 불리우는 야산이 있었다.

그 별스러운 이름은 거의 실재한것인듯 싶은 전설로부터 생긴것이였다.

어느 해 흉년에 한 농군이 이 고개마루에서 종자를 닭아 먹은 일이 있었다.

배고픔을 참을수가 없어서 그나마 얻어 가던 종자를 닭은것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내렸다. 농군은 앉은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직도 고개마루에는 칼로 찌갠것 같은 바위와 불에 그스듯처럼 거뭇거뭇한 돌맹이들이 남아 있는데 그 전설의 흔적이라는것이였다.

그 돌맹이들은 돌가마를 걸고 종자를 닭은 자리이고 찌갠 바위는 벼락을 친 자리라고 한다.

고투리를 내어 놓고 다니던 어릴적부터 귀에 익히고 입에 오른 《닭은 고개》전설은 나에게 종자란 무엇이며 종자는 왜 그리도 신성불가침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때 일찍 깨우쳐 주었다. 한알의 종자는 수십수백배로 불어 날 앞날을 안고 있기에 농민의 꿈이고 희망이며 미래이기도 하다는것을 인생의 진리로 체험하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나날이 흘러야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올해 초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찬성과 반대

뜻밖에도 나를 분조장후보로 추천한다는 말을 듣자부터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떨려 왔다. 어쩌자고 나 같은것을 추천한단 말인가?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 내가 과연 분조를 이끌수 있단 말인가?

이미 여러 해째 분조장사업을 해 오고 있는 차영세아저씨도 물론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결국은 내가 분조장으로 되였다. 첫 순간 한숨이 훌 내뿜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의혹과 불안이 구름처럼 가슴속에 서려 들었다.

그것은 나를 찬성한 스무명에 대한 의혹이었고 나를 반대한 다섯명에 대한 불안이였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나를 찬성했을까? 나로 말하면 차영세아저씨보다 농사경험도 조직력도 대비할 정도가 못되는 헛내기가 아닌가? 나 같은것

의 어깨우에 수십여정보의 논밭과 분조세간살이, 농장원들의 분배몫까지 실을수 있다고 믿었을까? 나에게에는 그것이 의문이였다. 오히려 나를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공감이가 있다.

옳다, 그들은 나를 바로 보았다.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분조장같은커녕 온전한 농장원감도 못된다고 할것이다.

내가 분조장이 된것을 축하해서 모두들 박수를 쳤다. 그 박수소리는 나에게 어느 정도 신심을 주었다. 어디 한번 부딪쳐 보자 하는 배짱이 슬 그머니 머리를 쳐들었다.

차영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자석의 N 극과 S 극처럼 그의 가슴속과 얼굴은 서로 정반대의 감정을 나타내는것이 아닐까?

나는 지은 죄도 없이 그에게 미안하였다.

채흥기아바이는 그 어떤 기대감도 경멸감도 느껴 지지 않는 얼굴이다. 그래도 박수는 치고 있었다. 거울진 그의 뒤에 선 탓에 작은 키가 더 작아보이는 《자투리》-김숙희아주머니는 박수소리만 짜락짜락할뿐 얼굴은 보이지조차 않는다.

주봉실아주머니는 회의나 모임을 할적마다 내내 부분조장처럼 차영세의 곁에 서군 하더니 오늘은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거의 기계적으로 박수소리를 내고 있었다. 진출자처럼 송이는 눈을 내리깔고 침착하게 박수를 치고 있다. 그가 눈에 띄우자 가슴 한구석이 후두둑 뛰었다.

채흥기, 김숙희, 주봉실, 김송이... 아마 이들은 틀림없이 나를 반대했을것이다. 그들은 나의 모든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나는 그들에게 그 어떤 반감도 불만감도 가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 다섯명만의 찬성을 받은 차영세가 부러웠다.

유쾌하지 못한 추억으로 잊힌 그들과 나...

채흥기아바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름대신 《드덜기》라고 부른다. 그의 얼굴은 컴컴하고 미간에 새겨진 주름살은 좀처럼 퍼질줄 모른다.

그의 별명처럼 되어 버린 《드덜기》라는 말은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기때문에 붙은것 같다.

뿔자고 해도 힘들고 도끼로 패자고 해도 힘든 드덜기나무처럼 도저히 어쩌볼수가 없는 성질이다.

처음 농장에 나왔을 때 나는 채흥기아바이네 가래질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코털이 다 희여 질 정도였다.

그는 담배를 즐겨 했지만 가래질할 때에는 자주 피우지 않았다. 그 대신 잔소리로 입을 쉬우지 않는 것이었다. 가래줄 잡는 본새가 틀렸다는니, 눈치가 없다는니, 일숨씨보다 말숨씨가 더 빠르면 못 쓴다는니 하고 찌드러거리는 것이었다.

그는 누구를 칭찬하는 적이 별로 없었다. 보다는 시비질을 많이 하였다. 나에 대해서도 례외로 될수 없었다. 오히려 더하다고 할수 있었다.

그런 그도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좋게 추억 해주었다.

《너희 아버지가 분조장할 때 우린 농장적으로 첫 2중천리마를 탔댔지. 그때 정말 일할 재미가 있었어.》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와 분조장인 차영세에 대해서는 언제나 못마땅해 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차영세분조장이 그에게 길옆논의 논두렁을 깎으라고 했는데 그는 골개논부터 해야 한다고 우겼다.

분조장은 할수없이 아버이를 골개논으로 보냈다.

골개논은 길에서 퍼그나 떨어 저 유축진 곳에 있었다. 분조장은 아버이대신 날더러 길옆논을 말으라고 하였다.

나는 아직 해가 많을 때 일을 끝내였다. 사실 거기에는 손 댈것이 별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인수로물속에서 너울거리는 풀까지 말끔히 뽑아 치웠다.

《래일 도일보사에서 온다는데 창훈아, 네가 여기로 안내해라. 사진도 한장 내달라고 해보렴...》

분조장이 일터를 돌아 보고 만족해서 하는 소리였다. 나는 얼른 뒤더수기를 만졌다. 머리를 깎아야 했다. 기자가 온다지 않는가.

저녁총화시간에 채흥기아버이는 최고로력일을 받았다. 풀이 무성한 골개논두렁을 말아 늦게까지 했던 것이다. 아버이는 겹다 희다 아무 말도 안했으나 언짢은 기색이었다.

분조장모임에 간다면서 차영세가 자리를 뜨자 아버이는 지그시 나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었다.

치너리발사가 세심한 주의를 돌려 멋지게 깎아준 머리와 향긋한 기름냄새, 새로 사 쓴 격자직모자로 하여 내가 좀 다르게 보인 모양이었다.

《넌 오늘 쓸데 없는 간판치장만 했더구나.》

《?!...》

나는 그가 내 외모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말을 듣고보니 아니었다.

《골개논이랑 샘틀논은 잡초소굴이 되었는데 길옆논만 치장하면 어떻게 해? 난 네가 일찌기 끝내고 건너 올줄 알았는데...》

나는 그제서야 영문을 깨달았다.

《도일보사 기자가 온대요.》하고 내가 설명하자 그는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이젠 도에다 대구 거짓말을 할셈인가?》

《왜요? 이만하면 신문에 날수 있지요 뭐.》

나는 성의껏 손질한 나의 수고를 몰라 주는 것이 야속하여 항변하듯 말했다.

《넌 눈을 편히 뜬게 망아지두 아니구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부리는대로 따라 가는거냐?》

아버이의 시비에 또 걸려 들었다고 생각한 나는 꼼꼼히 궁리를 해보고나서 자신 있게 대꾸했다.

《어쨌든 분조장이 시키는대로 해야지요. 저마다 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마지막엔 뭐가 되나요?》

《그래두 옳고 그른걸 따져 봐야지. 분조장이 반동이래두 시키는대로 할테냐?》

나는 아연해 졌다. 반동이라구?

《너희 아버지라면 안 그랬을거야. 넌 누굴 닮았니?》

《...》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너무나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도일보사 기자가 왔을 때 나는 슬그머니 도망을 쳤다. 《도에다 대고 거짓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다.

앞산, 뒤산에서 쌍뺨꾸기가 번갈아 울어 예고아지랑이가 아물거리던 어느 봄날, 나는 뜻하지 않게 아버이를 노엽혔다.

그날 채흥기아버이는 작업조장이 되어 행수봉포전의 발도랑을 치러 가게 되어 있었다. 아버이는 일행을 돌려 보더니 눈살을 찌프렸다. 일이나 할 장정들은 공예분조장네 집을 털어 고치는데 다 가고 험이 든 사람이라곤 아버이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 기와나 벗기고 들어 내는거야 제 짐식구끼리도 얼마든지 하겠는데... 거 해마다 남의 집 일하듯 언손질을 하지 말고 래일 여럿이 가서 아예 잘해 놓자구.》

철 없는 애송이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소리였다.

《경영위원회에서 검열을 나온다는데 대강 훑내라도 내야지요. 자, 아버지, 이젠 점심때 한잔씩...》 분조장은 술병이 서너개 들어 있는 구력을 내놓으며 아버이의 눈치를 슬쩍 살피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버이는 성을 벌컥 내었다.

《검등개 미역 감긴것처럼 할바에야... 난 못하겠네.》 그 술병이 아버이의 기분을 거슬린 것 같았다. 나는 분조장이 민망스럽게 생각되었다.

다른 한편 우리들을 헛내기라고 우습게 여기는 흥기아버이에 대한 반발심도 생겼다.

그래서 나는 분조장이 누가 작업조를 책임지겠느냐고 할 때 선뜻 한걸음 나서며 대답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분조장은 코살을 쟁긋거리고 아바이는 돌등에다 딱딱 물부리를 털었다.

《서너시간 답새워 하면 될거야. 천천히 점심들을 먹고 내려 와서 오후엔 푹 쉬어도 돼.》

분조장은 마치도 자기 집 허드레일이나 시키는 것처럼 미안쩍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에 와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일시키기를 어려워 했다.

어떤 날에는 그 집의 가마뚜껑을 열어 보고 며칠 푹 쉬라고 한 적도 있었다. 간고한 나날이어서 분조장노릇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행수봉포전으로 향했다.

《조장형님, 오후 두시부터 새 영화를 방영한대요. 빨리 해치우고 내려 가서 영화를 보지요. 예? 조장형님.》

분조의 막내인인 철호가 내뒤편을 부지런히 쫓아오며 건넌 말이었다.

그 애는 《조장》이라는 변변치도 않은 직위를 꼭꼭 짊어 부르며 줄라 대는 것이었다. 나는 꽤히 웅했다. 일손을 서두르면 될 것 같아서였다.

《때가 어느 때인데 대낮에 영화소릴 해? 봄철에 하루 놀면 가을에 열흘 굶어야 돼. 주봉실이 가 건달잡놈을 하나 낳았군.》

묵묵히 걸어 오던 홍기아바이가 거친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다.

《체, 분조장이 오후엔 놀라고 했으니까 그러지요 뭐. 저 아비인 그저 내내...》

철호는 《건달잡놈》소리에 기분이 상해서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지난해에 냈던 밭도랑은 반나마 무너져 있었다.

가래질로 깊숙이 도랑을 쳐내고 잠시 쉬는데 열두시고동이 울렸다.

분조장의 시간타산은 정확했던 것이다.

새 영화를 보고 싶었으나 꼭 참았다. 홍기아바이앞에서 본때를 보여 주자는 배짱이 영화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 버린 것이었다.

나는 매 사람에게 분공을 주었다. 작업조장의 직능을 수행하는 셈이었다.

홍기아바이는 내가 시키는대로 강가에 가서 개버들을 한아름 떠왔다.

돌을 주어다 각담을 쌓고 도랑기슭에 개버들까지 옮겨 심고나니 저물녘이 되었다.

설참도 없이 점심시간에는 밥packed 얼른 비우고 내쳐 일했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었다.

오늘에야 홍기아바이도 다른 소리를 못할테지, 아마 아버지를 닮았다고 할거야 하고 생각하니 자기가 대견해 졌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취한 기분이 되어 노을이 조잘조잘 시내물과 뛰여 노는 내가에서 손발을 씻었다. 한바탕 물싸움이라도 하고 싶은 저녁이었다.

《아니 이진 누가 부러뜨렸어? 엉?》

별안간 홍기아바이가 소리치는 바람에 우리의 기분은 비누거품처럼 꺼져 버렸다.

그의 손에는 부러진 가래자루가 들려 있었다. 아까 홍기아바이가 개버들을 뜨러 간 사이에 철호가 덤비면서 부러뜨린 것이었다.

아바이의 눈에 띄울가봐 철호가 감추느라 하더니만 그에 발견된 것이었다. 그 가래는 아바이가 애용하는 도구였다.

《제가 부러뜨렸어요.》

나는 철호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잘들은 논다. 한돈만큼 일하고 세돈만큼 팽개치고... 감추긴 왜 감추었어? 덜되게스리...》

우리는 모두 기분을 잡치고 말았다. 그까짓 가래자루 같은게 뭐길래 그다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러 놓는담?

《아바이, 가래자루야 다시 맞추면 되지 않아요.》

나의 어조는 어느덧 맛가지 않은 투로 변했다.

《이만한걸 어데서 구해? 몇년동안 손때를 먹인 건데... 작업조장이 가래자루 하나쯤 하기 시작하면 철호 같은 애는 열개를 꺾어 먹구두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할거야. 당초에 철들이 없다니까...》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아침에 작업조장을 할 때부터 우리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아바이한테 내가 그저 내내 그렇게밖엔 안보이는가요? 계속 시비질하고 깎아 내리고... 그거야 어디 재미 없어서 일하겠어요? 못해도 욕, 잘해도 욕... 그러니까 모두들...》 나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드덜기>라고 하는군요.》

하는 마지막말은 단침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나 그 말은 아바이 귀로도 흘러 든 것 같았다. 나는 아바이의 두눈에서 퍼런 불이 붙는 것을 보았다. 당장 격노한 울부짖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인상이었다.

아바이는 비칠거리며 점심구럭 있는데로 걸어갔다.

그는 술병을 꺼내들더니 입으로 병마개를 따던지고 꿀꺽꿀꺽 들이켰다. 빈 병이 데굴데굴 굴러갔다. 아까 점심에 권했을 때에는 쓴외보듯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알거던...》 하고 한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그였었다.

나는 당장 내 잘못을 후회하였다. 아버지 같은 사람 보고 내가 너무 당돌했구나! 화술을 마시는 아바이의 마음속 괴로움이 나까지 칭칭 얹어 매는듯 하였다. 그렇다고 서둘러 용서를 빌수도 없었다. 그의 얼굴빛이 너무나 처절하여 곁에 다가가기도 어려웠다.

《아바이! 가래자루는 내가 부러뜨렸어요.》

철호가 소리쳤다. 그 애는 자기때문에 이 일이 벌어 졌다고 생각한것이였다.

그러나 홍기아바이는 뒤도 돌아 보지 않고 가 버렸다. 그날을 마감으로 아바이가 술을 끊어 버렸다는것을 나는 후날에야 알았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칭찬할줄 모르는 채홍기아바이, 본조장이 된 오늘 나는 왜 이리도 그의 칭찬을 받고 싶어 지는것일까?

나의 아버지처럼 나도 그의 추억속에 훌륭한 모습으로 남고 싶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숙희아주머니

키도 작고 눈, 코, 입이 모두가 자름자름하여 《자투리》로 통하는 숙희아주머니에게도 처녀때에는 그 어떤 매력이 있었는가보다.

그의 남편이 총각때 정신없이 반했었다고 하니 말이다. 그런데 그 열정은 어디로 다 새버렸는지 이제 와서는 안해를 물 건너 간 지평이 한가지로 대한다는것이였다.

그는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에 자기네 식구까지 한구들 되는 인간들의 온갖 치닥거리를 도맡아 해주고 아침부터 한김 빠져서 일터로 나온다.

그런 그가 불쌍했던지 본조장은 지난해 논물관리를 그에게 맡겼었다. 노상 지각하는 그에게 베푸는 일종의 《배려》였다.

《아무래도 물관리공을 한사람 뒤편 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거나 한가지 말아서 하구레. 집일도 짬짬이 보면서...》

본조장이 신심 쓰듯 하는 말에 숙희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서 따지듯 물었다.

《그러니까 난 웅근 한사람측에 못든다는 말이지요. 본조장이 신심 쓰듯 하는 말에 숙희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서 따지듯 물었다. <자투리>라니까 정말 재단하다 남은 쪼박지로 보는게 아니에요?》

《자투리가 어드래서요? 배개모랑 신갈개랑 만드는데 쓸모가 좀 많대구요? 공연히 생천을 자르겠소? 허허... 그건 룡담이구 논물관리처럼 책임적인 일이 어디 있겠소? 뻔히 알면서 그러누만.》 그래도 숙희아주머니는 썰쭉한 얼굴이였다.

논물관리는 쉬운것 같애도 힘든 일이다. 큰 비나 오지 않고 보급수나 제대로 들어 오면 팔짱 끼고 놀아도 아무 탈이 없을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논농사는 물농사라지 않는가?

매 배미의 물온도를 재어 보고 고온이나 저온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높이와 벼생육간의 관계, 물높이와 병해충과의 관계, 비료와 논약살포때의 물높이조절, 장마철의 논두렁관리...

이 모든것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책임적으로 해야 하는것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한해 벼농사를 망치고 만다.

그러나 숙희아주머니는 그렇지 못했다. 시비시

약공인 나는 그와 늘 손발을 맞출수가 없었다.

비료를 뿌리려고 논고를 막아 달라는데도 제때에 하지 않아 일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살초제를 치겠다는데도 물을 뽑아 놓지 않아서 최대의 약효를 낼수 있는 시간을 놓쳐 버린 때도 있었다.

암만 성을 내어도 작은 눈만 까박거릴뿐 겁이 하나도 없는 그앞에서 나는 절망조차 느끼곤 했다. 나는 생각끝에 본조장을 찾아 가 시비시약과 물관리를 내가 다 겸하겠다고 했다.

《그건 안돼.》

본조장은 단마디로 잘랐다.

《왜 안돼요? 난 농학준기사예요. 날 못 믿겠어요?》 하고 나는 사정하듯 달라붙었다.

《야-참, 이제 와서 <자투리>보구 어떻게 물관리를 그만 두라고 하겠나? 그도 사람인데 장기쪽처럼 뻗다 붙었다 하는걸 그래 좋아 할텐가?》

본조장의 말을 듣고보니 난처한 일이라고 할수도 있었다.

《그래도 말해야지요. 그러다가 벼농사를 망치겠는데두요? 본조장이 말하기 딱하면 내가 하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숙희아주머니도 농장원인데 일이 잘되는걸 바라지 안될걸 원하겠는가?

내가 물관리를 인계해 달라고 하자 그는 까부장해 진 눈길로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본조장이 말하긴 하더군요... 물관리가 그렇게 까다로운줄은 또 몰랐지요.》

그는 15년이나 아래인 나에게 언제나 깍듯이 존대를 했다. 나한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았다. 그러던 그가 감정이 격해 지자 말투까지 변하는것이였다.

《야-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농사일은 나 같은 <자투리>도 하는 일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창훈이, 사람을 너무 엄수이보지 말어. 전문학교졸업증이 뭐 박사증이나 되니? 너 같은 사람이 본조장 될가봐 겁난다야. 나 같은걸 썸에나 넣겠니?》

그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방금 울것 같았다.

나는 더 마주 서 있기가 무엇하여 인수로를 따라 걸어 갔다.

《너무 속 태우지 말아요. 이제라도 배우면 되지요 뭐.》

뒤쪽에서 송이의 목소리가 울려 왔다. 돌아 보니 송이와 그가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누가 뭐 물관리공자리가 탐나서 그러는줄 아니? 사람값에 쳐주지 않는것이 분해서 그러지.》

숙희아주머니의 새침한 목소리였다.

《그 사람이야 원래 그런걸요. 아무한테나...》

《글쎄말이야. 제가 똑 제일인줄 알지. 너무 꼬쟁이가 돼서 이담에 어떤 색시를 얻겠는지 속깨나 썩겠어. 송이, 넌 제발 저런 총각 사귀지 말어.》

내가 지내보니까 남자들은 무거운 편이 나아.》

《...》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크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잘 들렸다. 인수로의 물이 전화선처럼 그들의 말을 고스란히 전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구? 내가 어떻다는 건가? 송이, 너는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나 무엇을 그에게 설명할 수 있으랴.

시비시약과 물관리를 겸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알비료생산, 분무기작업, 암모니아수시비 같은 것은 둘째 치고라도 쑥을 베여다 삶아서 식물성 살충제를 만드는 일, 각종 식물의 즙을 채취하여 성장자극효과를 관찰하는 일 등 내 스스로가 연구실험 삼아 해보는 일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백여개나 되는 논고를 일일이 돌아보고 물높이를 조절해야 했다.

고기를 잡겠다고 논고를 들쭉서 놓는 조무래기들을 쫓느라고 밤을 새운 적도 많았다.

개구리들이 지칠 줄 모르고 울어 대는 여름밤, 텔레비존방영시간도 다 지나 밤이 이슬할 무렵 무릎우에 턱을 고이고 논두렁에 앉아 있느라 먼 나뭇잎의 뒤에 말없이 다가와 내 등을 어루만져 주는 다정한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였다.

불치의 병에 걸려 가지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별을 떠나지 않은 나의 아버지, 논두렁을 메고 순직한 그 아버지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 환각속에서나마 찾아 오는 것이었다.

농가들의 돼지우리과 하수도의 물이 논으로 흘러 들도록 작은 도랑들을 짚고 비 오기 전에 논두렁대책을 잘라서 아까운 논물이 한지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일기에보를 명심해 듣고...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어린 망막속에 새겨진 아버지의 일과였고 오늘날 나의 일과로 되었다.

그렇게 애 쓴 보람이 있어 지난해 벼농사는 꽤 좋게 되었다. 실한 벼이삭이 배미마다 가득 차고 내 마음속에서도 이삭이 여물어 갔다.

그런데 예상수확고판정결과는 시원치 못했다. 다른 분조와 도토리키 대보기였던 것이다.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잘된 것 같았는데 수관과 전자수산기에 나타난 수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내가 바라는 수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스러워서 벼이삭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가, 아니면 자기네가 안고 있는 낱알의 무게를 낱알이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러운가. 벼바다가 굼니는 소리도 나에게겐 아프게만 들렸다.

나는 기술원을 찾아 갔다. 그는 평뜨기한 생종량과 물기를 빼낸 건중종량, 그에 따르는 포전별, 필지별 수확고가 상세하게 적힌 예상수확판정종합표를 보여 주었다.

《판 분조보다 특별히 월등하진 못해도 어쨌든 수확고는 3분조가 제일 높아. 공지를 가지라구.》

나는 그의 말을 등뒤로 들으며 밖으로 나왔다.

예상판정결과가 썩어 진 속보판앞에 우두커니 서있는데 속히아주머니가 나타났다.

《재수 없는 사냥꾼 곰 잡아도 열이 없다더니 거기서 그 격이 났수다레.》

나는 울컥해 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우리 분조에선 암만 뛰여 다녀야 짚신에 국화 그리기예요. <조절위원회>가 동작했겠는데 뭐.》

그는 입속말로 쏙알거리더니 크라프트종이로 표지를 해썩은 두터운 책을 읽으며 아실아실 걸어 갔다. 그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사야 어떻게 되든 그 녀인의 가슴속에는 물관리공자리를 내놓던 여름날의 그 불쾌감만이 웅이처럼 박혀 있는 모양이었다. 야속하였다. 정말 그는 인간자투리인가? 생각하니 가슴만 답답해졌다.

올해의 물관리를 대담하게 맡겨 볼까 생각을 했으나 인차 머리를 짓고 말았다.

내 체면을 세우고 그의 환심을 얻자고 벼농사를 모험할 수는 없다. 물관리는 올해에도 내가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도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이다.

주봉실아주머니

주봉실은 차영세분조장의 고삐나 같은 존재였다. 모내기지원자들의 식사보장, 5월명절날의 분조별료리경연, 상가집이나 잔치집의 부조에 이르기까지 분조앞에 제기되는 일체 대소사를 전부 주봉실이 주동이 되어 좌지우지하였다. 어쩌다 말다툼이 일어 나가나 시비거리가 생겨도 역시 주봉실이 나서서 관계를 조절하였다. 그래서 《조절위원회》라는 말도 생겨 난 것이었다. 속히아주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한 《조절위원회》소리를 듣자 나는 곧바로 주봉실의 집을 찾아 갔다.

예상판정보조성원으로 동원되었던 그를 만나 씨원히 알아 보고 싶어서였다.

전기교차조직으로 우리 분조는 야간에 벼탈곡을 하고 그날 낮에 쉬고 있었다.

그 집 프락에 넣어 놓은 강냉이방석우에서 울긋불긋한 수돗 한놈이 한바탕 난알을 쪼아 먹고 있었다. 나는 조그만 돌맹이를 그놈에게 던졌다. 야단스러운 꼬덕소리에 부엌문이 열렸다.

걸어 올린 팔뚝이 시뻘겋게 익은 주봉실이 나왔다. 이어 엄살스러운 목소리가 반색을 했다.

《분조장님! 마침 창훈이가 옴네다레. 어서 들어와요. 어서요.》

그러자 마루우에 차영세분조장이 나타났다.

《오-창훈이! 금방 널 찾으러 가자던 참이야.》

나는 별스레 반가와 하는 그들의 손에 이끌리어 집안에 들어 섰다.

노란 장판방에 알른거리리는 상이 놓였는데 하얀 송편점시와 노란 콩나물, 시뻘겋은 양념을 바른 두부그릇이 먹음직스러웠다.

《울어름에 네가 제일 혼났지. 분조 벼농사는

사실 너 혼자서 한거나 갈애. 자, 어서 들자구.»

분조장은 나의 팔을 끄당겨 상앞에 앉혔다.

《이건?... 무슨 잔치라도 하는가요?》

나는 어리둥절해 저서 이렇게 물었다.

《먹는 모퉁이에 들면 먹어 주면 되는것이고 우는 모퉁이에 들면 울어 주면 되는거야. 자, 들자니까.》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년장자인 분조장이 각근히 권한는데 마다하기도 딱해서 할수없이 마주 앉았다.

《오늘저녁 야간탈곡 나가기전에 저녁식살 여기서 다같이 하자는거야. 한상에 둘러 앉는 계기를 더러 마련해야 사람들이 자연히 더 가까와 지거든... 다들 혼났지. 죽을 먹구 농사 짓느라구... 그래서 이틀테면 가을잔치를 차린 셈이지. 그제 농민은 이 가을을 믿고 살지 않겠나.》

분조장은 코안이 매워 오는지 손등으로 코날개를 이리저리 문대었다. 나도 눈어방이 후끈해 졌다.

《난 예상수확고관정이 잘못된것 같아서 왔됐어요. 어디서 오차가 생기던가 면적이 잘못된것 같아서요. 분조장동지는 뭐 다르게 생각되는게 없나요?》

나는 궁금하던것을 물었다. 분조장이 빙그레 웃었다.

《면적? 그래, 면적도 좀 지고 넘어 갔지. 천수답에다 콩을 심었으니까... 예비를 좀 찾다가 래년엔 박막이랑 비료랑 지원로력을 욕심껏 당겨 쓰자는거야. 창훈이가 수고한 덕에 그래도 수확고는 1등이니 얼마나 좋아. 내 그래서 자넨 이렇게 따로 찾은게야.》

그는 나의 어깨우에 뜨끈한 팔을 얹었다.

《?!》

나는 그제서야 이 자리가 깨끗치 못한 자리임을 알아 차렸다.

《아이구, 말도 말아요. 분조장이 예상수확고를 될수록이면 낫추 잡아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요? 다 분조농사때문에 그런것을 했지 열이 동이만 해도 그 노릇은 못하겠습디다. 10년 감수했다니까요.》

부엌새문가에 선 주봉실이 진저리치듯 머리를 흔들며 하는 소리였다.

나는 그제서야 모든것을 깨달았다. 예상수확관정에서 눈속임을 하고 콩을 심은 천수답면적을 논벼면적으로 잡은것이였다.

삽시에 울분의 급류가 가슴속의 골짜기들에서 터져 나오는듯 했다.

《이럴수 있는가? 쌀 한알이 금싸라크 같은 이때에 이게 무슨짓인가? 사람들이 풍년소식을 전승소식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난알때문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농민의 량심을 가지고 이럴수 있는가?》

이런 말들이 출구를 찾아 소용돌이쳤으나 한마디도 번질수가 없었다.

박막이 없어 애가 마르던 봄, 비료가 모자라 속이 타던 여름, 일손이 팔려 힘들던 나날들이 말문을 막아 버린것이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 섰다.

《분조장동지! 일이 잘된것 같지 않아요. 래년에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드래도... 우리야 농민이 아닌가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좋겠어요.》

분조장과 주봉실의 얼굴이 퍽퍽해 졌다. 그들을 뒤에 남기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나의 진정과 땀이 모옥 당한것이 분하기도 했고 분조장의 인정을 외면하는 내가 모질어 보이기도 했다.

광주리속에 들어 가 강녕이눈을 쫓아 먹던 수답이 나를 보자 흠칫했다. 먹이만을 찾아서 아무데고 들어 가는 그 짐승도 어떤 죄의식을 느낀것인가? 음식상앞에만 둘러 앉으면 사람들이 더 가까와 진다고? 농민은 그 멧에 가을을 기다린다고? 그래야 합심하여 일을 더 잘하리라?...

나의 아버지는 길가에서 주는 강녕이 한이삭도 탈곡장창자로 가져 갔었다. 콩청대 한번 벌려 놓을줄 몰랐어도 사람들은 한집안식구처럼 다정 하였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였다.

지금도 흥기아바이가 종종 하는 소리처럼 《사람답게 산》 나날이였다. 알곡생산에서 1등을 하고 분조전원이 농민휴양을 떠나던 기쁨, 풀베기가 한창인 삼복철에 얼음조각이 뚱뚱 떠도는 오이랭국동이를 가운데 놓고 피여 오르던 웃음소리...

처녀들은 땀에 뜬 아버지의 잔등에 부채질을 해주고 녀인들은 가독나무고깔에다 딸기를 따오고... 마치 아버지가 랑국동이를 들고 온게 아니라 사막의 생명수나 길어 온것처럼 떠들어 댔었다. 그속에 끼운 나도 멧 모르고 좋아 했다. 아름다운 한쪽의 수채화처럼 그때의 정경은 뇌리에 깊이 새겨 졌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허위와 거짓의 검은 붓으로 그 순결한 화폭에 먹칠을 할수 있단말인가? 땅과 농민은 나라가 디디고 선 터전이 아니겠는가? 딛고 선 땅이 거짓이라면 아무리 거대한 탑도 줄지에 무너지고 말것이다.

그 집에서 나와 동구길로 걸어 가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이때 골목길에서 송이가 급히 걸어 나왔다. 그는 붉게 상기된 나의 얼굴을 결눈으로 스쳐 보고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송이동무, 어데 가오?》 내가 물었다.

그는 얼핏 나를 스쳐 보더니 입술을 감빨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혹시 주봉실아주머니네 집에 가지 않았됐어요?》

《갔됐소. 이자 줌전에... 왜 그러오?》

송이는 뜻밖이란듯 나를 다시한번 쳐다보았다.

《그랬됐군요. 난 그래도 동무만은 그런데 섞이지 않았을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여럿이 함께 하면 정말처럼 되는가요? 참 유리한 <철학>이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나를 믿었었다는 그 말은 고마웠지만 거짓말 《철학》에 대한 그의 비웃음은 나를 아프게 자극하였다.

그는 내가 주봉실이네들과 한장단에 놀아 난것으로 넘겨 짚은 모양이었다.

거짓말도 여럿이 함께 하면 정말처럼 되는가고?

그는 분명 정초에 있었던 일을 녀두에 두고 말한것이였다. 그 추억은 나에게도 몹시 아픈것이였다.

진출자 김송이

그는 도소재지의 한 양복점에서 재단사를 하다가 우리 농장에 탄원진출한 처녀이다.

내가 그에 대해 아는것이란 성격이 발랄하다는 것과 행동이 민첩하다는것, 처녀들 고유의 수집음이나 애교보다는 사내애들처럼 당돌하고 여무진데가 있다는것뿐이였다.

《송이동문 왜 농촌진출을 결심했소?》

언젠가 나는 그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적이 있었다. 그는 전혀 예상밖의 대답으로 나를 놀래웠다.

《텔레비죤과 신문에 소개되고 싶어서요. 재단사로 이름을 날리기는 무척 힘들거든요.》

《신문에 난 이름을 유지하기는 더 힘들게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글쎄, 청년신문은 고사하고 분조신문에 나기도 보통 힘들지 않겠어요.》

그는 속보관을 《분조신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농장처녀들과 인차 어울렸고 나하고도 무릅없이 룡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였다.

그는 어느 경우에도, 누구앞에서도 주눅들줄 몰랐다. 오히려 수세에 몰릴수록 탕탕 튀어 났다.

어느 날 로동부원이 우리 일터에 온적이 있었는데 송이에게 애인이 있느냐고 물었었다.

《예, 있습니다.》

송이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결혼식할 때 보십시오.》 하는것이였다.

로동부원이 돌아 간 다음 내가 정말인가고 사실여부를 캐여 묻자 송이는 바스려지게 웃었다.

《영양단지를 빨리 찍어야겠는데 우리한테 오래 머물면 다른 조한테 질가봐 그랬어요. 저 사람은 처녀들한테만 오면 쓸데없이 말이 길어 지더군요.》

나는 아연해 저서 영양단지기계를 부지런히 돌려 대는 그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진짜 애인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어

쩌자구 그러오?》 하고 내가 걱정스레 묻자 그는 《창훈동무가 보증하면 되지 않아요?》라고 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구애도 느껴 지지 않았다.

그와 한조가 되어 재료를 배합해 주고 이겨 주는 일을 하던 나는 어느새 그의 성미에 감염된듯 하였다.

《나한테 애인이 없다면 송이동무와 친해 볼텐데 아쉽구만.》

습관되지 않은 룡담을 던진 나는 저도 모르게 목덜미가 달아 올랐다.

《피차일반이군요. 호호...》

송이가 또 웃었다. 도대체 누가 정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우리는 서로 알수 없었다. 이렇듯 아무 허물도 없던 우리들사이가 갑자기 멀어 진것은 비료전표사건때문이었다.

그것은 년초에 있었던 일이었다. 부족되는 비료를 진거름으로 보충하기 위한 생산경기가 벌어졌을 때였다.

나는 집주변과 동네에 진거름원천이 떨어 지자 달구지를 끌고 읍거리로 가자고 제의하였다.

처녀들이 뜨아해 하였다. 부끄럽다는것이였다.

하긴 견직공장과 피복공장은 처녀공장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처녀들이 씨글씨글한 곳이다. 바로 그 공장안에 생산해 놓은 진거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처녀들은 남아서 여기 있는데껏 원천을 찾아 보아라. 읍에는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가지.》 분조장이 이렇게 조직사업을 하자 처녀들은 환성을 질렀다.

《공장처녀들은 쌀밥을 먹지 않는대요? 별게 다 부끄럽겠어요.》

오히려 송이가 이리저리 다른 애들을 나무랐다.

송이는 그날 달구지를 끌고 나와 함께 읍에 다녀 왔다. 될수록이면 눈길을 수평방향보다 아래쪽에 주면서 견직공장후문으로 들어 갔었다.

붉고 푸른 외투들과 멋쟁이옷들, 부드러운 색깔의 솜옷들이 앞으로 뒤로 흘러 가고 흘러 왔다. 땀이 있는 손가방들, 반들거리는 너자용구들, 뽀얀 긴 양말에 싸인 날씬한 다리들이 우리들을 포위하듯 끝없이 다가오고 물러 갔다.

그러나 송이는 조금도 위축감을 느끼지 않았다. 돌아 오는 길에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창훈동문 이제야 활기가 도는군요. 안까는 막 논문건사도 제대로 못하는것 같더니... 부끄러워요?》

《동문 아무렇지도 않았소?》

내가 이렇게 되묻자 송이는 생긋이 웃었다.

《우리도 옷을 갈아 입으면 다 같은 사람인걸요. 그 처녀들도 현장에서야 별별 험한 일을 다 할텐데 공연히 주눅이 들 리유가 있겠어요? 오히려

빠졌하지요.》

송이는 안 그러냐는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돋보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는 일하러 나오지 않았다. 숙소집에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읊으로 갔다.

그날 저녁녘이었다. 숙보를 쓰고 있는데 차영세분조장이 싱글벙글하며 다가왔다.

《이것 보라구. 송이가 이틀사이에 비료 5t 을 끌어 왔어. 그 애 삼촌이 자재공급소 비료공장주재인수원이라는구만. 아, 글썄 처녀가 겁도 없지.

그날 읊거리에 다녀 와서 밤에 혼자서 거길 갔댔대. 자네가 송이랑 같이 비료공장에 좀 다녀 오라구. 차편까지 구해 주겠다고 했다니까 호송만 해오면 된대.》

분조장은 시뻘건 도장이 여러개 찍힌 비료전표를 나한테 주고 어데론가 사라졌다.

《에에- 이젠 구점스럽게 읊에까지 진거름 실려 보내지 않아도 되겠군. 처녀들이 질색을 하더니...》 그가 중얼거린 말이였다.

나는 비료전표를 보는 순간 자신의 렬등감을 어쩔수 없이 느꼈다. 건직공장구내에서 느끼던 감정하고도 같지 않았다. 태연한척 하던 송이의 가슴속에 얼마나 큰 모멸감이 숨어 있었는가를 깨닫자 모욕 받은 자존심으로 속이 메스거렸다.

《고달프게 애 쓰지 않아도 1등은 우리거구나.》

《우리한테도 송이 같은 힘을 가진 애가 있었으면 좋겠지?》

《앞으로도 송이 삼촌이 톡톡히 도와 줄수 있겠지.》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어느새 퍼진 비료전표이야기는 각이한 반향을 일으켰다. 거기에는 그들이 비껴 있었다. 자기들의 사회적지위에 대한 야릇한 렬등의식, 행운에 대한 유혹, 투쟁에 대한 체념... 나는 그 모든것에 반발하듯 쉬는 날 사회작업으로 모든 청년동맹원들이 읊거리에 가서 남아 있는 진거름을 실어 오도록 포치사업을 했다. 나는 작업반 청년동맹비서였던것이다.

그런데 쉬는 날 모이자고 약속한 장소에는 송이 혼자만 나와 있었다. 다른 처녀들은 국립회극단의 순회공연을 보러 읊에 갔다는것이였다.

송이가 부비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그것을 허락했다는것을 알았을 때 나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중-소! 이 문제는 조직적으로 해결합시다.》

송이는 아연해 진 얼굴로 책 돌아서 걸어 가는 나를 지켜 보았다.

나는 청년동맹회의를 열었다. 송이의 비조직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벌어졌다. 놀라움, 실망, 수치감과 좌절감이 그의 얼굴에 글로 쓴듯이 나타났다가 폭 숙인 고개밑에 가리워 지고 말았다. 그의 몸부림은 나에게도 충

격이었으나 나는 팽정하려고 애 썼다.

회의를 결속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르듯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주어 하고 싶던 말을 하였다.

원썬들은 우리에게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들이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짐승무리처럼 변할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 분조가 비료 5t 을 가져다 놓고 웃음 지을 때 바로 그때문에 더 힘들어 진 분조가 있다는것을 잊지 말자. 이것을 모른다면, 모르는체 한다면

우리는 결국 원썬을 도와 주는것으로 된다. 붉은기를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결국 인간의 량심을 지키는 투쟁이다. 온갖 거짓과 허위를 배격하고 진실한 녀과 순결한 량심으로 붉은기를 휘날려야 한다. 이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앞장 서자! 내가 한 말의 골자는 이런것이였다.

회의가 끝나 모두가 헤어져 갔으나 송이는 움직일줄을 몰랐다. 나는 내가 너무 가혹했다는 자책도 없지 않았으나 달리할 말도 없었다.

전자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가늘게 책각거리는 방안에는 우리 두사람의 침묵으로 전등빛마저 어두워 진듯 하였다.

나는 먼저 밖으로 나왔다. 숨이 가빠서 앉아 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를 위로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무슨 말로?... 송이는 여전히 안 나온다. 처안에서 밤을 썰 작정인가?

나는 다시 문을 열었다. 그는 그때에야 천천히 일어났다.

《청년동맹비서동무! 고마워요. 조직적으로 내 문제를 도와 주어서... 개별적방법으로 저를 이길 자신이 없었는가 보지요?》

그의 찌르는듯한 눈길이 나의 얼굴에 날아 와 박혔다. 이렇게 망신 주어야 씨원한가요? 하는 속대사가 강하게 울렸다. 하나를 통해 열을 치려고 한 나의 뜻을 그가 모른단 말인가? 섭섭했으나 설명하기는 싫었다.

《이젠 가지 않겠어요? 텔레비죤소설시간이 지나가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송이의 어조는 다시 태연해 졌다. 그러나 눈빛은 결전을 치르고 난듯 초연했다. 나는 자기를 이겨 낸 그를 감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가가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나는 대답했다. 청년학교문을 나서며 송이는 손바닥을 털었다. 좁안에 쥐고 있던 찢어 진 종이조각들이 밤나비처럼 이리저리 날아 갔다. 그것은 비료전표였다.

나는 나의 심장이 그렇게 갈가리 찢겨 저 버린듯 했다.

우리는 나란히 마을로 향했으나 헤어질 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다.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가 매끈매끈한 편지봉투의 감각을 느꼈다. 아까 통신원한테서 받아 넣은것이였는

데 송이한테 온 편지였다.

그의 숙소집앞에 이르렀을 때에야 나는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아까 우편통신원이 준거요.》

송이는 달빛에 걸봉을 읽어 보고 숨웃안주머니에 넣더니 《잘 가세요.》 하고는 들어 가 버렸다.

나는 어쩐지 서운했다. 누구한테서 온 편지인가 물어라도 보았을걸... 똥판지같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걸봉에는 《신의주에서 벗으로부터》 이렇게 써여 있었던것이다. 혹시 애인한테서 온건 아닐까? 부디 아니였으면... 하고 바라는 나를 깨닫자 가슴이 벌스름하게 뛰었다. 그는 나를 원망했을테지. 얼음장같이 차거운 사내라고 욕했을테지. 방금전 같이 걸어 올 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했을걸...

나는 그의 숙소집을 자꾸 돌아 보며 걸었다.

아, 나에게도 피 더운 심장이 있다는것을 송이가 알아 준다면서!...

그때부터 그는 나를 멀리하였다. 다른 사람들과는 변함없이 유쾌하게 섞였으나 나와는 꼭 간격을 두고 《청년동맹비서동무》로 대하는것이였다. 그렇다고 그를 나무랄수는 없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개별적방법으로 저를 이길 자신이 없었는가 보지요?》 하고 그는 말하지 않았던가.

그랬다. 나는 그를 이길 자신이 없었다. 아마 그것은 분조장이 되어서도 같을것이다.

옳은것이 그른것을 부정하고 타매하는것은 엉당한것이지만 그 옳은것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어차피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것이다. 그 괴로움도 사람을 가꾸어 주는 생활의 학년이라고 나는 자신을 위안하였다.

복잡다단한 생활의 바다를 나는 진실의 샷대를 쫓고 건너 갈것이다. 그가 농장원이든 분조장이든 사람들앞에, 생활앞에, 땅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한 사랑을 받을것이다.

주길손필지

로전별 토양분석과 그에 따르는 퇴비반출도 끝났다. 로동행정규률을 엄격하게 세웠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마다 매 분조가 돌려 가며 부치는 《주길손필지》 2천평이 제일 문제다. 올해에는 우리 분조가 부칠 차례가 된것이였다. 물을 대는 족족 새여 버리는 그 필지는 물대기도 모내기도 김매기도 힘든 《속상한 필지》이기도 하다. 주인이 없이 해마다 돌려 가며 부친다고 《불쌍한 필지》, 일하기가 말쑥하다고 《속상한 필지》라고도 불리운다.

이 필지옆에는 그리 크지 않은 늪이 있고 늪옆으로 지나간 큰길을 넘어 서면 천양천이라 부르는 대령강의 지류가 흐른다.

물을 가까이 두고서도 주길손필지는 해마다 갈중에 시달리는것이다.

나는 늪을 파내어 물이 새지 않게 흙갈이를 하는것이 어떻느냐고 작업반에 제기하였다.

《좋지. 한데 올해는 반에서 도와 줄 힘이 없구만. 천양천소형발전소건설이나 끝난 다음에 보자구.》

반장이 타이르듯 하는 말이었다. 곁에 있던 4분조장이 비린 청으로 소리를 질렀다.

《여 3분조장, 이도 안 나온게 빠다귀처럼할 생각은 그만 두고 래년에 우리한테 넘기라구.》

나는 더 우길 용기를 잃고 작업반실에서 나왔다. 오는 길에 차영세아저씨의 집에 들렀다.

《...한해 그렇그렇 지나가면 래년에는 딴 분조가 부치게 되구 그 다음엔 5년만에야 다시 우리한테 돌아 오는데 공연히 힘 빼지 말라구. 그 일이 아니라두 분조장은 열두번 곤두박질을 해야 돼. 반공동일에 손발 걷고 나섰대야 우리만 손해야. 사람들을 아끼라구.》

그는 이런 말로 《조언》을 주는것이였다.

나는 그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잡아 끄는것을 가까스로 떼여 놓고 그 집을 나섰다.

《내가 또 욕 먹을 소릴 한게 아닌가?》

나의 얼굴빛을 보고 그가 게면쩍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저 씩씩히 웃어 보였다.

흥기아바이를 찾아 갔으나 집에 없었다. 어디에 갔는지는 안주인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스적스적 발길이 닿는대로 걸었다.

공동으로 하는 일에는 적당히 나서야 한다고? 그런것이 집단생활규범이라면 당초에 선구자나 혁신자라는 말은 왜 필요한가? 제일 낮은 키를 기준으로 모든 일을 설계한다면 세상은 진보할대신 아득한 태고적 석기시대로 후퇴해 가고 말것이 아닌가?

와세식굴착기를 실은 견인차가 두대씩이나 지나가며 먼지를 들썩웠다.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앞세우고 사람들은 저렇듯 부단히 앞으로 달리고 있는것이다.

저 운전수가 나의 형쯤 되었으면! 그래서 꼭 하루만, 아니 단 한시간만이라도 늪을 파주었으면! ... 그러자 문득 밤나비처럼 흩날리던 비료전표가 생각났다. 그래! 아무에게나 원칙은 하나인것이다. 내 힘으로, 분조의 힘으로 해보자. 발걸음은 어느새 늪을 가까이하고 있었다.

늪가 동쪽우에서 담배불 같은것이 반짝거렸다. 가까이 가보니 흥기아바이였다. 어둠속에 오금을 꺾고 앉은 그의 모습은 정말 드물기 같았다.

《여기 나와 계신걸 집에 찾아 갔됐군요.》

나의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턱을 쳐들었다. 왜 그러느냐는 표정이었다.

《이 늪을 파서 주길손필지에 깔아야겠는데 그 의논을 좀 하려구요.》

《작업반에서 좀 도와 주겠다던가?》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했다.

《하긴 도와 줄 거력이 없을거야.》
《우리끼리 파야지요. 인원이 25명이나 되는 데...》

나의 말에 아바이는 쿵쿵 코소리를 내었다.
《사람이 백명이면 사정두 백가지야. 구실은 오백가지두 더 되지 않으리. 동원이 될가?》
아바이는 눈을 지릅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동원 안되면 나 혼자서라도 해야지요.》
《틀렸어!》
갑자기 아바이가 소리쳤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분조장이라는게 그렇게 궁리하면 되나? 어떻게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감동시켜서 일이 성사되도록 할 생각은 았구. <나 혼자서라도 해야지요>가 뭔가? 물관리두 혼자, 시비시약두 혼자, 늪 파는것두 혼자... 그럼 자네 혼자서 다 해보게 나.》

아바이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나는 거기서 뜨거운 진정을 읽었다.

《아바이, 한두평두 아니구 2천평이나 되는걸 해마다 배구뿔처럼 여기저기 넘겼으니 얼마나 술한 낱알을 잃었나요? 아바이도 말씀했지요? 우리 아버지하고 일할 땐 사람답게 살았다구요. 농민이 낱알을 버리고 땅을 천대하면서 저만 편안하게 살아 가지고야 그게 무슨 사람답게 사는거겠나요?》

나는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열변을 토하였다.
아바이는 담배불을 비벼 끄고 돌등에다 딱딱 물부리를 털었다. 그는 어떤 내심의 충격을 느낄때면 그렇게 행동하곤 하는것이였다.

그는 천천히 내앞으로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나를 덥석 업는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렴 왕대밭에 왕대가 나겠지. 그 아버지예 그 아들이 분명해. 리정직의 아들답단 말이야. 하하하...》

아바이는 머리를 젖히고 기분 좋게 웃었다.
나는 아버지곁에 안긴것 같았다. 온갖 시름이 다 날아 간듯 하였다.

《아바이, 난 두려워요. 꽤 해낼수 있을까요?》
나는 철 없는 어린애 심정이 되어 아바이에게 물었다. 그의 고무와 격려를 받고 싶어 졌던것이 다.

《거야 분조장한테 달렸지. 모두 자네를 민구 분조장으로 선거했는데 구실을 못하면 안되지. 난 자네가 꼭 이 필지를 개간할줄 알았네. 그래서 찬성했어.》

《예? 찬성했다구요?》
나는 하마트면 이렇게 소리칠번 하였다. 분명히 반대했을줄 알았던 홍기아바이가 나를 찬성했다니 놀랍기만 하였다.

《뭘 보구 알았습니까? 제가 여길 개간하리라는 걸.》

내가 묻는 말에 아바이는 또 쿵쿵거렸다.
《왜 몰라? 하는 잡도리를 보면 다 알지. 재목을 보면 기둥감인지 서까래감인지 제격 아는거나 같은 문세야.》

《난 사실 아바이가 저를 반대한줄 알았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나를 그렇듯 높이 생각하고 있는 아바이를 욕되게 여긴것 같아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아바이는 흠- 하고 소리없이 웃었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사람들이 무얼 보고 저를 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는데...》

아바이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왜 찬성했느냐구? 우랑종이 돼서 그랬지. 앞으로 좋은 결실을 우리한테 가져다 줄것이라구 믿어지더군. 농장의 앞날을 맡길만 하다고 본거야. 숙희두 주봉실이두 송이두 다 그렇게 말하더구만. 자넨 리정직의 아들이 아닌가. 젊은 자네가 아버지처럼만 일하면야 앞으로 우리 농장이 얼마나 좋아 질텐가. 그걸 보구 찬성했다네.》

《!...》
아,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들은 어려운 오늘보다 희망찬 래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봄날에 심은 한알의 씨앗에서 풍성한 가을의 무르익은 열매를 그려 보는 농민의 소원처럼... 젓먹이를 키우며 릉름한 장수를 소원하는 어머니의 꿈처럼... 천년을 지새고 만년을 뽐낼 다함이 있을가. 이 사람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라면 내 산도 허물리랴. 사품치는 강도 막으리라. 이 순간 나에겐 모든것이 가능하게 생각되었다.

《이걸 파내서 깔면 물이 새지 않아서 좋아, 거름이 되니 좋아, 천양천을 끌어 들이면 저수지가 생겨, 거기다 양어까지 하면 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볼 때는 격이 아닌가. 이놈의 늪만 보면 늘 군침이 돌렸는데 자네가 하겠단 말이지. 이왕이면 판을 크게 벌리자구. 힘들거 없어. 군대들처럼 땀다 밀면 돼.》

아바이는 금시 10년은 더 젊어 진것 같았다.
나는 지난해에 물길공사를 벌리던 군인들을 생각하였다. 우렁찬 목고소리, 바위를 까내는 메질소리, 역수로 쏟아 지는 비발속에서 군관도 전사도 한덩어리가 되어 질통을 지고 달리며 진창길에 쓰러지며... 그속에서도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던 구인들의 모습이 청동의 군상처럼 우뚝이 떠올랐다.

군인과 농민은 서로 공통점을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농민들은 마땅히 군인성격을 지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우리도 군대처럼 살아야 한다.

《주봉실이가 좋아 하겠군. 늘 주길손이라는 이름을 때버리자고 하더니...》

아바이가 추연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나는 그제서야 주길손필지의 래력을 생각하였다. 원래는 모래기가 많아 《모래들》이던것이 토지개혁때 주길손농민이 분여 받은 다음부터 《주길손들》로 불리웠다는것을 나는 어릴적부터 알고 있었다.

그 주길손이가 바로 주봉실의 아버지였었다.

주길손농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일시적후퇴때 피살 당하였다.

《엇그제 주봉실이가 하는 말이 <올해엔 우리 분조가 그 땅을 부칠 차례인데 땅구실을 바로 할가요? 창훈이가 분조장을 하면 일이 바로 될것 같아서 찬성하긴 했는데...> 하더구만. 사람 보는 눈은 다 같은 모양이지?》

나는 뜨거운것이 혈관으로 흐르는것 같았다.

이 땅의 첫 주인이 되어 감격에 울고 환희에 웃던 수백수천의 주길손이들과 그 후대들이 나를 지켜 보는듯 하였다.

《주길손필지》-반세기이전부터 씌여 지기 시작한 이 고유명사가 절대로 《불쌍한 필지》로 바뀌여서는 안될것이다. 몇세기가 흘러 가도 《주길손필지》로 불리우도록, 애국농민 주길손이 대대손손 추억되도록 기어이 개간하고야 말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어둠속에서 인기척이 났다. 차영세였다. 그는 마른 장작을 한단 안고 있었다.

그는 장작개비들을 고깔처럼 세워 놓고 불을 지켰다. 으시시하던차에 불이 반가왔으나 무슨 영문으로 그가 장작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알수 없었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늑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어쩐지 마음이 긴장해 졌다.

《내 아까부터 아바이랑 하는 얘길 다 들었수다.》

《...》

모닥불가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바이, 난 종자를 닦아 먹은 놈이나 꼭 같았지요. 내가 분조장을 좀 더 했으면 아마 사람들을 종자도 안 남기고 다 망쳤겠지요? 우랑종이구 뭐구... 그래서 벌을 받았지요. 천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저주를 받은 셈이지요.》

그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씹어 뱉듯이 괴롭게 중얼거렸다.

《차영세, 이 사람!》

문득 홍기아바이가 그의 손목을 툭 잡으며 뜨겁게 불렀다.

《홍기아바이!》

《분조장!》

《영세아저씨!》

우리 세사람의 웨침소리가 모닥불 피는 동쪽우에 시처럼 울렸다. 우리의 머리우에선 찬란한 별바다가 아름다운 밤의 노래를 안고 미소하고 있었다.

우리 분조원들

늪바닥파기가 거의 끝나갈 때 다른 분조장들이 자기네 로력을 데리고 도와 주러 왔다.

《이 친구 성가스럽게는 노는구만. 어디 두고 보자, 도와 달랄 때가 있겠지 했는데 죽어라 하구 가만 있구만. 할수없이 자진해 왔네.》

4분조장이 비린 청으로 떠들어 댔다.

《저수지가 생기면 우리 분조 논도 그 덕을 볼텐데 가만 있을수가 있어야지?》

《난 영양단지채료가 탐나서 왔어.》

분조장들이 저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일은 쑥쑥 자리가 나고 수로공사와 양수장건설, 천양천 물을 끌어 들이는 물길공사까지 불이 번쩍 나게 해치웠다. 마침내 저수지가 생겨 나고 맑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한 《주길손필지》를 적시기 시작했을 때 주봉실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감탕흙을 지고 뛰어 다닌 송이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어려 있었다.

《난 말이에요. 일 잘하고 마음 고운 사람들은 제일 값지고 훌륭한 옷을 입고 일하기 싫어 하고 마음이 검은 사람들은 누대기를 걸쳐야 한다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우리 분조 사람들에게 제일 아름다운 옷을 내 손으로 지어 입히겠어요.》

송이는 동화와 같은 꿈에 잠겨 이렇게 말했다.

《체, 그럼 내가 제일 나쁜 옷을 입겠구나.》

철호가 불멘소리를 했다. 제 스스로가 자기를 락후한 대렬에 놓는것이 우스워서 모두들 웃었다.

《그럼 제일 선참으로 분조장옷을 지어야 할걸.》

《좋은 옷을 입고서야 일 잘할 재간이 있나?》

《송이, 너도 이제 농촌치녀가 다 되었다야. 처음 나왔을 땐 선녀 같더니...》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떠들어 댔다.

《자, 쓸데 없는 말장단들은 그만하고 작업총화를 지읍시다.》

내가 소리쳤다. 말소리들이 칼로 자른듯이 끊어졌다. 순간 나는 서운함이 비낀 송이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흙탕얼룩이 간 바지, 감탕투성이 로동화, 누빈 솜옷우에 진 질통, 별바람에 탄 얼굴...

문득 분조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의 송이가 그 모습우에 덧놓였다.

반짝거리는 하얀 구두, 허리선이 잘록한 양복저고리, 부드러운 머리다발속에서 빛을 뿌리던 빈침, 향기가 풍기는듯 하던 흰 살결...

서글퍼 보이는 그의 눈동자가 다시금 흥벽을 끓어 내렸다. 왜 그럴까? 양복점 채단사시절이 그리워 진걸까? 농장에 단원한것을 후회하는걸까? 그러자 내 마음까지 이상하게 쓸쓸해 졌다.

왕가물이 휩쓸었지만 우리 분조 논배미들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흐렷흐렷했다.

파란 채양모자를 쓴 물관리공 숙희아주머니는 그 논배미들을 다람쥐처럼 뱅뱅 잡아 돌았다.

그가 농업전문학교 물관리학교재를 뜯금으로 외우다싶이 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던가? 더구나 농기구공장에 다니는 그의 남편이 수지로 만든 자동물고를 가지고 안해와 함께 찾아온데는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자투리를 면해야겠다고 매일밤 이걸 읽는데 우리 광철이 아버지가 <여보, 당신 이제야 옛날 매력이 다시 살아 나는구만.> 이러지 않아. 그 말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맙던지 훌쩍거리고 울었다니까. 시집 온 뒤로 이제야 사는 재미를 아는것 같애.》

이것은 숙희아주머니가 자기또래 녀인들앞에서 한 《다시 살아 난 김숙희의 매력》의 한 대목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는 그를 《자투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농사전망이 확고해 지자 사람들은 성수가 났다.

극한점에 이른 무더위와 싸우면서도 저마다 뒤통지 양으려고 강냉이밭김매기에 최대의 마력을 내었다.

온갖 잡초들을 시원히 뽑아 버린 강냉이밭은 미역을 감고 난듯 멀쭉해 졌다.

《분조장동무! - 좀 나오시라요오!-》

까마득히 보이는 밭머리에 녀인들 셋이 서서 소리를 질렀다. 산전산후휴가를 받고 집에 있는 아낙네들이었다.

《분조장, 우리 같은 <5개월유급로력>들이 분조에 셋씩이나 되니 얼마나들 더 힘들겠어요?》

도산원에 후송되어 가서 금동이, 은동이 쌍둥이아들을 낳아 가지고 온 인숙아주머니가 하는 말이었다. 옆의 녀인들이 어줍어 하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 셋이 후방사업이라도 하자고 해요.》

삶은 울감자와 깨국, 오이나물이었다.

《사실 우린 분조장한테 큰 죄를 지었다우.》

쌍둥이엄마가 스스럼없이 말꼭지를 떼었다. 나는 눈이 덩돌해 졌다.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던 말인가?

《창훈이가 분조장이 되면 우리 애기엄마들을 제일 북아 댈것 같아서 투표할 때 반대를 했다우. 나만 그랬나 했더니 우리 셋이 다 그랬더라니까.》

《애개개... 입도 헤프다. 제 소리나 할게지.》

옆의 녀인들이 질겁을 했다.

《하하하...》

나는 큰소리로 웃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랐다. 웃음끝에 고마운 눈물이 펴 돌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것이 없는데 어쩌면 이렇듯 마음속 진정을 터놓는것인가?

《이제 우리 쌍둥이가 커서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분조장은 관리위원장이 될지도 몰라요. 그 때가서 반대한 어미의 아들이라고 복수하면 안돼요.》

인숙아주머니의 눈앞에는 벌써 다 자란 쌍둥이가 얼른거리는 모양이었다.

승승장구할 농장의 래일을 믿어 마지 않는 그들, 자기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해 주는 사회주의협동벌이 더없이 귀중하기에 진실하고 참된 사람을 대오의 선두에 세우고 싶어 하는 그들이었다. 그 소박한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인간이기를 그만 두어야 할것이다.

《자!- 다들 쉬어서 합시다!-》

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호기 있게 소리쳤다.

그날 저녁 나는 분조장회의에 참가했다가 늦어서 돌아 오고 있었다. 행창 밝은 보름달이 밤하늘을 헤여 가고 착한 보물소리가 졸졸거리는 기분 좋은 저녁이었다.

낮에 맨 강냉이밭을 지나 마을로 뻗어 간 포천길을 별생각없이 걸던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무릎노리를 가리우는 강냉이포기들속에서 숨박곡질을 하고 있는 단아한 그림자를 발견했던것이다. 나는 이슬에 옷자락을 적시면서 그리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뜻밖에도 송이가 김을 매고 있었다.

《아니 여기서 뭘 하오? 김을 다 맨 밭에서?...》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의아쩍게 물었다. 조각으로 굳어 진듯 꼼짝 않고 앉아 있던 송이는 호하고 긴 한숨을 내그었다.

《한 처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것이 싫어서... 그리구 분조장동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풀도 매지 않구 눈속임을 하였어요. ... 분조장동문... 그런 처녀를 용서할수 있어요?》

《...?!》

나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송이가 말하는 처녀란 누구인가? 혹시 자기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그런데 왜 송이동무가 나왔소?》

《...》

이번엔 송이쪽에서 가만 있었다. 나는 몇걸음 앞에 서 있는 전주대에 눈길이 갔다.

전주대가 서 있는 교량은 내가 맨것이다. 그 다음엔 주봉실, 그옆엔 채흥기아바이, 그 다음줄은 송이였는데... 눈어름으로 이랑을 세여 보니 바로 지금 송이가 앉아 있는 그 교량은 송이자신

이 맨것이였다. 농장일에 단련되지 못한 그가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따라 가기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으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종시 마음에 걸려 밤에 깼 매려 나온 그것이 내 가슴을 울리었다. 달빛아래 앉아 있는 송이의 얼굴이 무척 아름답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불안스레 울렁거렸다.

《송이동무! 난 그 처녀를 얼마든지 용서하겠소.》

나는 때늦은 대답이라는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랑심을 속였는데두요? 땅을 속였는데두요?》
송이는 거둬 따져 물었다. 터놓지 못하는 괴로움이 그의 어조에 력력히 비껴 있었다.

《그럼 송이동문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또 회의를 열가? 도대체 그 처녀가 누구요?》

나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

오랜 침묵끝에 호-하고 한숨이 뒤 따랐다. 무언가 망설이며 바재이며 말하기 힘들어 하는 그것은 송이 같은데가 전혀 없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송이! 씨원히 말하오! 모든걸 고백해 주오.

《...됐습니다. 제가 그 처녀에게 전하겠어요. 리해하고 용서 했다고...》

말끝을 채 맺지 않고 송이는 갑자기 돌아 섰다. 그러더니 맨발을 벗은채로 냅다 달려 갔다. 호미와신발을 발머리에 버려 둔채...

나는 호미를 들고 그가 매가던 이랑에 가서 앉
상식

았다. 그리고는 걸싸게 호미질을 시작했다.

한참 일하다 허리를 펴니 맞은편에서 송이가 매나오고 있었다. 우리 둘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와 졌다. 20m, 10m, 5m...

×

가을이 왔다. 대지는 풍작을 안고 큰 숨을 쉰다. 자연은 봄여름 아껴 두었던 온갖 색깔로 이 가을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누런 파도속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웃는다. 번쩍거리는 낫날들이 금빛파도를 메어 눕힌다. 빨간 수확기는 누런 물결속에서 자맥질하는것처럼 보인다.

저 무수한 벼포기들과 강냉이숲의 매 이삭들을 하나하나 빚어 내어 이 가을을 안아 온 사람들, 이 땅을 기름 지우고 낱알을 가꾸며 운명을 같이한 나의 분조원들!

땅과 산천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닭은 고개》 전설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해마다 달라 저 간다. 보다 더 아름답게, 고상하게, 훌륭하게 완성의 경지로 달음쳐 간다.

한해가 가고 새봄이 오면 우리들은 또다시 땅에 씨앗을 묻는다. 선대의 우수성만을 닮은 좋은 종자를 어머니대지에 뿌린다. 농민의 꿈이고 희망인 그 씨앗은 해빛과 바람과 폭우를 뚫고 가을을 향하여 즐기치게 커간다. 우리 역시 인생의 터전에서 아름답리 거목으로 성장해 간다.

나도, 나의 분조원들도...

지문과 경맥전기전도도에 의한 체질분류와 진단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체질적특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하여 사람의 체질을 분류하고 체질적특성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 컴퓨터진단체계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기본은 열손가락의 지문과 팔다리의 일정한 부위에서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측정과 그 해석이다.

사람의 지문은 제가꿈 다르며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 이미 1920년대에 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해부학의 분과가 창설되었고 지문은 개인을 구별하는 보편적인 징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지문의 특징은 사람마다 고유하고 일단 형성되면 변하지 않으며 유전적속성을 가진다는것이다.

따라서 지문은 사람의 체질적특징, 유전적특징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좋은 정보원천으로 된다.

과학자들은 체질분류에서 리용하는 약물반응검사, 자률신경기능검사, 백혈구 및 적혈구수검사와 같은 여러가지 검사에서 얻은 선행한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해석처리하여 지문검사에 결합시킴으로써 그 정확성을 훨씬 높였다. 또한 팔, 다리의 측정점들에서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사람의 건강상태와 질병을 진단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지문을 촬영하고 전도도를 측정하는 장치와 컴퓨터, 그에 필요한 체계프로그램만 있으면 어디서나 리용할수 있다. 한번 측정하여 결과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정도이다.

이 방법을 리용하면 사람의 체질적특성을 현대의학과 고려의학의 립장에서 분류하고 선천적인 병상태와 예견되는 질병, 그 치료대책을 얻을수 있다. 또한 사람의 생리적특징, 심리적특징, 체격상 특징을 짐작할수 있으며 건강장수에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찾아 볼수 있다.

고려의학을 현대의학의 성과와 결부시켜 더욱 발전시키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고려의학에 적극 도입하는것은 실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